

- ④ 문정왕후의 숙부인 윤안인(尹安仁) 등, 김안로를 잡아들이다
- ⑤ 허항·채택 주찬(誅竄)과 삼흉(三凶)의 칭호

(3) 을사(乙巳)의 난(亂)과 정미사화(丁未士禍)

을사(乙巳)의 난(亂)

- ① 대윤(大尹)·쇼윤(小尹)의 알력(윤임(尹任)과 윤원형(尹元衡))
- ② 문정왕후의 수렴청정(垂簾聽政)과 외척의 전횡(專橫)
- ③ 윤원로(尹元老)의 찬적(竄謫)
- ④ 윤원형 등의 명류구함(名流構陷)
- ⑤ 윤원로의 소환과 그 찬사(竄死)

정미사화(丁未士禍)

- ① 벽서(壁書)와 봉성군(鳳城君) 완(阮) 등의 찬사(竄死)
- ② 문정왕후의 전횡(專橫)
- ③ 왕(王), 윤원형을 싫어하다
- ④ 이양(李樑)의 총용(寵用)과 그 찬축(竄逐)
- ⑤ 문정왕후의 사망과 윤원형의 폄찬(貶竄)

제3절 대외 관계

(1) 대(對) 명(明) 관계

- ① 연산군, 국사(國事)를 왕세제(王世弟)에게 맡기려고 하다
- ② 연산군, 왕세제의 책봉을 명(明)에 청하다
- ③ 왕세제의 책봉과 명(明) 조정(朝廷)
- ④ 연산군의 폐위와 책봉 요청
- ⑤ 중종(中宗)의 즉위와 명의 힐명(詰命)
- ⑥ 종계(宗系)의 변무(辨誣)

(2) 대(對) 일본 관계

삼포(三浦)의 난(亂)

- ① 삼포(三浦) 거류지의 변천
- ② 진장(鎭將)의 거류민 확대
- ③ 거류민의 분기(奮起)
- ④ 소 모리히로(宗盛弘)의 도해(渡海)
- ⑤ 부산·제포(濟浦)를 공격하다
- ⑥ 웅천(熊川)·동래(東萊)를 포위하다
- ⑦ 웅천(熊川) 현감(縣監)의 도주

- ⑧ 3도(三道)의 군대를 보내다
- ⑨ 변란(變亂)의 진화
- ⑩ 임신조약(壬申條約)

을묘(乙卯)의 변(變)

- ① 해구(海寇), 전라도를 침입하다
- ② 달량성(達梁城)을 함락하다
- ③ 영암(靈巖) 군수(郡守)를 포로로 잡다
- ④ 전주부윤(全州府尹) 이윤경(李潤慶), 해구를 물리치다
- ⑤ 제주도를 침입하다
- ⑥ 소씨(宗氏)의 진사(陳謝)

제4장 조선 초기의 문화(조사 중. 자세한 항목은 추후에 정하기로 한다)

제1절 제도

- ① 직관(職官)
- ② 병사(兵事)
- ③ 형벌(刑罰)
- ④ 재용(財用)
- ⑤ 전부(田賦)
- ⑥ 주군현(州郡縣)
- ⑦ 과거(科擧)
- ⑧ 호시(互市)
- ⑨ 호구(戶口)
- ⑩ 융성 시기의 제도·연혁(沿革)개설

제2절 문물

- ① 학교(學校)
- ② 서적(書籍)－주자(鑄字)·인쇄(印刷)
- ③ 예악(禮樂)
- ④ 천문(天文)·지리(地理)
- ⑤ 예술
- ⑥ 외국과의 교통(특히 명(明)과의 교통), 문물에 미친 영향

제3절 종교

- ① 조선 초기의 불교
- ② 유학과 불교의 관계

제4절 풍속

- ① 풍속개설
- ② 일본 및 명(明)과의 교통이 풍속에 미친 영향

제2기 외난(外難)시대

(선조 원년(1567년)부터 인조 15년(1637년)까지, 70년간)

개설

제1장 일본과의 관계

제1절 임진(壬辰) 이전의 조선

(1) 선조(宣祖)의 즉위 및 그 정치

- ① 선조의 즉위
- ② 선조, 뜻을 정치에 두다
- ③ 생부(生父)의 추존(追尊)과 대원군(大院君)
- ④ 당쟁
- ⑤ 선조, 점차 정치를 태만히 하다
- ⑥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세력
- ⑦ 정여립(鄭汝立)의 반란과 그 주륙(誅戮)
- ⑧ 정여립과 광적(獷賊) 길삼봉(吉三峯)
- ⑨ 정개청(鄭介淸)·최영(崔永)의 원옥(冤獄)

(2) 대(對) 명(明) 관계

- ① 이경맹(李慶孟),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얻어 귀환하다
- ② 종계(宗系) 오류(誤謬)의 정정(訂正)에 관한 조선의 주문(奏聞)
- ③ 오류 정정에 대해 재차 주문(奏聞)과 명(明)의 회답(回答)
- ④ 종계(宗系)의 수무(授誣)와 사인(士人)의 격양(激昂)
- ⑤ 명(明) 조정(朝廷), 조선의 주청(奏請)을 받아들이다
- ⑥ 중수(重修) 대명회전의 반사(頒賜)

(3) 대(對) 야인(野人) 관계

- ① 야인 추장 니탕개(尼湯介)의 침입
- ② 병비(兵備)의 이완과 야인의 창궐(猖獗)
- ③ 경원(慶源) 부사(府使)의 패배
- ④ 경기도 이하 5도(五道)의 군사를 보내다
- ⑤ 온성(穩城) 부사(府使) 신립(申砮), 야인을 무너뜨리다

제2절 일본의 제1차 정명(征明)과 조선

(1) 정명(征明)과 관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조선의 교섭

- ① 일본 국내 상황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업
- ②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상과 정명(征明)의 의지
- ③ 조선에 명(明)으로 들어가는 길을 빌리려 하다
- ④ 소 요시토시(宗義智)를 통해 뜻을 전하다
- ⑤ 소 요시토시, 조선의 반민(叛民)을 쇄환(刷還)하다
- ⑥ 황윤길(黃允吉) 및 김성일(金誠一)을 일본에 파견하다
- ⑦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한(書翰)
- ⑧ 일본의 정세에 관한 두 사자(使者)의 보고
- ⑨ 두 사자(使者)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관(豊臣秀吉觀)
- ⑩ 일본의 침입 주문(奏聞)에 관한 동(東)·서당(西黨)의 쟁론(爭論)
- ⑪ 일본 사자(使者) 평조신(平調信) 및 승려 겐소(玄蘇)가 조선에 오다
- ⑫ 선위사(宣慰使) 오억령(吳億齡)의 상계(上啓)와 조선의 경악
- ⑬ 한응인(韓應仁)을 명(明)에 파견하다
- ⑭ 방어책을 논의하다

(2) 일본군의 침입과 왕의 서분(西奔)

- ① 일본군의 도해(渡海)
- ② 3로(三路)의 방어
- ③ 경성(京城)의 방비를 고치다
- ④ 충주(忠州)의 패보(敗報)
- ⑤ 경성(京城)의 진해(震駭)
- ⑥ 왕자(王子)를 제도(諸道)에 파견하여 근왕(勤王)의 군사를 징발하다
- ⑦ 왕가(王駕)가 경성(京城)을 출발하다
- ⑧ 왕가(王駕)가 떠난 후의 경성(京城)
- ⑨ 왕(王), 개성(開城)에 도착하다
- ⑩ 경성(京城)의 함락
- ⑪ 왕가(王駕), 평양(平壤)에 들어가다
- ⑫ 명(明)에 구원을 청하다
- ⑬ 평양(平壤)의 함락
- ⑭ 왕(王), 의주(義州)로 피신하다
- ⑮ 두 왕자 생포 당하다

- ⑫ 이순신(李舜臣), 일본의 수군(水軍)을 이기다
- ⑬ 이현(梨峴, 전라도 진산군(珍山郡)) · 연안(延安, 황해도) · 경성(鏡城, 함경북도) 등의 전투
- ⑭ 진주성(晉州城)의 고수(固守)
- (3) 각 지의 의병(義兵)

 - ① 곽재우(郭再祐), 의병(義兵)을 일으키다(경상도)
 - ② 고경명(高敬命)과 유팽로(柳彭老)(전라좌도)
 - ③ 정인홍(鄭仁弘) 등 의병을 일으키다(경상도)
 - ④ 김천일(金千鎰) · 양산도(梁山濤) 등 의병을 일으키다(전라우도)
 - ⑤ 조헌(趙憲)의 격문(檄文)(충청도)
 - ⑥ 홍언수(洪彦秀)와 그의 아들 홍수남(洪秀男), 의병을 일으키다(경기도)
 - ⑦ 정문부(鄭文孚)의 경성(鏡城) 수복(收復)
 - ⑧ 의승군(義僧軍)

- (4) 명(明)의 원군(援軍)과 화의(和議)

 - ① 도요(渡遼)의 논의가 일다
 - ② 이덕형(李德馨), 요동(遼東)에 이르다
 - ③ 조승훈(祖承訓)의 내원(來援)과 패적(敗績)
 - ④ 조승훈(祖承訓)의 패적(敗績)과 명(明) 조정(朝廷)의 경악
 - ⑤ 명(明), 유세(遊說) 인사(人士)를 모으다
 - ⑥ 심유경(沈惟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만나다
 - ⑦ 이여송(李如松)을 동정제독(東征提督)에 임명하다
 - ⑧ 명군(明軍), 압록강을 건너다
 - ⑨ 이여송, 심유경을 구류(拘留)하다
 - ⑩ 평양 전투
 - ⑪ 고니시 유키나가, 경성(京城)으로 퇴각하다
 - ⑫ 벽제관(碧蹄館) 전투
 - ⑬ 화의(和議), 다시 시작되다
 - ⑭ 심유경, 일본 군영(軍營)에 사자(使者)로 가다
 - ⑮ 일본군, 경성에서 퇴각
 - ⑯ 화약(和約) 7개조
 - ⑰ 일본, 두 왕자를 돌려보내다
 - ⑱ 진주성의 함락

⑱ 이여송의 군대 철수하다

(5) 왕가(王駕)가 환경(還京)한 뒤 국내 상황

- ① 평양 수복(收復) 소식이 행궁(行宮)에 도착하다
- ② 왕가(王駕), 의주(義州)를 출발하다
- ③ 명(明)에 사자(使者)를 보내 경성 수복에 대한 감사를 전하다
- ④ 환경(還京)
- ⑤ 난(亂) 임진 후의 경성
- ⑥ 지방의 기근(饑饉)과 왕의 교서(敎書)
- ⑦ 명사헌(明司憲)의 선칙(宣勅)

제3절 일본의 제2차 정명(征明)과 조선

(1) 화의(和議) 결렬

- ① 진주사(陳奏使) 허항(許項)을 명(明)에 파견하다
- ② 명(明)의 화의(和議) 권고
- ③ 왕(王)의 척화(斥和)와 당론(黨論)
- ④ 명(明)의 일본 책봉사(冊封使) 오다
- ⑤ 황신(黃愼)·박홍장(朴弘長) 등 두 사람에게 명의 사자(使者)를 수행하게 하다
- ⑥ 일본의 철병(撤兵)
- ⑦ 명의 사자(使者) 및 조선의 사절(使節), 일본에 도착하다
- ⑧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명의 국서(國書)를 반려하다
- ⑨ 화의(和議), 깨지다

(2) 일본군의 재도(再渡)

- ① 일본군, 다시 바다를 건너다
- ② 사자(使者)를 급히 명에 파견하여 소식을 알리다
- ③ 이순신의 하옥(下獄)과 당쟁(黨爭)
- ④ 조선 수군(水軍)의 패적(敗績)과 이순신의 부활
- ⑤ 명군(明軍)의 구원
- ⑥ 각도(各道)의 방어
- ⑦ 남경 함락되다
- ⑧ 전주 무너지다
- ⑨ 직산(稷山) 전투
- ⑩ 이순신, 일본 수군을 진도에서 이기다

(3) 일본군의 수세(守勢) 및 철병(撤兵)

- 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퇴각의 명을 내리다
- ② 일본군, 경상도로 퇴각
- ③ 일본군의 둔영(屯營)
- ④ 명군(明軍)의 울산성(蔚山城) 포위와 실패
- ⑤ 명(明)의 경리(經理) 양호(楊鎬), 파면되어 만세덕(萬世德) 이를 대신하다
- ⑥ 명군(明軍), 회로(廻路)를 통해 군사를 이동하다
- ⑦ 이순신, 고금도(古金島)의 승첩
- ⑧ 명군(明軍), 신채(新寨)의 패전(敗戰)
- 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일본군의 철수
- ⑩ 노량(露梁) 해전(海戰)과 이순신의 전사(戰死)
- ⑪ 명군(明軍)의 철수

제4절 국교 회복 및 난중(亂中)·난후의 조선 상황

(1) 국교 회복

- ① 이덕형(李德馨)·황신(黃愼) 등 쓰시마(對馬島)를 토벌할 것을 청하다
- ②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소 요시토시(宗義智)를 통해 강화(講和)를 도모하다
- ③ 소 요시토시, 수차례 사자(使者)를 파견하다
- ④ 소 요시토시의 거짓말
- ⑤ 승려 유경(惟敬)을 일본에 파견하다
- ⑥ 두 능(陵)을 파헤친 범인 인도를 요청하다
- ⑦ 소씨(宗氏)가 박송(縛送)한 범인과 이덕형의 논쟁
- ⑧ 영상(領相) 유영경(柳永慶)의 화의(和議) 주장
- ⑨ 여우길(呂祐吉)·경섭(慶暹) 등을 일본에 파견하다
- ⑩ 쓰시마(對馬島)와 조약(條約) 성립(기유조약(己酉條約))

(2) 난(亂) 중의 사건

- ① 명(明)과 조선의 군사와 그 군량(軍糧)
- ② 전운(轉運)의 노고
- ③ 압록강의 개시(開市)
- ④ 기근과 전염병
- ⑤ 각 도의 피폐
- ⑥ 국용(國用)의 귀핍(匱乏)
- ⑦ 관작(官爵)을 팔다

- ⑧ 8도(八道)의 공부(貢賦)를 줄이다
- ⑨ 명군(明軍)의 횡포
- ⑩ 의병(義兵) 약탈
- ⑪ 의병과 토적(土賊)
- (3) 제도(諸島)의 토적(土賊)
 - ① 극적(劇賊) 이능수(李能水)와 현몽(玄夢)
 - ② 송진유(宋眞儒)의 모반(謀叛)
 - ③ 남원(南原)·운봉(雲峰)의 토적(土賊)
 - ④ 임실(任實)의 도적
 - ⑤ 이몽학(李夢鶴)의 난(亂)

제2장 만주(滿洲)와의 관계

제1절 만주군(滿洲軍)의 제1차 침략

(1) 애신각라(愛親覺羅) 씨의 흥기와 조선

- ① 애신각라 씨, 만주에서 발흥하다
- ② 후금국(後金國)의 국호(國號)
- ③ 만주군(滿洲軍)의 요동계(遼東界) 침입
- ④ 요동(遼東) 경략(經略) 양호(楊鏞), 만주를 정벌하다
- ⑤ 명(明) 조정(朝廷), 조선에서 군사를 징발하다
- ⑥ 강홍립(姜弘立)을 오도도원수(五道都元帥)에 임명하다
- ⑦ 명군(明軍) 삼로(三路)로 군사를 진군시키다
- ⑧ 명군의 패배
- ⑨ 강홍립 만주군에 항복하다
- ⑩ 조선 형세 관망
- ⑪ 요양(遼陽) 심양(瀋陽) 함락
- ⑫ 조선 수로(水路)에서 사신을 명(明)에 파견하지 않음

(2) 만주군의 조선 침입

- ① 후금(後金)의 태종(太宗) 즉위
- ② 항장(降將) 강홍립 등 조선 침입을 권하다
- ③ 만주군의 침입 이유
- ④ 명(明)의 총병(總兵) 모문룡(毛文龍), 진(鎭)을 피도(皮島, 조선의 이른바 가도(椴島))에 설치하다
- ⑤ 태종(太宗), 패륜아민(貝勒阿敏)을 보내 조선을 정벌하게 하다

- ⑥ 만주군, 압록강을 건너다
- ⑦ 모문룡, 피도(皮島)에서 신미도(身彌島)로 도주하다
- ⑧ 의주(義州)·곽산(郭山) 함락되다
- ⑨ 만주군, 청주강(淸州江)을 건너다
- ⑩ 안주성(安州城) 함락되다
- ⑪ 인조(仁祖), 제도(諸道)에 근왕(勤王)의 군사를 모으다
- ⑫ 평양을 지키는 데 실패하여 황주(黃州)가 무너지다
- ⑬ 왕(王), 강화도로 피신하다

(3) 조선의 화의(和議) 요청과 만주군의 철수

- ① 아민(阿敏)의 힐문(詰問)
- ② 화의(和議)를 청하다
- ③ 강화(講和) 협의와 양쪽의 서문(誓文)
- ④ 만주군의 철수
- ⑤ 왕가(王駕), 경성으로 돌아오다
- ⑥ 사신(使臣) 김상헌(金尙憲), 명(明)에 지원을 청하다
- ⑦ 명(明), 요동 순무(遼東巡撫)에게 조선을 지원하게 하다
- ⑧ 일본, 지원병을 보내려고 하다
- ⑨ 전후(戰後)의 피해
- ⑩ 청주강(淸江州) 이북(以北)의 황폐
- ⑪ 반란(叛亂)이 잇달아 일어나다
- ⑫ 모문룡의 시말(始末)

제2절 만주군의 제2차 침략

(1) 후금(後金)의 국호(國號) 개정과 조선 압박

- ① 후금이 병선(兵船)과 식량을 조선에서 징발하다
- ② 만주병(滿洲兵) 곽산(郭山)의 관고(官庫)를 파괴하다
- ③ 후금국(後金國), 맹약(盟約)을 고치려고 하다
- ④ 세폐(歲幣)를 요구
- ⑤ 침추(僉樞) 나덕헌(羅德憲)을 심양(瀋陽)에 파견하다
- ⑥ 후금의 태종(太宗), 국호(國號)를 청(淸)으로 고치다
- ⑦ 청(淸)의 사자(使者)가 와서 조선의 신사(臣事)를 요구하다
- ⑧ 조선 군신(君臣)의 격앙
- ⑨ 청의 사자를 참수하라는 논의와 청 사자의 도주

- ⑩ 청국(淸國)의 사서(使書)를 거절
- ⑪ 청 태종(太宗), 나덕헌(羅德憲)에게 서(書)를 들고 돌아가게 하다
- ⑫ 나덕헌(羅德憲)을 유배 보내다

(2) 만주군의 재침(再侵)

- ① 조선의 배청열(排淸熱)
- ② 이조판서 최명길(崔鳴吉)의 평화설(平和說)
- ③ 청 태종(太宗), 친정(親征)을 결의하다
- ④ 조선의 변강수(邊疆守)를 상실하다
- ⑤ 청군(淸軍) 멀리까지 말을 달려 경성을 목전에 두다
- ⑥ 조선 관민(官民), 당황하다
- ⑦ 빈궁(嬪宮)·왕자를 강화도로 피신시키다
- ⑧ 청병(淸兵), 강화도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하다
- ⑨ 왕(王),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다

(3) 남한산성(南漢山城) 포위

- ① 왕(王)의 입성(入城)
- ② 수성(守城)과 모병(募兵)
- ③ 청군(淸軍)의 포위
- ④ 청병(淸兵), 성(城) 안팎을 차단하다
- ⑤ 성병(城兵)의 출전(出戰)과 패배
- ⑥ 제도(諸道) 지원군의 패적(敗績)
- ⑦ 성(城) 안의 식량
- ⑧ 백관(百官)의 식료(食料)를 줄이다

(4) 강화(江華) 함락의 시말(始末)

- ① 강화(江華) 수비를 논의하다
- ② 판윤(判尹) 김경징(金慶徵), 강화검찰사(江華檢察使)에 임명되다
- ③ 대신(大臣) 윤방(尹昉)·김상용(金尙容) 등, 빈궁(嬪宮)과 왕자를 호위하며 종사(宗社)를 만들어 강화(江華)로 들어가다
- ④ 김경징(金慶徵)과 강도유수(江都留守) 장신(張紳)의 대립
- ⑤ 김경징, 수비를 태만히 하다
- ⑥ 청 태종(太宗), 팔기(八旗)에 소선(小船) 80척을 만들도록 명하다
- ⑦ 청병(淸兵), 강화(江華)로 향하다
- ⑧ 조선군의 도주

- ⑨ 김경징·장신 도주
- ⑩ 김상용의 절사(節死)
- ⑪ 빈궁(嬪宮)·왕자(王子), 청군(淸軍)에 생포되다

제3절 삼전도(三田渡)의 맹약(盟約)과 항복 후의 조선

(1) 조선의 항복

- ① 성(城) 안의 궁궐과 화의(和議) 요청
- ② 조선의 국서(國書)와 청(淸)의 답서(答書)
- ③ 김상헌(金尙憲), 국서(國書)를 찢다
- ④ 청(淸), 왕(王)의 항복을 요구하다
- ⑤ 강화(江華) 함락 소식 날아들다
- ⑥ 출성절목(出城節目)의 의정(議定)
- ⑦ 세공(歲貢)을 정하다
- ⑧ 삼전도(三田渡)의 맹약(盟約)
- ⑨ 청병(淸兵)의 철수
- ⑩ 세자(世子)·빈궁(嬪宮) 및 봉림대군(鳳林大君) 등 북행(北行)

(2) 호란(胡亂) 후의 사건

- ① 경성 및 제도(諸島)의 탕잔(蕩殘)
- ② 애통(哀痛)한 교서(敎書)를 내리다
- ③ 강화(江華) 제장(諸將)의 죄를 규탄하다
- ④ 척화(斥和)를 주장한 대신(大臣)을 청(淸)에 보내다
- ⑤ 김유(金瑬)를 유배 보내다
- ⑥ 삼전도(三田渡)의 비(碑)를 세우다

(3) 조선의 대명(對明)과 대청(對淸)

- ① 청(淸), 조선의 군사를 징발하여 피도(皮島)를 공격하게 하다
- ② 의주부윤(義州府尹) 임경업(林慶業), 몰래 피도(皮島)의 장사(將士)를 구출하다
- ③ 청의 징병(徵兵)과 영상(領相) 최명길(崔鳴吉)의 거절
- ④ 청, 전선(戰船)과 식량을 징발하다
- ⑤ 임경업(林慶業), 몰래 배를 가라앉히다
- ⑥ 최명길, 승려 독보(獨步)를 명(明)에 보내다
- ⑦ 명(明)의 답서(答書)
- ⑧ 일련의 상황이 폭로되다
- ⑨ 최명길, 심양(瀋陽)에 유폐되다

- ⑩ 최명길과 김상헌(金尙憲)
- ⑪ 명(明)의 멸망
- ⑫ 청 수도를 연경(燕京)으로 정하다
- ⑬ 세자(世子) 봉림대군과 최명길의 귀국

제3장 당쟁(黨爭)

제1절 당론(黨論)의 분파(分派)

(1) 당쟁의 범람과 당론의 분열

- ① 당쟁의 범람
- ② 사림화(士林禍)와 당쟁
- ③ 심·김(심의겸(沈義謙)·김효원(金孝元))의 분쟁과 당쟁의 격화
- ④ 이준경(李浚慶)의 유차(遺劄)
- ⑤ 이이(李瑋)의 양론(兩論) 중재
- ⑥ 이이, 관직(官職)을 버리다
- ⑦ 시론(時論)의 궤열(潰裂)(사림이 모두 동(東)과 서(西), 어느 한쪽 당으로 들어간다)
- ⑧ 북호(北胡)의 난(亂)과 이이(李瑋)
- ⑨ 이이의 사망과 양론(兩論) 조정(調訂)의 절망
- ⑩ 정여립(鄭汝立)의 반란(叛亂)과 서인(西人)의 동인(東人) 배척

(2) 남북 당론의 분기(分岐)

- ① 건저(建儲)의 책봉과 좌상(左相) 정철(鄭澈)의 패찬(敗竄)
- ② 서인(西人)이 물러나고 동인(東人)이 조정에 들어간다
- ③ 남북 분기(分岐)의 시작
- ④ 유성룡(柳成龍)의 병정(秉政)과 남인(南人)의 득세
- ⑤ 북인(北人)의 유성룡 배척
- ⑥ 유성룡의 관직(官職) 삭탈(削奪)과 좌상(左相) 이원익(李元翼)의 회호(回護)
- ⑦ 유성룡, 관직을 회복하다

(3) 당론(黨論)의 분쟁

- ① 대북(大北)·소북(小北)의 분쟁
- ② 골북(骨北)과 육북(肉北)의 쟁론(爭論)
- ③ 왕(王)의 서인(西人) 중용과 서(西)·북(北)의 논쟁
- ④ 유영경(柳永慶) 소북의 병정(秉政)
- ⑤ 탁소북(濁小北)·청소북(淸小北)의 분열

제2절 폐주(廢主) 광해군과 북인(北人)

- (1) 광해군의 즉위와 대윤(大尹)·소윤(小尹)의 분쟁
 - ① 광해군을 세자(世子)로 책봉하다
 - ② 명(明) 조정(朝廷)에 주문(奏聞)하다
 - ③ 선조(宣祖)의 양위와 세자(世子)의 사소(辭疏)
 - ④ 영창대군(永昌大君) 의(璘)의 탄생
 - ⑤ 선조(宣祖), 세자(世子)를 바꾸고 싶어하다
 - ⑥ 유영경(柳永慶)의 건의
 - ⑦ 이선해(李仙海)¹³⁾·이이첨(李爾瞻), 광해군을 지지하다
 - ⑧ 대북(大北)·소북(小北)의 논쟁
 - ⑨ 선조(宣祖)의 사망
- (2) 광해군의 내정 문란
 - ① 광해군의 즉위와 명(明)의 책봉
 - ② 유영경 등 유배 보내다
 - ③ 임해군(臨海君)의 옥(獄)
 - ④ 김제남(金悌男, 대비(大妃) 김씨의 아버지)과 영창대군(永昌大君) 의(璘)
 - ⑤ 대비(大妃) 폐위의 단서
 - ⑥ 대비를 경운궁(慶運宮)으로 옮기다
 - ⑦ 주저흥서(呪咀兇書)
 - ⑧ 대비 폐출(廢出)에 관한 논쟁
 - ⑨ 종실(宗室)·백관(百官)의 의견 수렴
 - ⑩ 대비를 폐위하고 능창군(綾昌君) 전(佺)을 죽이다
- (3) 광해군의 폐위
 - ① 이이첨(李爾瞻) 등 국정을 어지럽히다
 - ② 후궁(後宮) 등을 들이다
 - ③ 빈번한 토목 공사와 백성의 궁핍
 - ④ 재정(財政)의 곤란
 - ⑤ 매관(賣官)과 육작(鬻爵)
 - ⑥ 과장행사(科場行私)의 폐단
 - ⑦ 의옥(疑獄)의 속출
 - ⑧ 뇌물과 면옥(免獄)
 - ⑨ 이귀(李貴)의 밀모(密謀)와 삼청(三清)의 결의

13) 이산해(李山海)의 오기.

- ⑩ 이귀(李貴) 등 거병하다
- ⑪ 이괄(李适)과 김유(金瑬)
- ⑫ 김유, 병사를 거느리고 창덕궁(昌德宮)으로 진격하다
- ⑬ 광해군을 폐하고 능창군(綾昌君) 종(宗)을 옹립하다
- ⑭ 폐위된 광해군

제3절 인조(仁祖)의 치세와 내변(內變)

(1) 이괄(李适)의 난

- ① 인조의 즉위와 이괄의 불만
- ② 이괄, 평안부사(平安副使) 겸 부원수(副元帥)에 임명되다
- ③ 이괄, 한명련(韓明璉, 귀성(龜城)부사)과 함께 거병하다
- ④ 도원수(都元帥), 평양을 고수(固守)하다
- ⑤ 장만(張晩)의 출사(出師)
- ⑥ 관군(官軍)의 패적(敗績)
- ⑦ 이괄 등, 벽제(碧蹄)에 도착하다
- ⑧ 왕가(王駕), 공주(公州)로 피신하다
- ⑨ 이괄 등, 경성으로 들어가다
- ⑩ 관병(官兵), 적군(賊軍)을 무찌르다
- ⑪ 이괄 등, 부하에게 살해되다
- ⑫ 한명련 아들 윤(潤), 만주로 도망가다
- ⑬ 왕(王)의 환도(還都)

(2) 이괄의 난 이후 상황

- ① 박홍구(朴弘壽)의 옥(獄)
- ② 이괄의 난(亂)과 인성군(仁城君) 공(珙)
- ③ 목성선(睦性善), 인성군을 구하다
- ④ 이인거(李仁居)의 반란
- ⑤ 유효립(柳孝立)의 반란
- ⑥ 이인거와 인성군
- ⑦ 인성군을 진도(珍島)로 보내다
- ⑧ 인성군, 사사(賜死)되다
- ⑨ 제(諸) 옥사(獄事)

제4장 조선 제2기의 문화

제1절 당쟁(黨爭)과 유학

- (1) 당쟁과 예론(禮論)
- (2) 서원(書院) 흥융의 조직

제2절 불교의 상태

- (1) 불교의 금지
- (2) 승려의 봉위(封位)

제3절 임진역(壬辰役)이 문물에 미친 영향

제3기 청(淸) 복속 시대(인조 15년(1637년)부터 철종 말년(1863년)까지, 226년간)

개설

제1장 당쟁의 전개 양상

제1절 서인(西人)·남인(南人)의 논쟁

- (1) 서인 부활
 - ① 광해군 폐위의 근본 의미
 - ② 서인의 대두와 인조(仁祖)의 서(西)·북인(北人) 균용(均用)
 - ③ 인조 반정(仁祖反政)의 정치와 내부의 분란
 - ④ 효종(孝宗)의 송시열(宋時烈) 등용
 - ⑤ 서인의 득세
- (2) 서인의 실각과 남인의 분파(分派)
 - ① 효종의 사망과 자의대비(慈懿大妃)(효종의 형 소현세자의 비 강씨)의 상복(喪服)
 - ② 기년설(基年說)과 대공설(大功說)
 - ③ 윤휴(尹鑄)의 이기설(理氣說)과 송시열
 - ④ 남인(南人)의 서인(西人) 공격
 - ⑤ 남인의 송시열 탄핵
 - ⑥ 송시열 등, 멀리 유배에 처해지다
 - ⑦ 남인이 조정(朝廷)을 장악하다
 - ⑧ 남인의 분파(청남(淸南)·탁남(濁南))와 복제론(服制論)에 관한 두 가지 설(참쇠삼년설(斬衰三年說)과 제쇠기년설(齊衰基年說))
 - ⑨ 고묘론(告廟論)와 서인 사론(士論) 격발(激發)
 - ⑩ 서인의 일망타진
 - ⑪ 강화(江華)의 투서(投書)와 혼(焜, 임창군(臨昌君))·황(煌, 임성군(臨城君)) 두 왕손을 귀양보내다
 - ⑫ 청남(淸南) 빈척(擯斥)

- (3) 경신(庚申)의 대출척(大黜陟)과 남인(南人)의 쇠락
- ① 유악(油幄) 문제와 남인(南人) 쇠락의 조짐
 - ② 홍유(紅袖)의 옥(獄)
 - ③ 복선군(福善君) 남(柁)과 허견(許堅)(영상(領相) 허적(許積)의 아들)
 - ④ 제복(諸福)의 밀모(密謀)
 - ⑤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 심찰(審察)
 - ⑥ 제복(諸福)과 허견의 주찬(誅竄)
 - ⑦ 허적·윤휴(尹鑣)를 사사(賜死)하다
 - ⑧ 남인(南人) 출척(黜陟)과 서인(西人) 등용

제2절 서인(西人)의 분파(分派)

- (1) 노론(老論)·소론(少論)의 분파(分派)
- ① 송시열, 다시 조정(朝廷)으로 돌아오다
 - ② 삼고변(三告變)의 옥(獄)(노론·소론 분파의 발단)
 - ③ 송시열에 대한 소론자(少論者)의 반항
 - ④ 송시열, 태조에 시호(諡號)를 올릴 것을 청하다
 - ⑤ 박세채(朴世采)의 반대론
 - ⑥ 윤중(尹拯)과 송시열
 - ⑦ 송시열, 귀향(歸鄉)하다
 - ⑧ 노론(老論)·소론(少論)의 알력
- (2) 원자(元子) 정호(定號) 사건과 남인(南人)의 재기
- ① 장소의(張昭儀)의 총애와 왕자(王子)의 탄생
 - ② 원자(元子) 정호(定號)를 대신(大臣)들에게 자문하다
 - ③ 송시열의 상소(上疏)와 왕(王)의 소척(疎斥)
 - ④ 송시열을 유배 보내고 김수항(金壽恒)을 사사(賜死)하다
 - ⑤ 남인(南人), 다시 조정(朝廷)에 들어가다
 - ⑥ 폐비(廢妃)와 오두연(吳斗演)·박태보(朴泰輔) 등의 상소(上疏)
 - ⑦ 남인(南人), 송시열을 배척하다
 - ⑧ 송시열을 사사(賜死)하다
 - ⑨ 민씨(閔氏), 사저(私邸)로 가다
 - ⑩ 민비(閔妃)를 폐하고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비(妃)로 올리다
- (3) 서인의 세력 회복과 노론·소론의 대항
- ① 숙종(肅宗)의 후회와 서인의 폐비(廢妃) 복위(復位) 도모

- ② 우상(右相) 민암(閔黯)의 반대당 제거 계획과 그 실패
- ③ 장비(張妃)의 폐위와 민비(閔妃)의 복위
- ④ 남인(南人)의 유배
- ⑤ 송시열의 복관(復官)과 사제(賜祭)
- ⑥ 소론(少論) 등용
- ⑦ 무고(巫蠱)와 장씨(張氏)의 옥(獄)
- ⑧ 노론·소론 함께 정권을 잡다
- ⑨ 정국 일변(一變)
- (4) 신임사화(辛壬士禍)와 소론의 승리
 - ① 노론의 내분
 - ② 왕(王), 세자(世子)를 책봉
 - ③ 왕, 세제(世弟) 청정(聽政)의 교서(敎書)를 내리다
 - ④ 소론(少論)의 반항
 - ⑤ 영상(領相) 김창집(金昌集) 등, 정유(丁酉) 대리(代理)의 예(例)에 따를 것을 청하다
 - ⑥ 우상(右相) 조태구(趙泰壽) 등의 반대
 - ⑦ 왕세제(王世弟), 대리청정(代理聽政)의 교서(敎書)를 거두다
 - ⑧ 김일경(金一鏡)의 김창집 탄핵
 - ⑨ 동궁(東宮) 암살 음모 사건과 목호룡(睦虎龍)의 상변(上變)
 - ⑩ 임인(壬寅)의 옥(獄)과 노론(老論)의 일소(一掃)

제3절 당론(黨論)의 탕평(蕩平)

- (1) 영조(英祖)의 즉위와 노론(老論)의 부활
 - ① 노론·소론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다
 - ② 목호룡(睦虎龍)의 국문(鞫問)
 - ③ 김일경(金一鏡)의 죄상(罪狀) 폭로
 - ④ 김일경 및 그 무리의 주벌(誅伐)
 - ⑤ 조태구(趙泰壽) 등을 퇴출시키다
 - ⑥ 노론 기용
- (2) 정미(丁未)의 환국(換局)과 김일경 무리의 반란
 - ① 소론이 복귀하여 노론을 대신하다
 - ② 이인좌(李麟佐)의 반란
 - ③ 밀풍군(密豐君) 탄(坦)을 추대하다

- ④ 금군(禁軍) 부장(副將) 남태징(南泰徵) 등의 내응(內應)
- ⑤ 최규서(崔奎瑞)의 상변(上變)과 토벌령(討伐令)
- ⑥ 반군(叛軍)의 패주(敗走)
- ⑦ 이인좌·남태징 등 주살(誅殺)
- ⑧ 윤지(尹志), 김일경의 무리인 윤취상(尹就商)의 아들의 변(變)
- ⑨ 심정원(沈鼎遠), 이인좌의 무리인 심성연(沈成衍)의 동생
- ⑩ 천의소감(闡義昭鑑)

(3) 영조(英祖) 및 정조(正祖)의 당론 탕평(蕩平)

- ① 영조(英祖), 양론(兩論)의 조정을 피하다
- ② 노론·소론을 나란히 중용
- ③ 탕평(蕩平)의 교서(敎書)를 내리다
- ④ 윤지(尹志) 등의 변(變)과 소론의 실각
- ⑤ 왕세손(王世孫), 책립(冊立)
- ⑥ 영조(英祖)의 왕세손 경계
- ⑦ 정조와 노론
- ⑧ 정조 양론(兩論)의 조정에 나서다
- ⑨ 정조의 탕평(蕩平)
- ⑩ 사당(四黨)의 영존(永存)

제2장 외척(外戚)의 전권(專權)

제1절 외척(外戚)의 화(禍) (1)

(1) 척신(戚臣) 전횡(專橫)의 시작

- ① 척리(戚里) 김귀주(金龜柱)와 홍봉한(洪鳳漢)의 분당알력(分黨軋轢)
- ② 김한록(金漢祿, 김귀주의 종숙), 세손(世孫, 정조)을 위해하려고 도모하다
- ③ 은언군(恩彦君) 인(愼)·은신군(恩信君) 진(禛)(모두 영조(英祖)의 동생)의 찬적(竄謫)
- ④ 부제학(副提學) 김시찬(金時燾) 척리(戚里) 인연(寅緣)의 폐단을 탄핵하다
- ⑤ 영조(英祖), 세손(世孫)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의 교서(敎書)를 내리다
- ⑥ 홍인한(洪麟漢, 홍봉한의 동생, 정조의 생모인 홍씨의 숙부)의 반대
- ⑦ 홍인한, 정후겸(鄭厚謙, 양모(養母)가 영조의 9번째 딸로 위세를 떨침)과 결탁하다
- ⑧ 홍인한의 세손 배척
- ⑨ 세손의 등극과 병정(丙丁)의 옥(獄)

⑩ 홍국영(洪國榮)과 세도(世道)

⑪ 홍국영의 퇴출

(2) 수렴청정(垂簾聽政)과 척족(戚族)의 알력

① 순조(純祖)의 유충(幼冲)과 수렴청정

② 지사(知事) 김조순(金祖淳)의 보좌(輔佐)

③ 왕비(王妃) 김씨(金氏)의 책립(冊立)과 권유(權裕, 김귀주의 무리)의 반대

④ 권유의 국사(鞫死)

⑤ 홍경래(洪景來)의 난(亂)과 박효성(朴孝成)의 난원론(亂源論)

⑥ 조신(朝臣)의 배척과 외척의 봉당(朋黨)

⑦ 징토론(懲討論)과 순조(純祖)의 하교(下敎)

⑧ 국운(國運)의 침체와 전염병의 유행

⑨ 대수대기(大水大饑)와 기민(飢民)의 둔집(屯集)

(3) 홍경래(洪景來)의 난

① 홍경래의 반란

② 가산군(嘉山郡)을 함락하다

③ 적도 토벌령(賊徒討伐令)을 내리다

④ 홍경래의 군대, 완주(完州)에 거점을 마련하다

⑤ 선천(宣川) 부사(府使), 홍경래 군대에 항복하다

⑥ 청군(淸軍), 지원군으로 오다

⑦ 관군(官軍), 정주(定州)를 함락하다

⑧ 홍경래의 복주(伏誅)

⑨ 정주(定州) 싸움에서 사망한 장사(將士)의 기적비(紀蹟碑)

제2절 외척(外戚)의 화(禍) (2)

(1) 조씨(趙氏)·김씨(金氏)의 전권(專權)

① 세자(世子) 경(昖, 순조의 세자 즉 문조(文祖))의 대리청정(代理聽政)

② 세자의 총명함과 그 명망(名望)

③ 세자의 요절(夭折)과 비(妃) 조씨(趙氏)

④ 헌종(憲宗)의 즉위

⑤ 정권은 조씨(趙氏)의 수중으로

⑥ 헌종(憲宗)의 용렬(庸劣)과 조씨(趙氏)의 전권(專權)

⑦ 시폐(時弊)와 옥사(獄事)

⑧ 헌종(憲宗)의 사망과 후계자 분쟁

- ⑨ 순원왕후(純元王后, 순조의 비)의 내지(內旨)와 철종(哲宗)의 즉위
- ⑩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과 김문근(金汶根, 김비(金妃)의 부친)의 대정장찬(大政帳贊)
- ⑪ 김씨(金氏)의 세력 확대
- (2) 김씨(金氏)의 전권(專權)과 국가의 피폐
 - ① 조신(朝臣)의 부패
 - ② 나합(羅閤)의 세력
 - ③ 김(金)·남(南)의 알력(김병기(金炳冀)·남병철(南秉哲))
 - ④ 제자(諸子)의 책립(冊立)과 제김(諸金)의 권력 분쟁
 - ⑤ 종실(宗室) 이정진(李貞鎰)의 원사(冤死)
 - ⑥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의 찬적(竄謫)
 - ⑦ 삼정(三政)의 문란
 - ⑧ 홍수 및 역병과 난민(亂民)의 동요(動搖)

제3장 조선 제3기의 문화

제1절 문화의 부흥

- (1) 법률 제도의 부활
- (2) 학문의 발달
- (3) 외국 문물의 수입

제2절 일본 및 청(淸)의 문화풍으로

(이 항목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 (1) 일본과 교통 회복이 조선 풍속에 미친 영향
- (2) 청나라 풍속 및 언어의 유입

제3절 천주교의 유행

- (1) 천주교의 전래와 엄금(嚴禁)
- (2) 천주교의 만연과 그 이유

제4장 대외 관계

제1절 항복 후의 대청(對淸) 관계

- (1) 국제 관계의 변화와 효종(孝宗)의 북벌 계획
 - ① 청(淸)의 정삭(正朔)을 받들다
 - ② 청의 연호(年號)를 사용하다
 - ③ 속국(屬國)의 예(禮)
 - ④ 동지사(冬至使)
 - ⑤ 효종, 심양(瀋陽)에 유폐되다

- ⑥ 설욕(雪辱)의 의지
 - ⑦ 장릉(長陵,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지문(誌文)과 명(明)의 연호(年號)
 - ⑧ 성지갑병(城地甲兵)의 수선(修繕)과 김자점(金自點)의 밀고
 - ⑨ 청(淸) 조정(朝廷)의 힐문(詰問)
 - ⑩ 영상(領相) 이경석(李景奭), 국난(國難)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다
 - ⑪ 송시열(宋時烈), 이완(李莞) 등을 신임하다
 - ⑫ 북벌 준비와 사대(事大)의 예(禮)
 - ⑬ 청(淸)을 도와 나선(羅禪)을 정벌하다
 - ⑭ 효종(孝宗)의 서거
- (2) 북벌 계획의 소멸과 배청(排淸) 사상
- ① 오삼계(吳三桂)의 난(亂)과 청군(淸軍) 패배 소식
 - ② 사인(士人) 나수좌(羅須佐)의 상소(上疏)
 - ③ 승지(承旨) 윤휴(尹鑄)의 북벌 창의(唱議)
 - ④ 조선의 기근과 청국(淸國)이 보낸 썩은 구제미(救濟米)
 - ⑤ 당쟁(黨爭)과 북벌 계획의 소멸
 - ⑥ 청국(淸國)과의 경계(境界)를 정하다
 - ⑦ 향명(向明)·항청(抗淸) 사상
 - ⑧ 대보단(大報壇)을 만들다
 - ⑨ 존주휘편(尊周彙編)의 찬집(纂輯)
 - ⑩ 기년(紀年)의 서법(書法)
 - ⑪ 배청(排淸) 사상의 소멸
- (3) 청국(淸國)의 국난과 조선
- ① 청국, 영국 및 프랑스와 충돌하다
 - ② 청국 패배 소식과 조선
 - ③ 청·러 조약 및 러시아와 조선
 - ④ 조선 관민(官民)의 접경(接境)
- 제2절 대(對) 일본 관계
- (1) 국교 회복 후 일본과 조선의 교통
- ① 통신사(通信使)의 왕래
 - ② 빙례(聘禮)의 제의(諸儀)
 - ③ 수륙노정(水陸路程)
 - ④ 조선 사자(使者), 일광산(日光山) 치제(致祭)

- ⑤ 일본, 조선 사자(使者) 접대의 의(儀)를 정하다
 - ⑥ 접대의 의(儀)의 복구
 - ⑦ 울릉도(鬱陵島) 사건
 - ⑧ 일본, 조선에 동(銅) 반출을 허가하다
 - ⑨ 일본, 조선의 빙례(聘禮)를 쓰시마(對馬)에서 받는 의(儀)를 정하다
 - ⑩ 일본, 구미 제국(諸國)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음을 알리다
 - ⑪ 일본과 교빙(交聘)의 의(儀)를 정지하다
- (2) 쓰시마(對馬)와의 관계(자세한 항목은 조사 중이므로 추후에 정할 것이다)

제6편 조선 최근세

(철종 14년(1864년)부터 이왕(李王) 융희(隆熙) 4년(1910년)까지, 47년간)

개설

제1기 청(淸) 세력 감퇴 시대

(철종 14년(1864년)부터 이태왕(李太王) 32년(1895년)까지, 32년간)

개설

제1장 이태왕(李太王)의 즉위와 대원군(大院君)의 친정(擅政)

제1절 이태왕(李太王)의 즉위

- ① 철종(哲宗)의 서거
- ② 제(諸) 외척(外戚)의 후계자 문제
- ③ 흥선군(興宣君)의 기략(機略)
- ④ 이태왕(李太王)의 가계(家系)와 즉위

제2절 대원군(大院君)의 내정 혁신

(1) 대왕대비 조씨(趙氏)의 수렴청정(垂簾聽政)

- ① 대원군의 대우
- ② 김(金)·조(趙) 두 가문의 분쟁
- ③ 대원군의 실권 장악
- ④ 대원왕부하(大院王部下)의 배치

(2) 경복궁(景福宮) 중건(重建)

- ① 중건 의의
- ② 경복궁의 유래

③ 조영(造營)에 필요한 자재(資財) 징수 방법

④ 화재(火災)와 공사(工事)의 지체

⑤ 완성과 영향

(3) 풍교(風敎) 혁신

① 인재 등용과 당화(黨禍)의 제거

② 서원(書院) 철폐

③ 풍속의 교정(矯正)

(4) 제도

① 진위상(鎭衛上)의 설비

② 법전(法典) 편찬

(5) 재정(財政) 정비

① 징세법(徵稅法)의 개혁

② 전화(錢貨) 주조(鑄造)

③ 창름 제도(倉廩制度) 정비

제2장 대외 관계

제1절 쇄국(鎖國) 정책

(1) 쇄국주의(鎖國主義)

① 서서(西書) 수입 엄금

② 자국 문화의 과지(跨持)

③ 세계의 추세에 무지(無知)

④ 서양 문명 계수상(繼受上)의 일본과 조선 비교

⑤ 철저한 쇄국(鎖國)

(2) 서방 세력의 동침(東侵)에 대한 공포

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성효(成效)와 조선

② 노국 접양(露國接壤)

③ 청국(淸國), 평화책을 조선에 권고하다

④ 일본의 개국과 조선

(3) 배외주의(排外主義)와 조선의 쇄망

① 장래소요(將來騷擾)의 골자로서 배외주의(排外主義)

② 배외(排外) 사상과 쇄망

제2절 천주교도의 박해와 프랑스 함대의 내습(來襲)

(1) 천주교의 도래(渡來)

- ① 도래(渡來)의 기원(起元)
- ② 천주교도 증가와 박해
- ③ 프랑스와 조선의 교섭
- ④ 구주(歐洲) 선교사 간의 배제(排擠)

(2) 프랑스 함대의 내습(來襲)

- ① 벨마와 대원군(大院君)의 괴리
- ② 중국에서의 학살 허보(虛報)
- ③ 리텔의 보고
- ④ 헤비네 공사(公使)의 기획
- ⑤ 제1차 침입
- ⑥ 제2차 침입
- ⑦ 프랑스군의 퇴각
- ⑧ 방비 엄수(嚴修)

제3절 미국 함대의 내습(來襲)

(1) 초기의 한미 관계

- ① 인삼(人蔘) 무역
- ② 미국과 청국(淸國) 항로상(航路上)의 조선
- ③ 조선과 미국의 수교 계획

(2) 한미 분홍(紛紜)

- ① 서프라이즈 호의 구원
- ② 셔먼 호의 조난
- ③ 독일 침략
- ④ 조선과 미국의 교섭
- ⑤ 강화도의 전투
- ⑥ 쇄국 방침의 확립

제4절 일본의 수교(修交) 제의 및 이에 대한 국론(國論)

(1) 막부(幕府) 말기의 한국과 일본

- ① 소원해진 교통
- ② 서방의 동침(東侵)과 조선 및 일본
- ③ 프랑스 함대의 침입과 조선 및 일본

(2) 일본과 한국 수교 제의

- ① 유신(維新)을 통지(通知)

② 대원왕(大院王)의 극심한 배외(排外)

(3) 일본의 국론(國論)

① 초기의 정한론(征韓論)

② 일본의 외교 문제

③ 견한사신(遣韓使臣)의 교체(交替)

④ 견청사신(遣淸使臣)의 질문

⑤ 견한(遣韓)대사(大使)와 조의(朝議)의 궤열(潰裂)

⑥ 대원왕(大院王)의 은퇴와 쇄국(鎖國) 문제

제3장 일본과의 수교(修交)

제1절 왕비(王妃)의 책립(册立)과 민씨(閔氏) 융성

(1) 왕비(王妃)의 책립(册立)

① 대원왕(大院王)의 실책(失策)

② 왕비(王妃)의 책립(册立)

(2) 민씨(閔氏)의 융기(隆起)

① 이조 말의 외척(外戚)

② 민씨의 융성

③ 외척(外戚)의 연맹(連盟)

④ 이원왕(李院王) 반동책(反動策)

⑤ 대원왕(大院王)의 낭전(浪轉)

제2절 강화도 사건과 일·한수호조약(日韓修好條約)

(1) 강화도 사건

① 청국(淸國)의 친일(親日) 권고

② 운양호(雲楊號) 사건

(2) 일·한수호조약(日韓修好條約)

① 일본의 견사(遣使)

② 한정(韓廷)의 응의(凝議)

③ 조약 체결과 그 의의

제3절 개진파(開進派)의 대두

(1) 보수파와 개진파(開進派)

① 개명(開明)의 대세(大勢)

② 민씨(閔氏) 가문의 개명주의(開明主義)

③ 개진파(開進派)의 융성

(2) 개진파(開進派)와 두 인접국

- ① 개진파와 일본
- ② 개항(開港) 실행
- ③ 개진파와 청국(淸國)

제4장 임오의 난(壬午의 亂, 1882년)

제1절 동란(動亂)의 원인과 폭동

(1) 동란의 원인

- ① 보수파의 반동(反動)
- ② 민씨(閔氏)에 대한 반감(反感)
- ③ 국정(國政)의 타락

(2) 폭동

- ① 병사(兵士)의 격양(激昂)
- ② 제(諸) 권신(權臣)의 학살
- ③ 왕비(王妃)의 피신
- ④ 개진파(開進派) 습격
- ⑤ 대원왕(大院王)의 집정(執政)

제2절 제물포조약 체결

- ① 일본 사신(使臣) 내한(來韓)
- ② 조약 체결
- ③ 조약의 요점과 그 영향

제3절 청국(淸國)의 내정 간섭

(1) 청국의 대한(對韓) 정책

- ① 이홍장(李鴻章)의 대한책(對韓策)
- ② 청국의 기우(杞憂)

(2) 청국의 파병

- ① 왕비(王妃)의 구원
- ② 청병(淸兵) 내한(來韓)
- ③ 대원왕(大院王)의 압송(押送)
- ④ 제물포조약과 청국

(3) 정무(政務) 간섭

- ① 속국정책(屬國政策)의 관행
- ② 반동(反動)

제5장 갑신의 난(甲申의 亂, 1884년)

제1절 사대당(事大黨) 대(對) 독립당(獨立黨)

- ① 왕비(王妃)의 청(淸) 세력 영합
- ② 청(淸)·한(韓) 국경(國境) 사건
- ③ 청·한 섭외(涉外) 상황
- ④ 일본의 독립 부조책(獨立扶助策)
- ⑤ 소장(少壯) 정치가의 외력(外力) 인연

제2절 청병(淸兵)의 폭거와 일본의 대항

(1) 폭동 발발

- ① 우정국(郵政局)의 축하연
- ② 소장파(少壯派)의 정권 장악
- ③ 청병(淸兵)의 폭거

(2) 독립당(獨立黨)의 차질(蹉跎)

- ① 국왕(國王)의 위기
- ② 일본 공사(公使)의 철수
- ③ 독립당 패배
- ④ 이노우에(井上) 대사(大使)의 내한(來韓)
- ⑤ 서상우(徐相雨) 등의 도일(渡日) 사명(使命)

제3절 텐진조약(天津條約)

- ① 경성(京城)의 일(日)·청(淸) 주둔군 문제
- ② 텐진조약(天津條約)
- ③ 대원왕(大院王) 귀국

제6장 여러 외국과의 교섭

제1절 구미 열강과의 수교(修交)

(1) 미국·영국·독일 그 밖의 국가들과 수교

- ① 미국과 수교
- ② 영국과 수교
- ③ 독일과 수교
- ④ 그 밖의 제국(諸國)과 수교
- ⑤ 구미인(歐美人)의 조선 탐험

(2) 러시아와의 수교

- ① 뮐렌도르프와 러시아

② 통상조약(通商條約)

③ 청·러 양국의 각축

제2절 거문도 사건

① 영국과 러시아의 동침책(東侵策)의 충돌

② 거문도 점령

③ 항의 및 철수

제3절 청 세력의 쇠락

(1) 한국과 청 관계의 동요(動搖)

① 모화(慕華) 사상이 점차 소멸

② 청국(淸國)의 대한책(對韓策) 긴축(緊縮)

③ 한국과 청국의 괴리 및 민씨(閔氏) 집안의 배신

④ 뫼렌도르프·데니 등의 배청영로(排淸迎露)

(2) 일본 세력의 부식(扶植)

① 일(日)·청(淸), 동등한 실세로 승인

②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방어책

③ 일·청 세력 부식(扶植)의 차이

④ 방곡령(防穀令)

⑤ 청 세력의 쇠퇴

제7장 일·청 전쟁

제1절 동학당(東學黨)의 봉기

(1) 국정(國政)의 문란

① 중앙의 정비와 지방의 쇠미

② 지방 폭정(暴政)

(2) 동학당(東學黨)

① 동학당의 내력

② 동학당의 주장

③ 토벌

④ 김옥균(金玉均)의 암살

⑤ 동학당과 정쟁(政爭)

제2절 청국(淸國)의 파병과 일본의 대항

① 청병(淸兵) 파견 요구

② 청국의 출병(出兵)

③ 일본의 출병(出兵)

④ 일(日)·청(淸)·한(韓)의 상의(商議) 및 영국과 러시아의 중재

제3절 전쟁의 경과와 국정 혁신

(1) 선전포고 전의 쟁투(爭鬪)

① 일본의 혁폐(革弊) 권고와 경복궁 총화(衝火)

② 풍도 해전(豊島海戰)

③ 아산 육전(牙山陸戰)

(2) 선전포고와 청(淸)의 패배

① 일(日)·청(淸)의 선전포고

② 일(日)·한(韓) 수교(修交)

③ 평양(平壤) 및 해양도(海洋島) 전투

④ 이노우에(井上) 공사(公使)의 내한(來韓) 및 조선 보빙사(報聘使)

⑤ 청국(淸國) 내부의 전쟁

제4절 강화(講和)와 조선

① 청국의 청화사(淸和使) 파견

② 일본의 승리

③ 일·청 강화(講和)

④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과 조선

제2기 독립시대

(이태왕(李太王) 32년(1895년)부터 이태왕 광무 9년(1905년)까지, 11년간)

개설

제1장 국정 혁신 및 그 역전(逆戰)

제1절 갑오(甲午) 혁신

① 개혁의 장애 요건 제거

② 혁정(革政)의 서언(誓言)

③ 소위 독립의 의의

제2절 국정 개혁의 역전

① 김학우(金鶴羽)의 암살

② 박영효(朴泳孝)와 민씨(閔氏) 가문

③ 이준용(李峻鎔)의 유형(流刑)

④ 삼국 간섭의 영향

- ⑤ 독립 기념제
- ⑥ 박영효의 망명(亡命)
- ⑦ 이노우에(井上) 백작의 정쟁(政爭) 조정
- ⑧ 미우라(三浦) 공사(公使)의 내임(來任)

제3절 을미의 변(乙未의 變, 1895년) 및 을미의 변 이후의 정국(政局)

- ① 한국 조정(朝廷)의 혼란(混亂)과 배신
- ② 훈련대(訓練隊)의 격분(激憤)
- ③ 대원왕(大院王)의 입궁(入宮)과 흥변(凶變)
- ④ 대원왕파(大院王派)의 집정(執政)
- ⑤ 흥변(凶變)에 대한 일본의 조치
- ⑥ 소요(騷擾)와 경성외교단(京城外交團)

제2장 한정(韓政)의 친러(親露) 경향

제1절 국왕의 러시아 사관(使館) 파천(播遷)과 친러 정책

- ① 건원(建元) 및 치발령(薙髮令)
- ② 국왕의 러시아 사관(使館) 파천(播遷)
- ③ 제신(諸臣)의 살육
- ④ 일본 세력의 침체
- ⑤ 고마츠(小松)·베베르 협상(協商)
- ⑥ 러시아 세력의 활동 왕성해지다
- ⑦ 모스크바협약(協約)
- ⑧ 러시아·미국인 등의 이권(利權) 획득

제2절 독립 형식의 정비

- ① 국왕의 환궁(還宮)
- ② 러시아 교관(敎官) 및 고문
- ③ 독립 형식의 정리

제3절 독립 옹호 운동과 영국·러시아의 각축

(1) 국권 옹호 운동과 미국

- ① 러시아 세력에 대한 의구(疑懼)
- ② 독립구락부(獨立俱樂部)의 조성
- ③ 미국의 러시아 견제
- ④ 독립운동의 부진(不振)
- ⑤ 미국 모방의 유행과 실망

⑥ 반동(反動)

(2) 영국과 러시아의 각축

- ① 러시아 방침 변경
- ② 러시아 관리(官吏) 임용 강청(強請)
- ③ 영국의 항의
- ④ 러시아 제2 협상과 열국(列國)의 동방발전(東方發辰)
- ⑤ 러시아의 완화 정책

제4절 러시아의 대한(對韓) 정책의 진척

- ① 영국과 러시아의 분쟁과 일본의 대한책(對韓策)
- ② 파블로프 공사(公使)의 부임(赴任)
- ③ 북청사변(北淸事變)과 한국
- ④ 러시아 프랑스의 사업
- ⑤ 일본 및 러시아와 이용익(李容翊)
- ⑥ 마산·거제도 불양여(不讓與) 계약
- ⑦ 많은 러시아인이 내한(來韓)
- ⑧ 일·영 동맹
- ⑨ 러시아·프랑스 동맹의 의의
- ⑩ 경제 상태와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
- ⑪ 경의철도(京義鐵道) 기공(起工)
- ⑫ 이용익의 실세(失勢)
- ⑬ 러시아, 만주 철병(撤兵) 문제
- ⑭ 제일은행권의 통용 거절
- ⑮ 러시아의 용암포(龍岩浦) 침입
- ⑯ 열강(列強)과 용암포 문제

제3장 일러 전쟁

제1절 개전(開戰) 전의 대외 정책

- ① 국외 중립정책
- ② 중립정책과 러시아
- ③ 일본과 러시아 교섭의 절박
- ④ 국교 단절

제2절 개전(開戰)과 일·한 친교(親交)

- ① 선전포고

- ② 일·한 동맹과 대사(大使) 부임(赴任)
- ③ 압록강 전투와 그 영향
- ④ 한로국교단절(韓露國交斷絶)
- ⑤ 친일 정책
- ⑥ 군정(軍政) 시행
- ⑦ 재정(財政) 및 외교 고문(顧問) 용빙(傭聘)
- ⑧ 전승(戰勝)과 일·한 대사(大使)의 내왕

제3절 강화(講和)와 한국(韓國)

- ① 강화회의
- ② 강화(講和)와 한국의 행동
- ③ 한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지위

제3기 일본 보호정치 시대(이태왕 광무 9년(1905년)부터 이왕(李王) 융희 4년(1910년)의 6년간)

개설

제1장 일·한 제(諸) 협약(協約)의 성립

제1절 일·한협약과 행정고문

- ① 국정 개혁의 권고와 일·한협약
- ② 행정 각 고문의 취임
- ③ 행정상의 제(諸) 개혁

제2절 보호협약 확립

- ① 한국의 세(勢)와 정당
- ② 이토(伊藤)의 내한(來韓)과 제안
- ③ 협약 체결
- ④ 민심의 동요
- ⑤ 보빙대사(報聘大使) 파견

제2장 통감부(統監府) 개설

제1절 남한(南韓)의 폭동

- ① 협약에 대한 오해
- ② 최익현(崔益鉉)·민중식(閔宗植)의 반대

제2절 통감부의 시정(施政)

- ① 통감부 개설(開設)

② 왕궁곽청(王宮廓淸)

③ 서정(庶政) 개혁

④ 경제 재정의 정리

제3절 한국 정부의 내홍(內訌)

① 한국 정계(政界)의 암류(暗流)

② 각신(閣臣)에 대한 박해

③ 당국(當局) 탄핵

④ 당국(當局) 경질

제4절 헤이그 밀사 사건

① 외국인의 운동

② 밀사(密使)의 도구(渡歐)

③ 헤이그의 밀사(密使)

④ 밀사(密使) 사건과 한국 조정(朝廷)

제5절 정미정변(丁未政變)과 그 영향

① 각의(閣議)의 결정

② 양위(讓位)

③ 경성의 폭동

④ 양위식(讓位式)과 음모

제3장 통감 정치 진행

제1절 신협약(新協約)의 체결 및 군대의 해산

① 정변(政變)과 신협약

② 보호권의 확장

③ 정변 때의 군대

④ 군대 해산

⑤ 군대 해산 때의 경성 폭동

⑥ 지방 폭동

제2절 한국 조정(朝廷)의 일본 신뢰

① 새 황제 즉위식

②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

③ 새 황제의 창덕궁(昌德宮) 천이(遷移)

④ 왕세자의 일본 유학

⑤ 한국 황제의 순행(巡幸)과 이토 히로부미(伊藤) 공(公)

⑥ 이토 히로부미의 퇴임

제3절 간도(間島) 문제의 해결

① 문제의 유래

② 해결

제4장 일·한 병합(併合)

제1절 병합의 기운(機運)

① 한국 정치의 혼란

② 관서(官署)의 점폐(漸廢)

③ 이토 히로부미(伊藤) 공(公)의 조난(遭難)

④ 조난과 한국

⑤ 조난과 내외 여론

⑥ 한국 정당(政黨)의 태도

제2절 병합(併合)의 실시

① 통감(統監)의 경질

② 새로운 통감 부임 후 한국의 동정

③ 병합

제3절 병합 후의 신정(新政)

① 신정(新政)의 방침

② 신정과 일반민(一般民)

③ 총독부(總督府)의 설치

제5장 문명적 시설 유입

제1절 행정 및 사법

① 제1기 : 갑오(甲午) 혁신 전의 행정·사법

② 제2기 : 일·러전쟁 이전의 행정·사법

③ 제3기 : 일·러전쟁 이후의 행정·사법

제2절 교통운수

① 도로

② 철도·전차

③ 항만(하천 교통)·등대

④ 우편

⑤ 전신·전화

제3절 산업

- ① 농업(목축·양잠)·식림(植林)
- ② 어업
- ③ 공업·광업
- ④ 상업·무역·세관(稅關)
- ⑤ 금융·은행

제4절 교육 및 종교

- ① 학제(學制) 및 학교의 설립
- ② 각국의 포교(布教)

제5절 의료 및 위생

- ① 포교(布教)와 의료
- ② 보호 정치와 의료·위생

제6절 구제진흥(救濟賑恤)

- ① 보호 정치 전의 상황
- ② 보호 정치 후의 상황

〈출전 : 『朝鮮半島史要項細目』, 연도미상, 미국 하와이대학 헤일튼도서관 소장〉

2. 『조선반도사』의 내용

1) 『조선반도사』 1편 원고(상고 부분)

상고(上古) 삼한

개설(概說)

조선 민족이 조선 반도에 거주하게 된 내력은 분명하지 않다. 그 선주민(先住民)의 유무(有無) 및 이들과의 관계 역시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현재 조선 민족의 본간(本幹)을 이루는 한종족(韓種族)이 조선 반도 남부에서 서부에 걸쳐 정주(定住)하였으며, 이른바 예맥족(濊貊族)은 중국 대륙에서 조선 반도 동쪽, 즉 함경도·강원도 지역에 걸쳐 정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맥족은 조선 반도의 구석진 지역 일부 지방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데 불과하며, 조선 반도의 주요 주민은 한종족이었던 것이다.

이들 민족 중에는 마을 단위로 모여 이루어진 집단에서 성장하여 원시적인 소국가(小國家)를 형성하였고,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조선·진번(眞番)·임둔(臨屯)·진국(辰國) 등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임둔 하나만이 예맥족이 세운 국가로 여겨지는 것 외에 다른 국가들은 한종족이 세운 국가들이며, 그 중에서 조선은 서북(西北) 지역에 자리하여 중국 대륙과 교통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역이어서 다른 국가보다 훨씬 앞선 발전을 이루었으며, 또한 오래 전부터 중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 조선에는 은(殷)나라의 현인(賢人) 기자(箕子)가 왕실의 선조라는 전설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의 나라를 기자조선(箕子朝鮮)이라고 부른다. 또한 근세(近世)에 이르러 태고단군(太古檀君)이라는 신인(神人)이 태백산(묘향산(妙香山))에 내려와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기자가 오자 나라를 기자에게 맡기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하는 전설도 있어, 이 가상의 조선을 기자조선과 구별하여 왕검조선(王儉朝鮮) 또는 단군조선(檀君朝鮮)이라고도 부른다.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王儉)은 그 이름이다. 이른바 기씨조선(箕氏朝鮮)은 본래 한강(漢江) 이북(以北) 대동강(大同江) 방면에 있어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기씨조선과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연(燕)나라 사이에는 다양한 교섭이 있었으며, 연나라가 강대해지자 조선을 침략해 속국(屬國)으로 삼아 그 남쪽에 있던 진번(眞番)에까지 영향력이 미쳤으나, 진(秦)나라가 들어서면서 요동(遼東)의 변방(邊方)

에 속하게 되었다. 한(漢)나라 때에 패수(溟水)를 경계로 조선을 한 제국(漢帝國)의 연왕국(燕王國)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나라 사람인 위만(衛滿)이라는 자가 무리를 이끌고 패수(溟水)를 건너 조선의 북쪽 경계에 살면서 마침내 조선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진번 등을 복속시켜 왕검(王儉,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후의 조선을 위씨조선(衛氏朝鮮)이라고 하여, 기씨조선·단군조선과 구별하였으며, 또한 이들 세 조선을 이씨조선과 구별하여 고조선이라고도 부른다.

위만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며 손자인 우거(右渠) 때에 이르러 한나라 무제(漢武帝)에게 멸망당하였다.

기씨조선과 위씨조선은 모두 조선이라는 국호(國號)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국가였다. 기씨조선은 한종족(韓種族)이 세운 조선이지만, 위씨조선은 중국에서 이주해 온 한민족(漢民族)이 세운 국가로, 그 백성은 대부분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무제(漢武帝)는 원봉(元封) 3년에 조선을 멸망시켰는데, 이 지역과 새로이 한(漢)나라의 위세에 복속한 지역에 4군(四郡)을 설치하였다. 위씨조선의 땅에 낙랑군(樂浪郡)을 설치하고, 그 밖에 남쪽의 한민족(韓民族) 땅에는 진번군(真番郡)을 설치하였으며, 동북쪽의 예족(濊貊族) 땅에는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하고, 동쪽에는 임둔군(臨屯郡)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민족(漢民族)이 주로 살던 조선 땅에 설치한 낙랑군은 다스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한예(韓濊)가 살던 조선 땅에 설치한 군현(郡縣)의 통치는 매우 어려움을 겪다가, 불과 27년 만인 한 소제(漢昭帝)의 시원(始元) 5년에 진번·임둔 등 두 군을 폐지하고 현도군을 만주(滿洲)로 옮겨, 조선 반도에는 낙랑군만 남게 되었다.

후한(後漢) 말에 이르러, 북쪽에 있는 부여족(扶余族)에서 나온 고구려가 지금의 동가강(修佳江) 유역에서부터 압록강(鴨綠江) 유역까지 차지하여 낙랑을 압박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조선 반도의 남쪽에서도 한민족이 흥기(興起)하기 시작하였다. 후한(後漢) 시대의 한종족(韓種族)은 마한(馬韓)·변한(弁韓)·진한(辰韓) 등 세 나라로 크게 구별되나, 그 속에 많은 소국(小國)이 있었으며 개 중에는 다른 나라에 명령을 하는 세력자도 출현하여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였다.

마한은 충청·전라 지역에 자리해 있었으며, 마한과 낙랑에 살던 한인(漢人)들은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였으나, 후한 말에 이르러 많은 낙랑인들이 마한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남쪽 지역은 황무지가 되었다. 이에 당시 요동(遼東)에서 할거하던 공손씨(公孫氏)는 조선 반도의 경영에 착수하여 이 지방에 대방군(帶方郡)을 새로이 설치하여 유민(遺民)들을 모았다. 이때부터 조선 반도에는 한인(漢人)의 군(郡)으로 낙

랑·대방 등 두 개의 군이 자리하게 되었으나, 이 무렵에 부여족의 일족으로 만주에 거주하던 자들이 남하하여 마한의 땅에 들어가 이 나라에 정주하면서 훗날 백제국을 세우는 기반을 다졌다. 고구려가 북쪽에서부터 낙랑을 침략하자 마한 종족은 남쪽에서 대방을 침입하였는데, 3세기 후반에 이르러 백제는 신흥(新興)의 기세가 불타오름으로써 그 부근의 마한 제(諸) 소국(小國)을 병합하여 매우 강력해지면서 한산(漢山)에 전도(奠都)하였으며 대방을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낙랑·대방은 고구려·백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점차 쇠퇴하였으며 결국 대동강 하류에 겨우 잔류하다가 건흥(建興) 원년(313년)에 이르러 조선 반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남쪽에는 이보다 앞서 신라가 진한의 한 나라 중에서 일어나 점차 강대해졌으며, 신라·백제 사이에 가라제국(加羅諸國)이 있었지만, 고구려·신라·백제라는 삼국이 대체로 정립하는 형세가 되었다.

조선 민족의 역사는 그 선조인 한민족(韓民族)의 역사와 이어져 있으며, 위씨조선·한 4군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의 역사에서 생략해야 하겠지만, 이들의 역사는 한민족 그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 역사를 풀어갈 수 없으므로, 여기에 기술하는 것이다.

백제는 그 왕실(王室) 및 일부 귀족은 부여족의 후예이지만, 그 백성은 마한인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한인이 부여족인 왕을 받들었던 셈이다. 신라는 진한을 통일하였고, 가라(加羅), (임나(任那))는 변한족이므로, 이들은 조선 민족의 나라이지만, 고구려의 경우에는 부여민족이 대륙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 반도 북쪽에 나라를 세우면서 시작된 나라로, 후대에 이르러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 국민(國人)은 대부분 발해(渤海)로 들어갔던 반면, 신라로 들어가는 자는 적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조선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요소가 아니지만, 이를 조선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루지 않으면 복잡한 당대(當代)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본서에서는 고구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제1기 원시시대(原始時代)

개설

원시시대란, 태고(太古) 때부터 한(漢)나라가 위씨조선(衛氏朝鮮)을 멸망시킨 시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대에는 조선 민족의 주체인 한민족(韓民族)에 관한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 겨우, 조선·진번(眞番)·진국(辰國)의 이름이 나와 있는 정도이다. 기씨조선(箕氏朝鮮)은 구분해 보아야 마땅하며 이를 한민족(韓民族)의 국가로 보더라도 기자조선이 멸

망하자 그 백성들이 흩어져 남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민족인 마한(馬韓)에 섞여 들어가 그 역사가 막을 내림으로써, 후대에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다. 위씨조선(衛氏朝鮮)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종족(韓種族)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또한, 한종족(韓種族)에 대해서는 원시시대였음을 면할 수 없다.

종래 역사가 중에는 일종의 편견에 빠져, 조선 민족이 전 민족 일 국가를 형성하여 출현하여 나중에 분열시대(分裂時代)로 들어갔다가 다시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다고 오해해, 출현 이후 다년간 일 왕국(一王國)을 구성하였다고 보고 이 왕국을 왕실(王室)의 변이(變移)에 따라,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구분하여 이를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또는 기자조선을 마한 왕국(馬韓王國)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 밖에 이런저런 계승설(繼承說)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사실을 탐구하기 위해 이미 본편의 개설에 그에 대해 설명하였듯이, 기원전 3세기, 다시 말해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때에는 이미 조선 반도에 정주(定住)한 조선 민족 중에 조선·진번·진국 등으로 불리는 비교적 큰 원시적 국가가 조선 민족이 형성한 많은 부락(部落)적 국가 사이에서 출현하였으며, 이들 중에 조선은 서북쪽에 한민족(漢民族)과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 반도 서북쪽으로 이주해 온 한민족(漢民族)에게 가장 먼저 멸망되었다. 이 조선은 사실 조선 민족의 일부분이 그 북부에서 형성한 한 소왕국(小王國)에 불과하다. 조선 민족 역사의 본편은 이 당시 조선 반도의 남부에서 많은 소국(小國)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한종족(韓種族)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기자조선은 그 중에서 세상에 알려진 한 나라에 불과하다. 이조시대 관찬(官撰)된 『동국통감(東國通鑑)』은 고조선 및 4군(四郡) 삼조(三朝)를 외기(外紀)로 편성하였다. 기자조선과 삼한은 외기(外紀)에 넣어서는 안 되지만, 그 밖의 것을 외기(外紀)에 넣은 것은 식견이 있는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군·기자의 전설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서에서는 먼저 이에 대해 기술한 다음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개국(開國) 전설을 기술하고 고조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1장 조선 개국(開國)의 제(諸) 전설

제1절 기자 개국(開國) 전설

기원전 4·5세기 무렵에는 중국인이 지금의 대동강(大同江) 북쪽을 열양(列陽)이라고 부르며 그 곳에 와 사는 경우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동강 남쪽에는 조선이라 불리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의 자취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 없다. 이 국

가는 대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의 국가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동강 남쪽에 있던 한민족(韓民族)의 한 소국(小國)이 일찍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당시 여러 국가 중에서 비교적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동방(東方)의 여러 지방 중에서 가장 개화(開化)된 국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중국에는 은(殷)나라 말의 현인(賢人) 기자가 이 국가의 제후(諸侯)로 갔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 전설은 아마 은나라 사람의 후예인 송(宋)나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서(漢書)』에는 은나라가 쇠퇴하면서 기자가 은나라를 떠나 조선으로 가서 조선 백성에게 예의(禮義)·전잠(田蠶)·직작(織作)을 가르쳐, 낙랑·조선의 백성이 범금 8조(犯禁八條)를 지켰다는 기사가 나온다. 단, 8조(八條)의 범금(犯禁)은 한(漢)나라의 군(郡) 설치 이전의 풍속을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시대(三國時代) 위(魏)나라 때에 『위략(魏略)』이라는 사료에는 기자의 자손에 대해 조금은 자세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설(說)은 아마 낙랑의 한인(漢人)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그 설에 따르면, 기자의 후예는 조선후(朝鮮侯)로서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였으나, 연(燕)나라가 스스로 왕호(王號)를 칭하던 무렵부터 기자의 후예 역시 왕호를 스스로 칭하였으며, 진(秦)나라 때에 기자의 후예 중에 부(否)라는 왕이 있었고 부의 아들은 준(準)이라고 하였으며, 준의 치세 때, 아마 한(漢)나라 초에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중국인과 함께 본국의 난을 피해 도망해 왔다는 것, 준이 지배하는 지역의 서쪽에 거주하다가 마침내 이들을 이끌고 준을 공격하여 준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삼국지(三國志)』에는 기자조선에 8조(八條)의 가르침을 만들어 이를 가르쳐 대문이 없어도 도둑이 생기지 않았다고 고한다. 그 후 40여 년 후 조선후 준이 호칭을 왕(王)을 바꾸었으나, 연나라 출신의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 자신의 관인(官人)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 한(韓)의 땅으로 들어가 스스로 한왕(韓王)으로 칭하였지만, 그 후 절멸(絶滅)하여 한인(韓人)들이 그의 제사를 모셨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른바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에게 멸망된 것은 한(漢)나라 혜제(惠帝) 때의 일일 것이다. 그 후 100여 년이 흘러, 작성된 『사기(史記)』의 「조선전(朝鮮傳)」에는 기자에 대한 기사가 한 자도 등장하지 않는데, 훨씬 후대에 나온 『위략(魏略)』, 『삼국지(三國志)』에 기자의 기사가 상세히 나와 있다는 것은, 이들 사료들이 낙랑(樂浪)·대방(帶方)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전기(傳記) 혹은 전설을 바탕 자료로 하여 저술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상세한 것이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제2절 단군전설(檀君傳說)

조선에는 단군전설(檀君傳說)이 있다. 기자조선(箕子朝鮮) 이전에 단군의 조선이 있었다는 설(說)이다. 단군 전설은 고려의 원종왕(元宗王) 때에 편찬된 『삼국유사(三國遺事)』

에 실려 있는 내용이 현존하는 문헌 중 가장 처음 나오는 기사이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왕검조선(王儉朝鮮)이라고 주(注)를 달았다.

『위서(魏書)』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계서 아사달(阿斯達)－경(經)에는 무엽산(無葉山)이라 했고, 또는 백악(白岳)이라고도 했는데, 백주(白州)에 있다. 혹 개성(開城) 동쪽에 있다고도 하는데 지금의 백악궁(白岳宮)이 바로 이것이다－에 도움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는데 요(堯)와 같은 때였다고 한다.¹⁴⁾

『고기(古記)』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환인(桓因)－제석(帝釋)을 이른다－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계서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三危太伯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이다－의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이 분을 환웅 천왕(天王)이라 한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백 60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神雄, 桓雄)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신(桓雄)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에 평양성(平壤城)에－지금의 서경(西京)－도움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다. 또다시 도움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에 옮겼다. 그곳을 또는 궁(弓)－혹은 방(方)자로도 되어 있다－홀산(忽山)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 한다. 그는 1천5백 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封)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고 한다.¹⁵⁾

14)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 無葉山 亦云 白岳 在白州地 或云 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堯同時.

15)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

라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와 있다. 『삼국유사』는 『위서(魏書)』 및 『고기(古記)』에서 수록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위서』는 물론 그 밖의 중국 원대(元代) 이전의 사료에 실린 단군과 관련한 기사는 전무하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두 군데에 단군과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 하나는 「왕력편(王曆篇)」에 고구려의 시조(始祖)인 동명왕(東明王) 주몽(朱蒙)이 단군의 자손 ‘단군지자(檀君之子)’라고 나와 있는 기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명왕 출생담의 주(注)에,

「단군기(檀君記)」에는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를 살펴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정을 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한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했다” 하니,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인 것이다.¹⁶⁾

라고 나와 있는 기사이다.

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주자(注者) “찬자(撰者)와 다른 인물이다”가 부루(夫妻)와 주몽을 이모형제(異母兄弟)로 기술한 것은 이부형제(異父兄弟)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모형제로 기술한 것은 우선 주몽이 단군의 자손이라고 실려 있는 왕력편(王曆篇)의 기사 및 『삼국유사』가 다른 곳에 인용한 『고기(古記)』에 “天帝降于訖升骨城乘五龍車立都號王國號北扶余自稱名解慕漱生子名夫妻云云”이라는 기사 등으로 생각되며 부루의 아버지인 해모수(解慕漱)는 다시 말해 단군의 아들이자 주몽의 아버지라고 해석하였고, 서하(西河) 하백(河伯)과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있는 우발수(優渤水) 하백(河伯)을 각각 다른 하백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조선 세종왕대(世宗王代)에 완성된 윤회(尹淮)·신장(申樞) 등의 『지리지(地理志)』(『世宗王實錄地理志』로서 실록에 수록되었다)에는 평양(平壤) 조(條)에,

『단군고기(檀君古記)』에 이르기를, “상제(上帝) 환인(桓因)이 서자(庶子)가 있으니, 이

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一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芝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不見日光一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無與爲婚 故每於神檀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以唐堯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疑其未實) 都平壤(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 忽山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武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16) 檀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妻 今據此記(三國史記)則解慕漱私河伯女 而後產朱蒙 檀君記云 產子名曰夫妻與朱蒙異母兄弟也.

름이 웅(雄)인데,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 가지고 태백산(太白山)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강림하였으니, 이가 곧 단웅천왕(檀雄天王)이 되었다. 손녀(孫女)로 하여금 약(藥)을 마시고 인신(人身)이 되게 하여, 단수(檀樹)의 신(神)과 더불어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단군(檀君)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니, 조선(朝鮮), 시라(尸羅), 고례(高禮), 남·북 옥저(南北沃沮), 동·북 부여(東北扶餘), 예(濊)와 맥(貊)이 모두 단군의 다스림이 되었다. 단군이 비서갑(非西岬) 하백(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부루(夫妻)이다. 이를 곧 동부여왕(東扶餘王)이라고 이른다. 단군이 당요(唐堯)와 더불어 같은 날에 임금이 되고, 우(禹)가 도산(塗山)의 모임을 당하여, 태자(太子) 부루(夫妻)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 나라를 누린 지 1천 38년 만인 은(殷)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阿斯達)에 들어가 신(神)이 되니, 지금의 문화현(文化縣) 구월산(九月山)이다.¹⁷⁾

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삼국유사』에 주(注)를 단 사람의 단군기(檀君記)라는 것도 이러한 종류의 책이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고기(古記)』의 단군 전설이 원시적인 이미지인 반면, 『지리지(地理志)』의 단군고기(檀君古記)는 이를 크게 개정하고 이에 수식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군 전설이 황당무계하여 볼 만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조선의 학자들도 설명하였으나, 그 전설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단군왕검의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이름이다. 왕검은 후대의 위씨조선(衛氏朝鮮) 시대 평양을 가리키는 옛 이름으로, 이 이름은 한(漢)나라의 군현시대(郡縣時代)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고구려가 이를 평양으로 개명(改名)하여 그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이 이름에 따라 평양의 지기(地祇)에 왕검선인(王儉仙人)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서, 옛 지명인 왕험(王險)은 선인(仙人, 지기(地祇))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에 훗날 단군의 존칭을 붙였던 것이다(선인의 이름은 험(險)이었는데 이를 검(儉)으로 고친 것이다). 왕검선인은 훨씬 예전부터 평양을 개창(開創)한 지기(地祇)로서 그 지방에 전해지던 존재였을 것이다. 고구려 시대보다 앞선 시대의 전설적 신인(神人)을 본체(本體)로 한 것인데 아마 북부여(北扶餘)의 해부루(解夫妻)였을 것이다. 이 원시적인 전설은 신인(神人)을 아버지로 신수(神獸)를 어머니로 하는 북방 제(諸) 민족의 시조(始祖) 출생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존숭(尊崇)된 다수의 선인(仙人)의 반열에는 들지 못

17)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謂桓雄天王 令孫女飲樂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濊與貊皆檀君之理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妻 是謂東扶餘王 檀君與堯高同日而立 至禹會塗山 遣太子夫妻朝焉 享國一千三十八年 至殷武丁乙未入阿斯達爲神今文化縣九月山.

하였으나, 고려 인종왕(仁宗王) 무렵부터 고려 고종왕(高宗王)에 이르는 사이에 단(檀)이라는 존칭을 붙여 점차 존숭(尊崇)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원종왕(元宗王)·충숙왕(忠肅王) 무렵까지는 단군으로 보다 왕검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개국(開國) 전설

개국신인(開國神人)인 단군의 전설은 본래 한민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 한민족은 북방 민족이 가지고 있던 야비한 개국전설과 전혀 다른 매우 고상한 고유의 개국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 신화는 오늘날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파편이로나마 남겨진 그 전설을 살펴보면 일본 민족의 그것과 유사하여 실로 성스러운 것이다.

신라는 개국 초기 6부(部)를 통해 형성되는데, 6부의 각 시조(始祖)는 각각 그 땅의 산상(山上)으로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 6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紫卵)에서 태어난 혁거세(赫居世)를 받들어 왕으로 삼았으며, 왕비 알영(閼英)은 성스런 우물가에 나타난 계룡(鷄龍)의 왼쪽 옆구리에서 탄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탈해왕(脫解王)은 왜국(倭國)의 동북쪽에 있는 다파나(多婆那) 왕후(王后)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김씨왕(金氏王)의 시조 알지왕(閼智王)은 계림(鷄林)에 내려온 금궤(金櫃)속에서 나왔다고 한다.

가락국(駕洛國)의 개국시조인 수로왕(首露王)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섯 개의 황금알 가운데 하나에서 태어난 존재로, 그 땅의 구간(九干)에게 봉대(奉戴)되어 국가를 열었으며, 그의 왕비는 바다 건너 왕국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그 밖의 다섯 개 가락국(駕洛國) 왕의 시조는 이 황금알 중 하나씩에서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나라이면서 개국 이래 매우 오랫동안 그 왕통(王統)을 이어오며 개국전설을 비교적 완전하게 후세에 전해주어 마침내 사관(史官)들이 기록할 수 있었던 탐라(耽羅, 제주도)의 전설은 가장 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태초에 한라산(漢拏山)의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는 이름의 혈(穴)에서 세 명의 신인(神人)이 용출(湧出)하였다. 첫째를 양을나(良乙那), 둘째를 고을나(高乙那),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여, 유럽(遊獵)을 하고 피의육식(皮衣肉食)을 하였는데, 하루는 검붉은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해 바닷가로 떠내려 왔다. 그리고 자줏빛 옷에 붉은 띠를 두른 사자(使者) 한 명도 함께 왔다. 나무함을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명과 망아지와 송아지 및 오곡의 종자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일본의 사자(使者)이다. 우리 왕이 이 처녀 세 명을 낳았다. 서해 중악신(西海中岳神)이 아들 3명을 보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었다.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처녀 세 명을 호위해 이곳에 오게 하였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시오.”라고 하였다. 사자(使者)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세 명이 나이에 따라 이들을 아내로 맞아 나라를 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고결한 개국전설은 한종족(韓種族) 고유의 것이며, 또한 제국(諸國)에 이러한 종류의 전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전혀 전해지지 않아 애석하기 그지없다.

제2장 고조선

제1절 조선 반도의 원시 주민(原始住民)

한민족(韓民族)이 조선 반도에 들어오기 이전의 원시 주민(原始住民)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며, 후대까지 전라(全羅) 서쪽 제(諸) 소도(小島)에 살던 주호(州胡)는 어느 정도 잔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조선 반도에서도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유물이 발견되지만, 이를 사용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선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 4세기에 이미 한민족이 조선 반도에 거주한 이후의 일이다. 현재의 조선인(朝鮮人)은 한족(韓族)이 예족(濊族, 좁은 의미)을 융합하여 부여족(扶余族) 일부와 일본족 및 중국족 일부가 섞여 이루어졌지만, 그 대부분은 한민족의 후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하(大河)가 그 밖의 소하소류(小河小流)를 담아낸 것으로 비유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과 일본 민족은 태고(太古)에 한 민족을 이루어 같은 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대이주(大移住)의 결과, 하나는 조선 반도에, 또 하나는 해도(海島)에 정주(定住)하여 그 거주를 달리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 하나는 한민족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 민족이 되어 구별을 낳았으나, 종족(種族)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두 민족이 조선-일본단(朝鮮-日本團: Korea-Japanese group)을 이룬다는 사실에는 동서(東西)의 학자들도 의견이 일치한다. 한·일 상대(上代) 동역론(同域論)은 따르기 어렵지만 두 민족이 동종(同種)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설(異說)을 주장하지 않는다. 조선어와 일본어는 세계 여러 언어 중에서 서로 가장 비슷한 언어이며, 용모나 체질 면에서도 또한 상대(上代)의 토속(土俗) 면에서도 이렇게까지 유사한 종족은 찾아보기 어렵다. 언어가 동일계(同一系)라는 점이 국토의 인접이나 교통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민족이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접촉과 교통을 한 중국·만주 지역의 민족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약 단순히 단어를 비교해 보면 조선어의 대부분은 중국 어이지만, 그 어법(語法)을 보면 일·한 두 언어는 완전히 동일하여 그 단어 역시 두 민족 고유어에 대해 그 변이(變移)를 연구하면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은, 두 민족의 언어는 근저에서부터 동일한 것이어서, 교통의 대세가 단어를 움직이더라도 언어의 근저를 이루는 어법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민족이 태고에 같은 생활을 하였다면 어느 곳에 살았는지, 어떤 이유로 조선 반도 또는 해도(海島)로 이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점이 없다. 남쪽에서 북진한 것인지, 북방에서 남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부여·예맥 등 북방 민족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상대(上代, 중국 전국시대) 극동(極東)의 상황을 고찰하면 요수(遼水, 요하(遼河))·약수(弱水, 송화강(松花江)) 사이에 부여 종족이 거주하였는데, 주변 민족보다 우수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여와 같은 종족인 예맥은 압록강(鴨綠江) 상·중류 유역에서 조선 반도 동부 중앙까지 거주하였으며, 조선 반도 서북 대동강(大同江) 북쪽은 열양(列陽)이라는 한(漢)·한(韓) 두 민족이 혼재하여 살던 땅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남쪽에 예맥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이른바 표조선(表朝鮮)의 땅에는 한민족이 거주하였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섬에는 일본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여·예맥·한(韓)·일본은 민족상 커다란 일단(一團)을 이루지만, 부여·예맥은 다시 말해 통고사족(通古斯族)으로 이른바 만주족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들과 한(韓)·일본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으며 지금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동서(東西)의 인종학자가 인정하는 이설(異說) 없는 인종수표(人種樹表)를 만들어야 한다(킨 씨 300쪽).

제2절 조선 반도의 제(諸) 소국(小國)

기원전 3세기 말에 대동강(大同江) 남쪽의 표조선(表朝鮮) 땅에 있던 한민족(韓民族)은 많은 부락으로 나누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부락의 추장(酋長) 중 강대한 자는 부근의 부락에 세력을 뻗치고 있어 여러 부락을 결속한 국가의 형태를 이룬 자도 있었다. 이들의 결합력은 매우 약하였으므로 이들 나라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지리적 칭호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 중에 가장 오래 전에 성립한 국가는 비교적 발전된 모습이었으며 또한 중국과 인접하여 그 이름이 중국에도 알려져 있었던, 조선으로서 이미 언급한 이른바 기자조선국(箕子朝鮮國)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진번(眞番)과 함께 연(燕)나라의 침략으로 그 속국(屬國)이 되었다가 훗날 진(秦)나라에 복속(服屬)하였다. 조선의 남쪽, 지금의 충청(忠淸)·전라(全羅) 지역에 진번국(眞番國)이 있었으며 이 국가는 한민족이 세운 소국(小國)이었다. 이 국가는 만주 지역에 있던 예맥이 세운 나라라는 설(說)도 있지만, 그 설은 잘못된 설이다.

나아가 경상(慶尙) 지역에는 진국(辰國)이 있었다. 이상은 한민족이 세운 국가이다. 또한 함남(咸南)·강원(江原) 지역에는 임둔국(臨屯國)이 있었으며, 연(燕)나라·제(齊)나

라의 상선(商船)이 이곳의 제국(諸國)을 왕래하면서 그 이익을 취하였다. 그 밖에 한(韓)·예(濊) 중 많은 부락적 소국의 이름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韓國)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하겠다.

제3절 위씨조선(衛氏朝鮮)

조선국(朝鮮國)의 북쪽 열양(列陽) 땅, 다시 말해 대동강(大同江) 지방은 예전에 조선국의 땅으로 한종족(韓種族)의 거주지였으며,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연(燕)나라 세력이 압박해 오면서 중국인·조선인이 혼재하여 거주하는 땅이 되어 연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나, 진대(秦代)에 들어와서 이 지방의 주민을 퇴거시켜 공지(空地)로 만들어 두 민족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秦)·한(漢) 시대에 일어난 대란(大亂)으로 인해 연·제(齊)·조(趙)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피난해 오는 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한(漢)나라는 조선 반도 땅이 멀어 지키기 어려웠던 까닭에 요동(遼東)의 고새(故塞)를 수리하여 패수(溟水, 성천강(成川江)일까?)를 경계로 조선 반도의 일은 한(漢)나라가 봉건(封建)한 연나라에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고조(高祖) 말 연왕(燕王) 노관(盧縮)이 한(漢)나라에 반기를 들고 흉노(匈奴)와 손을 잡자, 연나라 사람 가운데 위만이라는 자가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호복(胡服)을 하고 패수(溟水)를 건너 망명해 와서 살았다. 그런 까닭에 연나라·제나라의 망명자까지도 그를 따라 조선을 습격하여 멸망시키기에 이르렀으며 그 왕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민족(漢民族) 주권의 국가를 세우고 왕검(王儉)에 도움을 청하였다. 왕검은 오늘날의 평양으로 사실 열양(列陽)의 중심지였다. 이때부터 조선은 위만의 왕국이라는 칭호로 바뀌었다. 아마도 열양은 지리적 칭호였던 조선 중에 포함된 곳이었을 것이다.

한(漢)나라는 위만을 외번(外蕃)으로 삼아 새외인(塞外人)을 통해 변방을 지켰던 것이므로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이 나라에 한민족의 이주가 크게 증가하여 조선 민족을 압도하면서 이 나라도 한민족의 나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만은 병위(兵威)와 재물을 마련하여 주변의 소읍(小邑)을 침략하여 진번(眞番)·임둔(臨屯) 등도 위만에 복속하면서 그의 영토를 확장하여 아들에게 전해주었으며 그의 손자인 우거(右渠)의 대에 이르렀다. 우거의 대에 그 영토는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위령(威令)은 멀리 한(漢)·예(濊)의 일부 지역에까지 미쳤다.

위만 이래 한(漢)나라 조정(朝廷)에 입조(入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번이나 그 주변의 진국(辰國) 등이 상서(上書)하여 천자(天子)를 알현하러 가는 길을 막고 통과시키지 않았다. 한(漢)나라에서는 문제(文帝) 때에 이미 조선을 정벌할 것을 상서한 자가 있었으나, 문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영무(英武)한 무제(武帝) 대에 들어서면서 한

나라는 북방에 흉노를 위압(威壓)하고 남쪽으로 남월(南越)·동구(東甌)를 복속시켰으며, 흉노에게 대타격을 가하여 한인만대(漢人萬代)의 안녕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그 주변국인 조선을 정벌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 후 18년을 거치는 동안에 한나라는 서역(西域)을 다스리고 남월(南越)을 평정하자, 조선 경영에 착수하였다. 원봉(元封) 2년에 사자(使者)를 조선에 보내 우거에게 귀복(歸服)을 권하였으나, 우거는 이를 듣지 않았으며 이로써 분쟁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수륙(水陸) 양군을 거느리고 조선 정벌에 나서, 육군은 요동에서 남하하였고 수군은 제(齊, 산둥(山東))에서 발해(渤海)를 건너 열구(列口, 대동강(大同江) 어구)로 들어가 양군이 만나 왕검성(王儉城)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한나라 군대는 시기를 놓쳐 이득이 없었다. 얼마 뒤에 한나라 군대는 왕검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왕인 우거는 성을 견고히 지키면서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일 뒤 한나라가 군대를 합하여 갑자기 왕검성을 공략하자, 조선의 장상(將相) 중에 항복하는 자가 나와 원봉(元封) 3년에 우거를 살해하고 항복해 왔다. 마침내 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하였다. 위씨(衛氏)가 나라를 세운 지 80여 년 만의 일이다.

제2기 한(漢) 영토시대(領土時代)

제1장 한(漢)의 군현(郡縣) 설치

제1절 4군(四郡) 설치와 그 강역

원봉(元封) 3년, 한(漢)나라가 위씨조선(衛氏朝鮮)을 멸망시키기 약 20년 전인 한(漢) 원삭(元朔) 원년 가을에 조선 반도의 동쪽에 있던 예(濊)의 군주 중에 남여(南閻)라는 자가 있었다. 조선왕(朝鮮王) 우거(右渠)를 배신하고 요동군(遼東郡)으로 가 한(漢)나라에 복속하였으며, 무제(武帝)는 즉시 그 땅에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여 교통로 개통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동원하였다가 겨우 1년 만에 도저히 성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원삭(元朔) 3년 봄에 2차년도 공사에 착수해야 할지 중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땅은 아마 함경남도(咸鏡南道)에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는 이때부터 이미 조선 반도에 군현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봉 3년, 조선을 멸망시키자 항복해 온 장상(將相)과 왕자를 한(漢)의 내지로 옮기고 제후(諸侯)로 봉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땅 및 한나라의 위무(威武)에 새로이 복속한 땅에 낙랑(樂浪)·진번(真番)·임둔(臨屯)·현토(玄菟) 등의 4군(四郡)을 설치하고 태수(太守)·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1) 낙랑군 현(縣)¹⁸⁾은 위씨조선의 본지(本地)에 설치하였으며 그 군치(郡治)는 위씨의 고향인 왕검성(王儉城), 즉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 북쪽은 패수(溟水)로 요동(遼東)과의 경계로 삼았으며 지금의 평안(平安, 패수(溟水) 이북(以北)을 제외한다)·황해(黃海)·경기(京畿) 제도(諸道)의 땅을 지배하였다. 이 지방, 다시 말해 열수(列水, 대동강(大同江))·대수(帶水, 한강(漢江))·패수(溟水, 성천강(成川江)) 유역, 특히 하류 유역은 한민족의 이주가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평안·황해 지역은 한민족의 땅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2) 진번군 15현(縣)은 낙랑군 남쪽에 있었다. 지금의 충청(忠淸)·전라북도(全羅北道)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삼현(雪縣)을 다스렸다. 삼협(雪縣)이 어디인지는 불분명하다. 진번 지방에 설치되었으므로 한중족의 거주지였을 것이다.

(3) 임둔군 15현(縣)은 낙랑의 동쪽에 있었다. 일찍이 그 지방에 존재했던 임둔국(臨屯國)의 옛 명칭을 채용하여 이름을 지었다(임둔은 위씨조선의 초기에 멸망하였다). 지금의 강원도(江原道) 북쪽에 설치하여 예종족(濊種族)을 지배하였으며 동시현(東曉縣)을 다스렸다.

(4) 현도군은 지금의 함흥(咸興) 지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옥저(沃沮)·고구려 등을 지배하였다(옥저는 함경 땅에 있던 민족으로 고구려와 비슷하며 넓은 의미에서 예맥에 포함된다).

4군이 설치된 지역은 지금의 전라남도(全羅南道)·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 및 함경북도(咸鏡北道)를 제외한 조선 반도와 압록강 중·하류 지역으로 보인다.

제2절 한(漢)나라 소제(昭帝)의 개혁

한(漢)나라는 무제(武帝)가 조선 반도에 4군(四郡)을 설치한 뒤 25년이 지나 소제(昭帝)의 시원(始元) 5년에 이르러 남쪽과 동쪽 경계 지역의 경영에 개혁을 단행하여, 남쪽에 담이군(儋耳郡)을 폐지함과 동시에 조선 반도에서는 진번(真番)·임둔(臨屯) 등 두 군(郡)을 폐지하고 이 두 군의 땅의 대부분을 방기하여 토인(土人)의 자치에 맡겼으며 그 나머지 부(部)와 현도군의 영토 일부를 낙랑군에 병합시키고 현도군을 요동(遼東) 동쪽으로 옮겼다. 조선 반도에 사군(四郡)이 병존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25년 동안이었으며 이후에는 현토가 그 이름만을 남기고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조선 반도에서 사라져, 조선 반도에 남은 것은 낙랑군뿐이었다.

다만, 이 개혁은 한나라의 군현(郡縣)이 그들의 통치에 반항하며 압박을 가해 오는 한(韓)·예맥(濊貊)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결과로, 군현 유지의 난이(難易)는 조선 반도에

18) 원문에 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거주하는 한민족의 많고 적음과 그 문화의 보급량에 비례하여, 한민족이 적게 거주한 곳이나 그 문화의 보급이 적었던 지역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낙랑군은 한민족의 군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개혁을 통해 남쪽에 진번의 몇몇 현(縣)을 병합하였고 동쪽에 임둔·현토의 몇몇 현을 병합하여 25개의 현이 되었다.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동쪽으로는 지금의 강원·함남 지역에 7개의 현을 얻어 일본해에 이르렀는데, 그 변경에는 경비를 중시하였고 남부에 남부도위(南部都尉)를 두어 몇몇 현을 분할 통치하였으며, 동쪽에는 동부도위(東部都尉)를 두어 대령(大嶺, 지금의 평안·함남 사이의 고개) 이동(以東)의 7개 현을 분할 통치하였다.

제3절 낙랑(樂浪)의 융성(隆盛)

전한시대(前漢時代), 낙랑군(樂浪郡) 25개 현(縣)의 지역에는 호(戶)가 6만 2천 8백 12채, 구(口)가 40만 6천 7백 4십 8명이 있었다고 한다.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이 살기 좋았으며 본국 중국과의 교통은 요동(遼東)을 경유하는 육로 외에 편리한 해로도 있었다. 산둥(山東)을 출발한 배는 열구(列口, 대동강 어구)로 왕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였으므로 한(漢)나라의 완전한 한 지방이었고, 조선 반도의 한(韓)·예(濊) 등의 제국까지 통괄하여 평화로운 한나라의 군현이었다.

그러나 기원후 1세기 초, 한(漢)나라에서는 왕망(王莽)의 찬탈로 인해 천하에 대란(大亂)이 일어났는데, 낙랑 지방 이복도 이 영향을 받아 건무(建武) 원년 토호(土豪)인 왕조(王調)라는 자가 군태수(郡太守)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장군 낙랑태수라고 칭한 지 6년이 되었는데, 건무 6년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는 왕준(王遵)을 태수로 임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이를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왕준이 요동에 이르자 낙랑의 관민은 왕조를 죽이고 새로운 태수 왕준을 맞이하여, 낙랑은 즉시 평정을 찾았으며 후한(後漢)의 군현이 될 수 있었다. 광무제가 일반 변군(邊郡)의 도위(都尉)를 폐지하자 낙랑도 동부도위(東部都尉)에 속하게 되었으며, 7개 현은 방기하여 그 제현(諸縣)의 예(濊)·옥저(沃沮) 종족의 거수(渠帥)에게 현후(縣侯)의 명호(名號)를 주어 그 지역의 자치를 맡겼다. 이리하여 옥저·예 민족의 7현은 낙랑에서 벗어나 낙랑은 18개 현이 되었다(이 무렵 탄열현(呑列縣)을 폐지하고 낙도현(樂都縣)을 설치하였다). 낙랑의 평화와 융성은 계속되었으나, 2세기 말, 환제(桓帝)·영제(靈帝) 때에 들어서서 본국의 세력이 쇠퇴함과 더불어 낙랑의 위력도 쇠퇴하자, 남쪽에서는 한민족이 침범해 왔다. 동쪽과 북쪽에서는 고구려·예 등의 세력이 강대해져 고구려가 요동군(遼東郡)의 압록강(마자수(馬訾水)) 유역을 침범하여 강 어구의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하였으며, 도중에 대방현령(帶方縣令)을 죽이고 낙랑태수(樂浪太守)의 처자를 약탈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요동을 경유하는 본국과의 교

통로도 빼앗기기에 이르렀지만 한나라 군현의 힘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낙랑의 백성들은 대부분 한국(韓國)으로 유입되었다. 한제국(漢帝國)의 정치가 문란해짐과 동시에 낙랑도 쇠퇴하고 문란해져, 낙랑인들 중에는 가족과 종자(從者)를 이끌고 한나라의 내지(內地)로 유랑하는 자까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낙랑군 쇠퇴의 결과, 둔유현(屯有縣, 아마 지금의 황주(黃州) 부근) 이남(以南)은 황폐해져 빈터만 남았다. 이 당시에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지방에서 일본해 연안으로 나와 동해안을 따라 함경(咸鏡) 지역의 옥저와 강원(江原) 지역의 예(溟)를 거느림으로써 4군 병존시대(併存時代)의 현토·임둔 두 군이 완전히 고구려에 종속되기에 이르렀다.

제4절¹⁹⁾ 대방군(帶方郡)의 신설

한(漢)나라의 낙랑군(樂浪郡)이 한민족(韓民族) 고구려가 강대해지자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새로이 요동(遼東)에 할거하던 공손씨(公孫氏)가 그 경영에 착수하면서 이로써 형세가 크게 변하였다. 한(漢) 헌제(獻帝) 초평(初平) 원년, 한(漢)나라의 요동군 태수(遼東郡太守) 공손탁(公孫度)은 요동에서 자립하여 그 아들 강(康)을 거쳐 손자인 공손연(公孫淵)에 이르기까지 3대 50년간 이 지역에서 할거하여 매우 강성해졌으므로, 고구려도 서진(西進)의 세가 꺾여 오히려 일본 해안의 옥저·예 종족 지역에 세력을 뻗었음은 앞에서 기술한 대로이다. 그러나 공손강(公孫康 : 207~220년)은 낙랑 경영에도 주목하여 건안(建安 : 196~220년) 당시 낙랑의 둔유현(屯有縣) 이남의 황무지에 대방군(帶方郡)을 신설(新設)하고 장사(將士)를 파견하여 유민(遺民)을 모으고 군사를 일으켜 한(韓)·예(溟)를 정벌하게 하자 옛 백성이 조금씩 나타났다. 대방군의 신설은 조선 반도에서의 한인(漢人)의 세력을 다소나마 회복해주는 듯하였다. 대방군은 낙랑군의 대방현을 다스렸으며 이 현은 대수(帶水) 다시 말해 지금의 한강(漢江) 하류 지역에 있었다.

이후 일본인·한인(韓人)에 관한 사건은 대방군과 관련을 갖게 되었다. 조선 반도의 한인을 지배하고 한·예를 제압하던 이 공손씨도 위(魏)나라의 경초(景初) 2년(298년)에 조위(曹魏)에게 멸망되었다. 이 해 아니면 전년(前年)에 위나라의 명제(明帝)가 비밀리에 낙랑·대방 등 두 군의 태수를 임명하여 요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두 군을 평정하자, 두 군은 위의 군현이 되었다. 위나라의 위세는 한민족에게도 미쳐 멀리 일본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렸다.

그러나, 북방의 고구려가 점차 세력을 갈고 닦아 창궐(猖獗)하여 위나라의 군현을 침범하자 위나라는 정시(正始) 5년(244년)과 6년(245년)에 명장(名將) 관구검(毌丘儉, 관음모(毌音慕))에게 명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토벌하게 하였다. 이 당시 낙랑·대방의 두 태

19) 원문에는 제3절로 되어있어 오기로 보인다.

수도 이에 상응하여 대령(大嶺) 이동(以東)의 예(濊) 가운데 고구려에 복속한 자를 정벌하여 무위를 떨쳤다.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대방군이 신설된 이후 한인과 교통하면서 그 지배의 이익은 대방군에게 돌아갔다. 본래 한인을 통치하던 낙랑군은 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진한(辰韓) 가운데 8개국을 할양하여 그 교통 지배를 낙랑에게 주었는데 언어불통이라는 점을 틈타 통역 관리가 사익을 탐하는 일이 발생하여 한민족(韓民族) 주장(主長)이 격노하였다. 한인은 분노하여 대방군 기리영(岐離營)을 공격하였다. 대방·낙랑의 두 태수는 병사를 일으켜 이를 정벌하러 나섰으나 대방 태수가 전사하여, 두 군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위나라는 이듬해 정시(正始) 8년에 전년의 고구려 토벌 때에 그 국왕을 말을 달려 추격해 무명(武名)을 떨친 왕기(王頎)를 대방 태수에 임명하여 그 질서를 회복하게 하였다. 위나라는 한때 조선 반도에서 위세를 떨쳤다.

제5절²⁰⁾ 낙랑(樂浪)·대방(帶方)의 쇠퇴(衰滅)

위(魏)나라 말, 진(晉)나라 초 무렵(3세기 후반)에 낙랑군(樂浪郡)은 고구려의 침탈을 심하게 받아 대동강 북쪽의 대부분을 잃고 불과 6개 현을 보유하고 군치(君治)도 옛 왕검성(王儉城)을 떠나 조선현(朝鮮縣)과 함께 대동강의 남쪽 연안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방은 7개 현을 다스리고 있었으나 그 중 6개 현은 한대(漢代)의 낙랑의 영현(領縣)이었다. 이 무렵에 대방군 남쪽에 인접한 한중족(韓種族) 중에 백제국이 새로이 발흥하여 대방을 침탈하면서 두 군의 영토가 날로 침식하여, 그 이름은 진(晉)나라의 군현(郡縣)이었으나 실제로는 토호(土豪)의 나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3~4세기 무렵 백제는 마침내 도읍을 한산(漢山, 광주(廣州))에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대방군의 통치 지역도 옛 대방현의 땅을 떠나 평안도 남부로 옮겨가 낙랑과 합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써 낙랑의 이름은 소멸하였고 대방의 이름만이 남게 되었다. 이리하여 잔존하던 두 군(郡)의 기념물은 남진(南進)을 향한 기세에 불타오르는 고구려로 인해 즉시 병합되지 않았는데, 당시(4세기 초) 요동(遼東)에 모용씨(慕容氏)가 흥기(興起)해 고구려를 압박하여 고구려의 남진 기세를 제어하고 있어 잔존할 수 있었다. 당시 대방·낙랑의 잔민(殘民)은 대동강(大同江) 남쪽(아마 봉산(鳳山) 부근) 지방에 요동의 장통(張統)이라는 자를 수령(首領)으로 반(半)독립국을 세웠으며, 장통은 대방태수(帶方太守)라고 칭하며, 고구려의 미천왕(美川王)과 계속 교전(交戰)하였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였다. 건흥(建興) 원년(313년) 그 땅을 버리고 그 백성 천여 가(家)를 이끌고 모용씨에게 귀속하여 요동으로 이주하였다. 이 후, 지리적 호칭으로서 낙랑·대방이

20) 원문에는 제4절로 오기되었다.

라는 이름은 조선 반도에 남았고, 요동에는 두 군의 교치(僑治)가 있어 정치적 호칭은 남았으나 조선 반도에서 한(漢)나라 군현(郡縣)이라는 그림자는 이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실로 4군(四郡)을 설치한 지 422년이 흐른 뒤였다. 이 당시에는 남쪽에서의 한종족의 제(諸) 소국(小國)의 상황도 크게 변하고 있었다.

제3장 조선반도에서의 한인(漢人)의 문화 및 사회 상황

제1절 낙랑(樂浪)·대방(帶方)의 문화

낙랑·대방은 조선 반도에 있던 한민족(漢民族)의 군현(郡縣)으로, 그 문화는 완전히 한민족의 문화였다. 본국과의 교통은 이미 기술하였듯이, 요동(遼東)을 경유하는 육로 외에 산둥(山東) 지역과의 해상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대동강 어구에는 그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고 남쪽의 오(吳)·월염(越諠) 지역의 상선(商船)까지 왕래하게 되어, 교통이 불편하던 변군(邊郡)과는 많이 달라 문화면에서 본국의 문화에 전혀 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는 하였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본국과 직접 영토를 접하지 않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본국에서 일어난 요란(擾亂)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다소 별천지같기도 하여, 오히려 중국 문물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 사람들을 살펴보면 후한대(後漢代)에 적어도 역(易)을 배우고 널리 중서(衆書)를 보았으며 또한 천문 기술을 좋아하였다고 하며, 훗날 관직에 나아가 치수(治水)에 큰 공을 세운 왕경(王景)은 낙랑군 염한현(諫邯縣) 사람으로, 군(郡)의 삼로(三老)인 왕굉(王閎)의 아들이다. 한(漢)나라 동시현령(東曉縣令, 임둔의 치현(治縣) 나중에 낙랑으로 들어가다)인 연년(延年)은 부(賦) 7편(篇)을 저술하였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 등과 문명(文名)을 나란히 한 최인(崔駰)은 차기장군(車騎將軍) 두헌(竇憲)의 눈 밖에 나서 낙랑 장잠현(長岑縣)의 장(長)으로 가야 했다. 최인은 관(官)에 이르지 않고 돌아왔으나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의외로 문사(文士)들이 이 지역으로 가게 되어 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진(晉)나라의 장잠현령(長岑縣令)인 화기(華萼)는 영화(永和) 9년에 왕희지란정수계(王羲之蘭亭修稷)에 들어간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또한 낙랑설령(樂浪掾令)으로 불리는 낙랑군에서 널빤지에 새긴 제령(制令)은 유명한 것이라고 한다.

낙랑·대방인의 분묘(墳墓)는 대동강 남쪽에서 황주(黃州) 방면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벽돌로 궁륭(穹窿) 모양에 광(壙)을 축조하였으며, 그 유물로는 부유한 자의 분묘에서는 옥기(玉器)·동기(銅器)·철기(鐵器)·칠기(漆器)·토기(土器) 등이 나왔고, 가난한 자의 분묘에서도 동경(銅鏡)·철제 무기·토기 등이 나왔다. 이 유물들은 공예(工藝)의 정교

함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짐작하게 하며, 그 벽돌에는 가끔 명기(銘記)된 문자가 있기도 하다. 낙랑·대방의 문물은 결코 중국의 변방에 있는 군(郡)이라고 하여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낙랑의 유물인 금석(金石)에는 유명한 점선비(粘蟬碑)가 있다. 이 점선비는 후한 말에 점선현(粘蟬縣)이 신선(神仙) 평산군(平山君)에게 제를 올려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던 때의 비(碑)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제2절 낙랑(樂浪)·대방(帶方)의 사회 상황

조선의 낙랑은 본국인보다는 기자의 화평질박(和平質朴)을 하나의 이상국으로 보았다. 그 군민(群民)은 한인(漢人) 및 한인화(漢人化)된 한종족(韓種族)이었지만, 하층민의 토속(土俗)은 본국과 다소 변이(變移)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군(郡)에서 교통·무역의 이권(利權)을 지배하는 번국(番國, 진번(眞番) 지방) 야두미국(耶頭味國, 강원(江原)·함경(咸鏡) 지방)의 많은 해산물이 본국에 이 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진 점을 보아도, 이 군(郡)의 어염(魚鹽)에서 나오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었다. 그 밖에 한(韓, 진한(辰韓) 지방)의 철(鐵)도 이 군(郡)을 거쳐 본국에 들어갔던 것이다. 한(漢)나라의 공예품은 한(韓)·예(濊) 및 멀리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수입되어 그 이익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문화는 본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본국의 측면에서 새로이 개척한 변군(邊郡)이어서 후미진 곳에 있는 땅이라는 점은 면할 수 없는 곳이지만 거대한 부(富)를 가지고 있었으며, 게다가 이민족과 교섭도 하고 있어 토호(土豪)의 세력도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주민이어서 문지(門地)를 본국의 고명문(古名門)이나 고명족(古名族)에 붙여 정하여 과장된 호칭을 사용하며 소민(小民)을 이끌고 많은 노비를 거느렸으며, 각지에 근거지를 마련해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낙랑·대방의 쇠망기에 들어서자, 본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크게 집안을 일으키는 자도 있었다. 후위(後魏)의 문명 황후(文明皇后) 풍씨(馮氏)의 어머니는 낙랑의 왕씨(王氏)였고, 후주(後周)의 명덕 황후(明德皇后) 또한 낙랑의 왕씨였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낙랑과 대방 두 군이 쇠망하자 그 토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소민(小民)과 노비들을 데리고 조선 반도 각지로 흩어지거나 멀리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향유하던 문화를 전파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상대(上代)에 일본으로 온 한인(漢人) 대부분은 두 군(郡) 출신의 한인으로, 백제·신라·고구려, 특히 백제·신라에서 문예를 담당하여 박사(博士)·색인(色人)의 대부분은 같은 두 군의 한인 또는 그 후예였을 것이다.

제4장 한중족(韓種族)의 제국(諸國)

제1절 마한(馬韓)

한4군(漢四郡) 설치 당시에는, 이미 기술하였듯이 한중족(韓種族)이 주로 지금의 경기(京畿) 남쪽 충청(忠淸)·전라(全羅) 지방에 있어서 많은 부락적 소국(部落的小國)을 형성하였는데, 그 중 경기·충청 지방에는 진번국(眞番國)을 설치하여 한(漢)나라의 통치를 받게 한 이후 20여 년이 지나 이 군(郡)을 폐지하게 되면서 그 구속에서 벗어났다(본래 한나라의 낙랑군 안에도 본디 조선국인(朝鮮國人) 계통에 속하는 한중족(韓種族)인 자가 있었다는 것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중국화한 자들로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한중족(韓種族)은 토속(土俗) 면에서 마한(馬韓)·변한(弁韓)·진한(辰韓)의 세 종으로 나누어졌다. 다만 이와 같은 구별은 전한(前漢) 무렵에 이미 존재하였다.

마한(馬韓)은 충청·전라 지방에 있었다. 진번국을 형성한 것은 이들의 북방에 있던 존재였을 것이다. 예전에 조선국을 건국하여 살던 것도 이들이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종족이었을 것이다. 3세기 초 무렵에 대략 50여 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삼국위지(三國魏志)』에 대국(大國)은 만여 가(家), 소국(小國)은 수천 가(家), 총 10여 만 호(戶)라고 한다. 총수(總數)로 보면 일국(一國) 평균 2천여 호(戶)가 되어야 하는데, 소국이 수천 가(家)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50여 국을 들어보면,

- (1) 원리국(爰婁國) (2) 모수국(牟水國) (3) 상외국(桑外國) (4) 소석색국(小石索國) (5) 대석색국(大石索國) (6) 우휴모국(優休牟國) (7) 신분고국(臣濱沽國) (8) 백제국(伯濟國) (9)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10) 일화국(日華國) (11) 고탄자국(古誕者國) (12) 고리국(古離國)²¹⁾ (14) 월화국(月華國) (15) 노람국(怒藍國) (16) 월지국(月支國) (17)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18) 소위건국(素謂乾國) (19) 고원국(古爰國) (20) 막로국(莫盧國) (21) 비리국(卑離國) (22) 점리비국(占離卑國, 또는 점비리(占卑離)의 오류일지도) (23) 신훈국(臣鬲國) (24) 문침국(文侵國) (25) 구로국(狗盧國) (26) 비미국(卑彌國) (27)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28) 고포국(古蒲國) (29) 치리국(致利鞠國) (30) 염로국(冉路國) (31) 아림국(兒林國) (32) 사로국(駟盧國) (33) 내비리국(內卑離國) (34) 감해국(感奚國) (35) 만로국(萬盧國) (36) 벽비리국(辟卑離國) (37) 구사오차국(臼斯烏且國) (38) 일리국(一離國) (39) 불미지국(不彌支國) (40) 반구국(半狗國) (41) 소첩로국(素捷盧國) (42)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43) 신소도국(臣蘇塗國) (44) 막로국(莫盧國, 또 나왔지만 위지(魏志)에 실려 있는 대로 기술한다) (45) 고납국(古臘國) (46) 임소반국(臨素半國) (47) 신운신국(臣雲新國) (48) 여

21) 원문에 (13)이 없다.

래비리국(如來卑離國) (49)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50) 일난국(一難國) (51) 구해국(狗奚國) (52) 불운국(不雲國) (53) 불사분사국(不斯濱邪國) (54) 원지국(爰池國) (55) 건마국(乾馬國) (56) 초리국(楚離國)

등이다. 이들 제국 대부분은 그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그 중에 백제시대까지 그 명칭이 남아 있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곳도 있다. 그 위치가 정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곳은 지침국(支侵國)으로 충청도 당진(唐津) 지역이었다는 점, 아림국(兒林國)의 경우 전라 능성(陵城) 지역이었다는 점, 벽비리국(辟卑離國)의 경우 같은 전라의 김제(金提) 지역이었다는 점, 건마국(乾馬國)은 마찬가지로 전라의 익산(益山) 지역이었다는 점 등으로 이 밖에 고찰하여 위치를 산정해야 할 곳이 적지 않다. 백제국(百濟國)은 충청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백제(百濟)라는 국명(國名)의 유래가 되었다. 월지국(月支國)은 목지국(目支國)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이들 제국은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지금의 두 군(郡)의 땅에 상당하는 규모에 지나지 않은 부락(部落)적 단체로, 국가의 체재를 완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성곽(城郭)이 없는 읍락잡거(邑落雜居)의 형태로, 국읍(國邑)에 주수(主帥)는 있었지만 제대로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그 장수(長帥)의 우두머리를 신지(臣智, 질지(叱智), 주지(朱智) 등 여러 가지 글자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리한 자를 읍차(邑借)라고 불렀다. 한(漢)나라 때에 낙랑군(樂浪郡)에 속하여 항상 조알(朝謁)을 하였는데, 한나라는 이들 제(諸) 신지에게 읍군(邑君)·읍장(邑長)이라는 관명(官名)을 주었고 인수(印綬)를 내렸으며, 위(魏)나라 때에 솔선(率善)·읍군(邑君)·귀의후(歸義侯)·중랑장(中郎將)·도위(都尉)·백(伯)·장(長)·후(侯)의 관호(官號)를 주었다. 이 관호를 얻어 순화(順和)된 자는 군(郡)에 공납(貢納)을 거두어 바쳤으며 그에 상당하는 것 이상의 대물(代物)을 얻어 이득이 많았다. 한(漢)나라는 이들 신지가 한나라에 순화하는 대가로 재물, 재화를 주었던 것이다. 후한(後漢) 후기(2세기 말)에 들어서서 한종족(韓種族)은 예종족(濊種族)과 더불어 강성해지면서 한나라 군현제의 통제를 받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들 군현의 백성들이 유랑하여 한국(韓國)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아, 낙랑 남부는 황폐해져 갔는데 공손씨(公孫氏)가 이 지역에 대방군(帶方郡)을 설치하고 병사를 일으켜 한(韓)·예(濊)를 정벌한 이후 한인(韓人)은 다시 그 통제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앞 장에서 기술하였듯이, 정시연간(正始年間) 무렵에는 한인이 봉기하여 대방군 기리영(岐離營)을 공격하여 두 군(郡)의 태수(太守)와 전투를 벌여 대방 태수가 전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한나라의 군현과 교섭에 나선 곳은 주로 이 땅과 직접 접해 있는 마한인(馬韓人)으로, 마한은 다른 두 한(韓)보다 강대하여 그들 위에 군림하였다.

그 후 마한은 다른 두 한과 함께 흥기(興起)하여 발전하는데, 그 북쪽 변방에서 부여

종족(扶余種族)인 자가 군장(君長)으로 나서서 백제국이 갑자기 발흥하자 형세는 크게 변하여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마한의 풍속은 『위지(魏志)』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위지』에 따르면,

그 백성은 토착민으로 잠상(蠶桑)을 잘 하며 면포(綿布)를 짜며 성곽(城郭)이 없는 주거는 초옥(草屋)을 엮어 무덤형태의 토실(土室)을 위에 얹었고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았다(원문에 '居處作草屋土室形如冢云云' 이라고 나와 있어서, 초옥인 토실에 살았다는 것인데, 초옥 외에 토실이 있는 것은 지금도 조선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남녀 노소의 구별이 없다. 장례식에는 관(棺)을 사용하고 곽(槨)이 없었으며 우마(牛馬)에 신는 풍속이 없었다. 우마는 죽음을 보내는 것으로 끝났다. 영주(瓔珠)를 재보(財寶)로 삼아, 옷에 달아 장식하거나, 목걸이로 걸고 귀걸이로 달았다. 금은금수(金銀錦繡)를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마한인은 강하고 용감하였으며 두발은 둘러싸서 과결(科結)을 만들었으며 포포(布袍)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 운운(云云)

5월에 파종을 마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사람들이 모여 가무(歌舞)와 음식을 먹으며 밤새워 즐겨 잠을 자지 않았다. 그들의 춤은 수 십 명이 함께 일어나 서로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손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서로 응대하였다. 10월에 수확을 마치면 다시 5월처럼 즐겼다. 귀신을 믿었으며 각 국읍(國邑)마다 천신(天神)을 주제(主祭)하는 자 한 사람을 세워 천군(天君)이라고 불렀다. 또한 제국(諸國)에 각각 별읍(別邑)이 있어 이를 소도(蘇塗)라고 불렀으며 큰 나무를 세워 영고(鈴鼓)를 달아 귀신을 달랬다. 망명자가 이곳으로 들어오면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운운(云云)

북방에 있어서 한(漢)나라의 군(郡)과 가까운 제국(諸國)은 차례속(差禮俗)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수나 노비처럼 때로 문신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2절 진한(辰韓) · 변한(弁韓)

진한(辰韓)은 마한(馬韓) 동쪽에 있었으며, 『위지(魏志)』에 변한(弁韓)과 잡거(雜居)하였다고 나와 있다. 진한과 변한은 견고한 단체는 아니어서 국가가 서로 혼재해 있었다. 그 국가의 경계가 뒤섞여 있어 각국의 위치가 혼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진한과 변한이 경상도(慶尙道)에 있었고 진한이 동쪽에 변한이 서쪽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한은 처음에 6국(六國)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다시 나뉘어져 12국이 되었다. 변한도 12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진한과 변한을 합쳐 24국이었으며, 또한 제(諸)소별읍(小別邑)도 있었다. 각 국에 거수(渠帥)가 있었으며 그 중 우두머리를 신지(臣智)라고 부른 것은 마한과 마찬가지로이다. 『위지(魏志)』에 따르면,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자를

검측(儉側),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자를 살해(殺奚), 그 다음을 읍차(邑借)라고 불렀다. 또한 이들의 주장(主長)은 일반적으로 한기(旱岐)라는 존칭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韓)은 원주민과의 혼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국(大國)은 4~5천 가(家), 소국(小國)은 6~7백 가(家)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조선 시대(李氏朝鮮時代) 경상도에 약 70여 군현(郡縣)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 제국(諸國)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한은 기노(耆老)가 대대로 전해 주는 말이 있어 “예전에 7인이 진(秦)나라의 분쟁을 피해 한국(韓國)으로 도망해 왔는데 마한이 이들에게 동쪽 경계에 위치한 땅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진(辰)과 진(秦)의 발음이 같고 한 집안에서 한 말에 불과하여 이 설(說)을 채택하기에 부족함이 많다. 더욱이 한인(漢人) 망명자·피략자(被掠者)의 피가 다소 섞이는 것은 마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언어도 두세 단어가 우연히 진인(秦人)의 언어와 비슷하다는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택할 수 없는 설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진한의 12국은 『위지(魏志)』에,

- (1) 기기국(己祗國) (2) 불사국(不斯國) (3) 근기국(勤耆國) (4) 난미이미동국(難彌離彌凍國) (5) 염해국(冉奚國) (6) 군미국(軍彌國) (7) 여담국(如湛國) (8) 호로국(戶路國) (9) 주신국(州鮮國) (10) 마연국(馬延國) (11) 사로국(斯盧國) (12) 우중국(優中國)

으로 나와 있으며, 신라 왕국은 이 중 사로국(斯盧國)에서 발흥한 국가이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 및 벼농사가 잘 되며, 잠상(蠶桑)을 하고 겹포(縑布)를 짜며 우마(牛馬)를 타며 가취(嫁娶)의 예(禮)가 있으며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로 죽음을 보냈는데 그 의미를 죽은 자가 하늘로 날아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철(鐵)이 나와 한인(韓人)·일본인 모두 이를 취하여 제시(諸市)의 매매에서 철(鐵)을 이용한 것은 중국인이 철을 이용하는 모습과 같았다. 또한 이를 낙랑·대방 두 군(郡)에 공급하였다고 한다. 진한의 풍속은 음주가무(飲酒歌舞)를 즐겼으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머리에 돌을 얹어 이를 눌러 평평하게 하려고 하였다. 진한의 남녀는 일본인과 비슷하며 또한 문신을 새겼으며 보전(步戰)을 자주 활용하였으며 마한과 풍속이 같았다. 병장(兵仗)도 마한과 같았다.

변한(弁韓)에는 성곽(城郭)이 있었다. 의복이나 거처는 진한과 같았으며 언어·법·풍속이 서로 비슷하였으며, 귀신을 모시는 데에 차이가 있었다. 변한 역시 12국이 있었고 또한 왕이 있었다. 변한 사람들은 모두 체형이 컸으며 의복은 청결하고 장발을 하였다. 폭이 넓은 세포(細布)를 만들었다. 법·풍속은 특히 엄격하였다고 한다. 변한의 12국은,

- (1)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 (2) 접도국(接塗國) (3)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4) 고순시국(古淳是國) (5) 반로국(半路國) (6) 미오사마국(彌烏邪馬國) (7) 감로국(甘路國) (8) 구사국(狗邪國) (9) 주조마국(走漕馬國) (10) 안사국(安邪國) (11) 독로국(瀆盧國) (12) 낙노국(樂奴國)

등으로(『위지(魏志)』에는 진한 12국, 변한 12국 합쳐서 24국이라고 기재하면서 26국의 이름을 실었다. 단, 마연국이 두 번 기재된 것을 제외하면 25국이다. 앞에서 기술한 진한 12국, 변한 12국 외에 변군미국(弁軍彌國)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군비국이라는 나라도 진한에 있었다. 지금 이를 제외하고 변한의 12국 이름을 열거하였다. 구사국(狗邪國)은 가야(伽倻)로, 지금의 김해(金海) 지역에 있었으며, 안사국(安邪國)은 안라(安羅)로, 함안(咸安) 지역에 있었다. 국사(國史)에 나오는 임나(任那), 반도사에 나오는 가라(加羅)는 대체로 이곳 변한의 제국(諸國)에서 나온 나라들이다.

앞에서 서술한 삼한의 제국에는 각각 왕이 있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력한 왕 한기(旱岐)는 그 부근의 소왕(小王) 한기를 규합하여 대왕이 되었을 것이다. 각 삼한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체를 이루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토속(土俗)이 같고, 아마 개국신화도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 그동안에 자종자족(自種自族)이라는 생각도 약간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위략(魏略)』에 왕망(王莽)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을 때, 염사치(廉斯鑿)가 진한의 우거수(右渠帥)가 되었다면 진한이 정치상 하나의 개체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漢)·위(魏) 시대에 진한 12국은 진왕(辰王)의 통치 아래에 있던 것이다. 마한의 월지국(月支國, 目支라고도 한다) 왕이 진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진한은 한나라 초 진국(辰國)의 뒤를 이었으므로 진국이 이미 해체되었지만 그 이름이 여전히 남아 진왕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변한을 변진(弁辰)이라고 표현하면 진한과 제국이 더불어 같은 진국을 형성한 것이 되므로 자종(自種)인 진왕을 잃고 마한종(馬韓種)인 진왕의 통치를 받지 않은 제국이었던 것인지, 진한·변한이 잡거(雜居)하였다는 것은 마한종 진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와 받지 않는 나라를 구별하는 데 지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한편, 마한 제국 중의 신지(臣智, 월지국(月支國)의 신지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는 우호신운견지보안사축지분신리아불예구사진지염(優呼臣雲遣支報安邪蹶支瀆離兒不例狗邪秦支廉)의 호(號)를 받았다는 내용이 『위지(魏志)』에 나와 있다. 이 말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신운(臣雲)은 마한의 한 국명(國名)이고, 안사(安邪)와 구사(狗邪)는 진한에 있는 국명(國名)이다. 그렇다면 마한의 대신지(大臣智) 중에 이들 제국에 세력을 뻗어 거대한 국가의 출현을 보여주는 형세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삼한의 종족은 지금의 조선 민족을 형성한 주체이다. 그렇다면 삼한이라는 칭호는

결국 조선 반도의 지리적 칭호인 것이다. 이곳의 국인(國人)은 오랫동안 이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 말은 특수한 용어로서 마한·진한·변한 등 세 개의 한국(韓國)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선 민족의 국가라는 뜻이다.

제3절 일본과 삼한의 관계

삼한 민족과 당시 중국인이 왜(倭)라고 부른 일본 민족은 동일 종족에서 갈라진 종족에 지나지 않아, 예부터 도항(渡航)하기 어려운 대해(大海)가 가로놓여 있어도 이에 상관 없이 빈번하게 교통하고 왕래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앞의 절에서 자세히 기술한 마한인(馬韓人)의 습속은 일본과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위지(魏志)』에 따르면, 이미 기술하였듯이, 진한의 남녀는 왜와 비슷하였고, 변한의 독로국(瀆盧國)은 왜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고 한다. 독로국은 구체적으로 탁순(卓淳)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지금의 창원(昌原)·웅천(熊川) 지방에 있던 나라이다. 이 나라의 남쪽에 왜인이 거주한 나라가 있었다는 점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기사는 이 나라의 남쪽에 왜국(倭國)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치 왜국이 육지에 있는 것처럼 잘못 기술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는 서로 오해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조선 양쪽의 고분(古墳) 유물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종족(韓種族)이 거주한 남부 조선의 유물은 북부 조선의 유물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으로, 일본열도에서 발견된 유물과 완전히 동일한 종류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러한 경우에 부여 계통인 백제왕의 고분이 한종(韓種)의 땅에 있어 한종과 달리 북방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은 특히 민족의 이동(異同)을 고찰하는 데에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 반도에서 이러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되면 일본과 한(韓)과의 토속이 동일하다는 점은 더욱 분명하게 증명될 것이다). 쓰시마(對馬)·잇키(一歧), 두 섬의 주민(倭人)은 당시 배를 타고 남북으로 시장을 열어,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진한(辰韓) 지방의 철(鐵)을 일본인 역시 취하였던 것이다. 신라의 옛 전설에 호공(瓠公)·석탈해(昔脫解) 등 고사가 있다. 일본에도 아마노히보코(天日槍)·소나카시치(蘇那曷叱智) 등의 고사가 있다. 이들은 일본 조정(朝廷)이나 신라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진 데 지나지 않는다. 그 밖의 지방에 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나라의 사적(史籍)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제4절 예(濊)

조선 반도에 살던 예종족(濊種族)은 이후 신라인과 혼혈을 이룬 경우가 가장 많았으

므로 특별히 기술해 두고자 한다.

예(濊)는 맥(貊)이라는 말과 같으며 중국인이 만주 지방에서 조선의 동부에 걸쳐 거주하는 종족에게 붙인 이름으로, 부여·고구려 등 이 모두 이에 속한다. 예는 맥 가운데 하나처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용어는 혼동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다만, 본 절에서 예라고 말하는 것은 낙랑·대방이 지배하던 당시의 조선 동쪽에 살던 종족으로, 『위지(魏志)』가 고구려·부여 등의 국가 성립과 구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따로 「예전(濊傳)」을 구성한 예종족(濊種族)을 말한다.

조선 반도에서 예는 지금의 대령(大嶺) 동쪽에 위치하여 강원도에 있었다. 남쪽은 진한(辰韓)과 접하였고 북쪽은 같은 종족인 고구려·옥저와 접하고 있었다. 위씨조선(衛氏朝鮮)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漢)나라에 복속하여 창해군(蒼海郡)이 설치되었는데 한때 폐지되었다가 무제(武帝) 때에 임둔군(臨屯郡)을 이 지방에 설치하였지만, 소제(昭帝)가 이 군을 폐지하였을 때, 그 북쪽 변방의 제현(諸縣)과 옥저의 함경남도 남쪽 변방에 있던 제현이 병합되어 7현(七縣)이 낙랑군에 편입되었다. 낙랑군의 동부도위(東部都尉) 지배하에 들어갔으나 광무제(光武帝) 때에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토인들의 자치에 맡겼다. 한나라 말,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위대(魏代)에 그 일부가 낙랑에 다시 복속되었으나 일시적인 일이었으며, 이후 오랫동안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한종족(韓種族)과의 사이에 오랫동안 뚜렷한 구별이 있었으나, 6세기에 들어와 신라에 복속되어 그 땅으로 편입되어 신라인에 섞였다. 일본해의 해산물인 예(濊)의 북쪽 변방에 해당하는 원산(元山)·안변(安邊) 지방에서 채취되어 한인(漢人)과 교역을 하면서 한인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 지방의 예인(濊人)은 비교적 한인 문화(漢人文化)를 향유하면서 살았다. 한나라 이후, 대군장(大君長) 없이 제(諸) 주장(主長)이 한나라가 수여하는 관(官)에 후(侯)·읍군(邑君)·삼로(三老) 등의 호(號)가 있었으며 하호(下戶)를 통괄하였다. 스스로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칭한 그 인성은 착하고 아름다워 욕심이 없고 염치를 알았으며 구걸을 하지 않았다. 언어·법·풍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같았으나 의복은 달라 남녀 의복 모두 곡령(曲領)을 드러냈으며 남자는 폭이 수촌(寸)이나 되는 넓은 은화(銀花)를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들의 풍속은 산천(山川)을 중히 여겨 산천 곳곳에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동성혼(同姓婚)을 허락하지 않았다(성(姓)이라는 글자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질병을 기피하여 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옥을 버리고 새로이 집을 지었다. 마포(麻布)가 있었으며 잠상(蠶桑)을 알아 면(綿)을 만들었다. 별자리를 읽어 해마다 풍흉(豐凶)에 대한 예지(豫知)를 하였다. 주옥(珠玉)을 보물로 여겼으며, 항상 10월 절기를 이용해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주야로 음주가무를 즐겼으며 이를 무천(舞天)이라고 하였다. 또한 호랑이를 받들어 신으로 모셨다. 각 읍락(邑落)을 서로 침범

하면 생구(生口)·우마(牛馬)로 서로 벌칙으로 삼았으며 이를 책화(責禍)라고 불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보상해야 하였다. 도둑이 적었다고 한다.

조선 사적(史籍)에는 강원도 강릉(江陵)을 예(濊)의 중심지로 보고 춘천(春川)을 맥(貊)의 중심지로 보았다. 그리고 강원이라는 지역에서 예와 맥이 대립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설(說)의 연원(淵源)은 당(唐)나라 고담(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 “今新羅北界溟州蓋濊之古國” “句麗之東南濊之西古貊地蓋今新羅北朔州”라고 실린 데에 있다. 그러나 예와 맥은 완전한 구별되지 않으며, 또한 강원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대립하였을 리도 없으므로 이 설은 채택하지 않겠다.

제5장 부여(扶余) 민족의 남하(南下)

제1절 부여 민족

부여는 예맥종(濊貊種)으로, 이른바 통고사종족(通古斯種族)이라는 점에 대해 이미 기술하였다. 이 민족은 예전부터 남쪽에서 발전을 하였으나 진한 시대(秦漢時代)부터 크게 발전하는 모습이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고구려를 분출(分出)하여 백제 왕가를 배출한 것도 이 민족이다. 그렇다면 부여의 본국은 어디였을까? 이에 대해 본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부여는 부유(虡夷)라고도 표기하였으며, 한위시대(漢魏時代)에는 지금의 만주(滿洲)·장춘(長春)·길림(吉林)에서 하얼빈 지방에 걸쳐 나라를 세워 살았던 민족이다. 본래 부여 민족에서 갈라져 나와 남하한 고구려는 이미 이 시대에 압록강 동가(修佳) 유역에 나라를 세웠으며 그리고 그 남쪽 조선 반도의 동쪽에는, 이미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일찍부터 남하해 간 것으로 추측되는 이른바 예(濊)라는 종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함경 지방에는 옥저가 거주하고 있었다. 부여의 개국전설(開國傳說)은 후한(後漢)의 왕충(王充)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논형(論衡)』이라는 서적에 기재되어 있다. 이 『논형』에 따르면,

북이탁리국(北夷橐離國) 왕의 시비(侍婢) 중에 임신한 자가 있었다. 왕이 이 자를 죽이려 하였는데, 이에 비(婢)가 대항하며 말하기를, “기가 센 계자(鷄子) 닮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임신시켰다.”고 하였다. 왕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훗날 아이를 낳게 하였다 운운(云云). 이 아이에게 동명(東明)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우마(牛馬)를 돌보게 하였다. 동명은 활쏘기를 잘 하였다. 왕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동명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동명은 남쪽으로 도망하여 엄표수(掩淲水)에 이르러 활로 강을 쏘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이 그 다리를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흩어져 버렸으며 한편 동명을 추격해 오던 병사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동

명(東明)은 도읍으로 정한 부여의 땅에서 왕이 되었다. 이로써 북이(北夷)에 부여국이 생겼다.

라고 한다. 이 전설은 그 후 두세 곳의 사적(史籍)에 실려 탁(橐)을 고(藹)로 만들거나 색(索)으로 만들기도 하여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동명전설(東明傳說)은 훗날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의 국조(國祖)인 주몽(朱蒙)의 전설에서 전이(轉移)되었다. 부여는 그 서쪽에 있던 선비족(鮮卑族)보다도 수준이 높았으며, 또한 그 동쪽에 있던 읍루(挾婁)보다 훨씬 우수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방 2천 리(漢里) 정도, 호(戶) 8만, 그 백성은 토착해 있었으며 궁실(宮室)·감옥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산릉(山陵)이 넓고 비옥하여 동방 민족 지역에서 가장 평평하고 드넓었으며 토지에서는 오곡이 잘 재배되었고 오과(五果)는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성향은 거칠고 강대하여 강용(強勇)하고 근후(謹厚)하였으며 약탈을 일삼지 않았다. 나라에 군왕(君王)이 있었다. 모두 여섯 종류의 동물 이름으로 관명(官名)을 정하여,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豬加)·구가(狗加)·대사(大使)·대사자(大使者) 사자(使者) 등의 관명(官名)이 있었다. 가(加)는 간(干)·한(旱) 등의 문자를 빌려 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읍락(邑落)에 호민(豪民)이 있었고 하호(下戶)는 모두 노복(奴僕)이 되었다. 제가(諸加)는 각 지방에서 중심이었으며, 영향력이 큰 자는 수천 가(家), 영향력이 작은 자는 수백 가의 중심이 되었다. 음식과 관련한 도구로 조두(俎豆)를 사용하였고 회동(會同)에 작(爵)을 올리고 작을 비워 읍양(揖讓)하면서 오르내렸다. 은(殷)나라의 정월(正月, 후대(後代)의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온 나라가 모여 연일 음주가무를 즐겨 이를 영고(迎鼓)라고 불렀다. 이때에는 형옥(刑獄)을 열어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나라에서는 흰 옷을 입고 가축신을 신었다. 나라 밖으로 나가면 증수금계(繒繡錦鬪)를 입었으며, 어른은 여우(狐)·삿(狸)·검은 원숭이(狢)·담비(貂)로 만든 갓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역인(譯人)은 말을 전할 때에 모두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대고 말을 전하였다. 형(刑)을 가할 때 엄격히 적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보상하게 하였고 그 가족은 모두 노비로 삼았다. 절도를 하면 피해액의 12배를 보상하게 하였다. 남녀 간의 음란한 물의를 일으킨 자, 질투를 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으며, 투기를 가장 싫어하였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 풍습은 흉노(匈奴)와 비슷하였다. 나라에서 생(牲)을 잘 키웠고 명마(名馬)·적옥(赤玉)·담비·검은 원숭이·미주(美珠)를 배출하였다. 궁시도모(弓矢刀矛)로 병장기를 삼았고 집집마다 철기구가 있었다. 나라의 기로(耆老)들은 예로부터 말하는 7인(七人)으로 구성된다. 성책(城柵)을 모두 원형으로 만들어 마치 감옥과 비슷하였다. 군사(軍事)가 있으면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잡아 말굽을 살펴 길흉을 점쳤다. 말굽이 풀어지면 흉(凶)한 징조로, 붙어있으면 길(吉)한 징조로 보았다. 적(敵)이 나

타나면 제가(諸加) 스스로 전투를 준비하여 싸우고 하호(下戶)는 모두 식량을 담당해 식사를 준비하였다. 사망하면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였고 사람을 죽여 순장(殉葬)을 하였는데 많은 경우 100여 명이나 되었다. 장례는 성대히 치렀으며 관(棺)은 있지만 곽(槨)은 없었다. 그 상(喪)을 치르는 모습에 한인(漢人)과 서로 비슷한 점이 있었다.

부여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유목 민족과 다른 점이 있었다. 고구려·백제처럼 중국 문화를 섭취한 국가를 건설할 소질이 다분히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형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 고유의 유풍(遺風)이 주변 민족의 풍습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주 오래 전에 하·은 시대(夏殷時代)의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이 이주해 온 것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부여는 전한(前漢)·후한(後漢)을 통해 현도군(玄菟郡)에 속하여 한(漢)나라와 교통하면서 화순(和順)하였으나, 4세기 중반에 들어와 모용연(慕容燕)에 의해 멸망되어 부여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거나 팔려가거나 도망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제2절 고구려의 건국

고구려는 부여(扶余)의 한 부족이 남하하여 동가강(修佳江) 상류에 건국하면서 시작된, 중국인이 말하는 이른바 맥종(貊種)이 세운 국가이다. 개국시조 동명왕(東明王) 주몽(朱蒙, 추모(鄒牟)·도모(都慕) 등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은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와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 사이에서 난생(卵生)을 통해 태어난 아들로, 부여왕 금와(金蛙) 슬하에서 성장하다가 난(難)을 피해 남하하여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신기한 일을 통해 엄포수(淹淅水)를 건너 졸본(卒本)에 이르러 고구려국을 건국하였다고 전한다.

이 전설은 앞서 서술한 부여의 개국시조인 동명전설로, 고구려인이 본국 시조왕을 새로이 자국의 시조왕 전설로 삼은 것이었다. 이미 4~5세기 무렵부터 동명왕 주몽을 개국시조로 하였지만, 오래 전 주몽이 부여에 살던 시절에 태어난 아들로, 성장한 후 아버지를 찾아 졸본에 온, 고구려 2대 왕이 되는 유리왕(瑠璃王)을 개국시조로 삼았던 흔적도 있다. 본래 주몽 전설도 부여에서 전해지던 전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되는 같은 종족의 민족 시조 전설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조 전설은 근대(近代)까지 만주(滿洲) 각 추장(酋長)의 집안에 전해지고 있어, 청(淸) 황실(皇室) 역시 이러한 시조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 원시적인 모습은 매우 야만적이었다고 한다.

고구려는 예전에 구려(句麗)라고 불렸으며,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에 이미 이 명칭이 있었다면 건국은 더 오래 전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고구려인들은 한(漢)나라 원제(元

帝) 건소(建昭) 2년 갑신(甲申)을 주몽이 개국을 한 해로 삼았다. 단, 고구려의 역사 연대(年代)는 1세기 태조대왕(太祖大王) 궁(宮, 혹은국조왕소명어수(或云國祖王小名於漱))의 치세 무렵에 시작되어 이보다 이전의 일은 확실하지가 않다.

고구려인의 『고기(古記)』류를 인용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성(姓)은 고씨(高氏), 휘(諱)는 주몽(朱蒙)이다. 부여에서 몸을 피해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고 나라를 고구려라고 칭하였고, 고(高)를 씨(氏)로 삼았으며, 한(漢)나라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 갑신(甲申)에 즉위하여 재위 19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해에 주몽이 부여에 남기고 온 아들 유리(類利)가 그 어머니와 부여에서 도망해 와 주몽과 만났다. 왕이 사망하자 즉위하여 유리명왕(瑠璃明王)이 되었으며 휘(諱)는 유리(類利) 혹은 유리(儒留)라고도 한다. 왕도(王都)를 국내성(國內城)으로 천도하여 위나암성(尉那巖城)을 축조하였다. 재위 37년 만에 사망하여 그의 아들이 대무신왕(大武神王)으로 즉위하였으며, 혹은 대해주류왕(大解朱留王)이라고도 부른다. 대무신왕은 부여를 멸망시키고 재위 29년 만에 죽음을 맞았으며, 그의 동생 해읍주(解邑朱)가 즉위하여 관중왕(關中王)이 되었고, 즉위 5년 만에 사망하였다. 대무신왕의 아들 해우(解憂, 일운해애루(一云解愛婁))가 즉위하였으나 무자비한 폭정(暴政)을 휘둘러 재위 6년 만에 시해되었다. 이 사건은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29년 계축(癸丑)에 있었던 일이다. 해우의 태자 역시 반성의 기미가 없자 사람들은 태조왕(太祖王) 휘를 궁(宮)으로 맞아 옹립하였다. 태조왕은 국조왕(國祖王)으로도 불리는 유리왕(瑠璃王)의 아들인 고추가재사(古鄒加再思)의 아들이다.

호태왕릉비(好太王陵碑)에는,

예전에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기초를 마련하자, 북부여(北扶余)에서 탈출하였다. 천제(天帝)의 아들로,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딸이다. 알을 깨고 태어났다. 생자(生子) 성(聖) 하(河)였다(원문에서 ‘성’ 다음의 6글자는 불분명하다). 가마와 수레를 타고 남하하였다. 길은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경유하였다. 왕(王)이 나루터에 이르자 말하기를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로, 어머니는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강을 이어라” 고 하였다. 이에 거북이가 떠올라 강을 이어 부귀(浮龜)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강을 건너 비류곡홀본(沸流谷忽本)의 서성산(西城山) 위에 도움을 세웠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리 즐겁지 않았는데 이에 황룡(黃龍)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오자 왕은 홀본(忽本)의 동쪽에서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세자(世子) 유류왕(儒留王)에게 도(道)로서 다스릴 것을 명하였다. 대주류왕(大朱留王)은 기업(基業)을 계승하였다. 이후 17대손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에 이르렀다.

라고 새겨져 있다. 단, 이 비(碑)는 마모가 매우 심하여 17대인지 11대인지 중요한 부분

의 글자를 잘 알아 볼 수가 없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왕 대수(代數)를 살펴보면 호태왕(好太王)은 제19대 왕으로, 혈통 대수로 볼 때 주몽 대부터 계산하면 제13대손에 해당한다(몇 대손이냐 하는 것은 그 선조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법과 선조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법, 두 가지가 있다).

이를 고찰하는 데에 『삼국사기』의 제2대 왕 유리명왕(瑠璃明王)과 제3대 왕 대무신왕(大武神王)은 동일한 왕으로, 부여의 동명왕을 개국시조 왕으로 채택하기 이전에는 이 왕이 개국시조 왕으로 전해졌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위지(魏志)』에 고구려에 대해,

본래, 5족(五族)이 있었다. 연노부(涓奴部, 『후한괄리지(後漢括地志)』 등에 소노부(消奴部)라고 되어 있다) · 절노부(絶奴部) · 순노부(順奴部) · 관노부(灌奴部) · 계루부(桂婁部)가 그것이다. 본래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그 세력이 약해져 지금은 계루부가 연노부를 대신하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1세기에 출현한 궁(宮)이라는 왕이 즉위한 이후 고구려의 역사 연대를 기록하였다. 궁(宮)이라는 왕 이후 왕자(王者)를 배출하는 부(部)가 바뀌지 않아 아마도 이 태조대왕(太祖大王, 또는 국조왕(國祖王)) 궁(宮)을 계루부의 시조 왕으로 이름을 올렸을 것이므로, 이전의 제왕(諸王)을 연노부의 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대(漢代)의 고구려는 제(諸) 부족(部族)으로 나뉘어 부족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던 부족이 왕을 배출하였고, 부족 중 강성한 5부족이 있었으며 그 밖에 소부족(小部族)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다섯 부족은 각각 성쇠(盛衰)를 거듭하였으므로 언제나 그대로 존속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한(漢)나라 초에 이미 존립하면서 행적을 남기고 있으므로 고구려의 개국은 지금 전해지는 그 시대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멸망 당시에 대해서 일설(一說)에 의하면 지금은 고구려 개국 이래 900년이라는 설이 있다. 이 설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세기 후반(6국(六國) · 진(秦)시대)에 개국했다는 말인데, 이 설 역시 근거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개국 연대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고구려의 왕계(王系)에 대해서도 『위서(魏書)』(『북사(北史)』, 『수서(隋書)』는 이를 참고하였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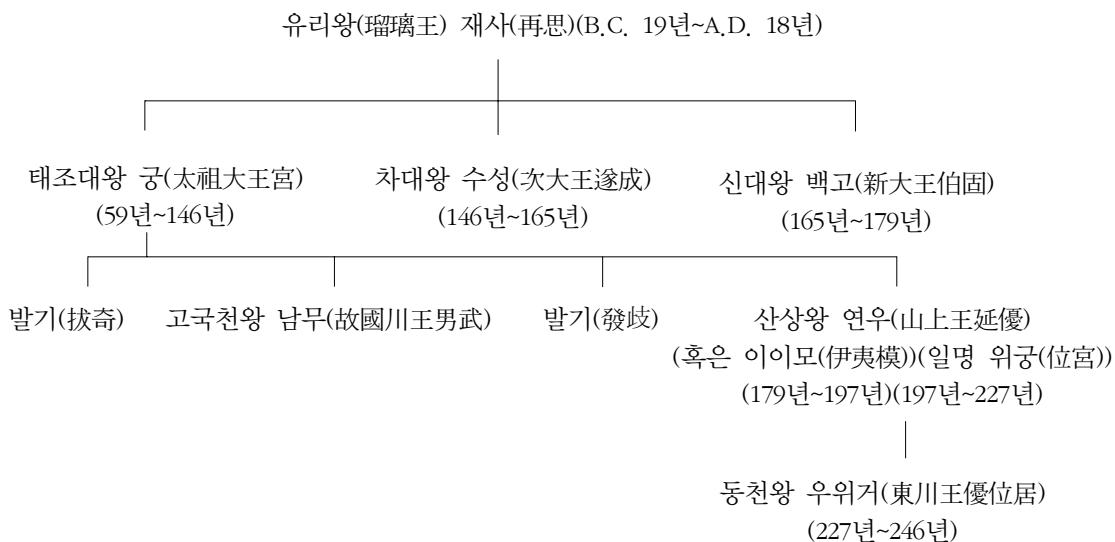
주몽(朱蒙)이 부여에 살던 때 부인이 임신을 하였고 주몽이 도망을 한 이후 아들을 하나 낳았다. 처음에 자(字)를 여해(閼諧)라고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주몽이 국주(國主)가 되었음을 알고 어머니와 부여를 도망쳐 주몽에게 돌아갔다 이를 이름하여 여달(閼達)이라고 한다. 이에 주몽은 이 아들에게 국사(國事)를 맡기는데 주몽이 세상을 떠난 뒤 그를 대신해 즉위하였다. 여달(閼達)의 아들 여율(閼栗), 여율의 아들 막래(莫來)에게 왕위를 계승해 갔다. 막래(莫來)는 부여를 정벌하여 마침내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 왕위는 계속 막래의 자손에게 계승되어 그 후예인 궁(宮)에 이르렀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구려인이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기(史記)』와 비교적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 『위지』에는 왕망(王莽)이 다스리던 때에 고구려후(高句麗侯) 도(騶)가 있어 한(漢)나라에 의해 참수되었는데, 이때 고구려는 한(漢)나라의 후국(侯國)이었으나, 광무제(光武帝) 8년(A.D. 32년)에 왕사(王使)를 파견하여 조공(朝貢)을 하기 시작하면서 왕(王)을 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무제 23년(A.D. 47)에 고구려의 잠지락(蠶支落, 락(落) 자 위에 글자가 빠진 것이 아닐까?)의 대가(大加, 대추장(大酋長)) 재승(載升) 등이 만여 명을 이끌고 낙랑(樂浪)으로 들어가 복속한 일이 있었다. 광무제 25년에 고구려는 우북평어양상곡태원(右北平漁陽上谷太原) 등 한나라의 동북 지방을 침입하였으나, 요동(遼東)의 태수 제융은신(祭彤恩信)을 통해 고구려를 초무(招撫)하자 모두 다시 복속해 왔다고 한다. 요컨대, 고구려는 후한 시대(後漢時代)에 들어와 강성해지기는 하였지만, 궁(宮)이라는 왕이 등장할 때까지는 그 강성함의 정도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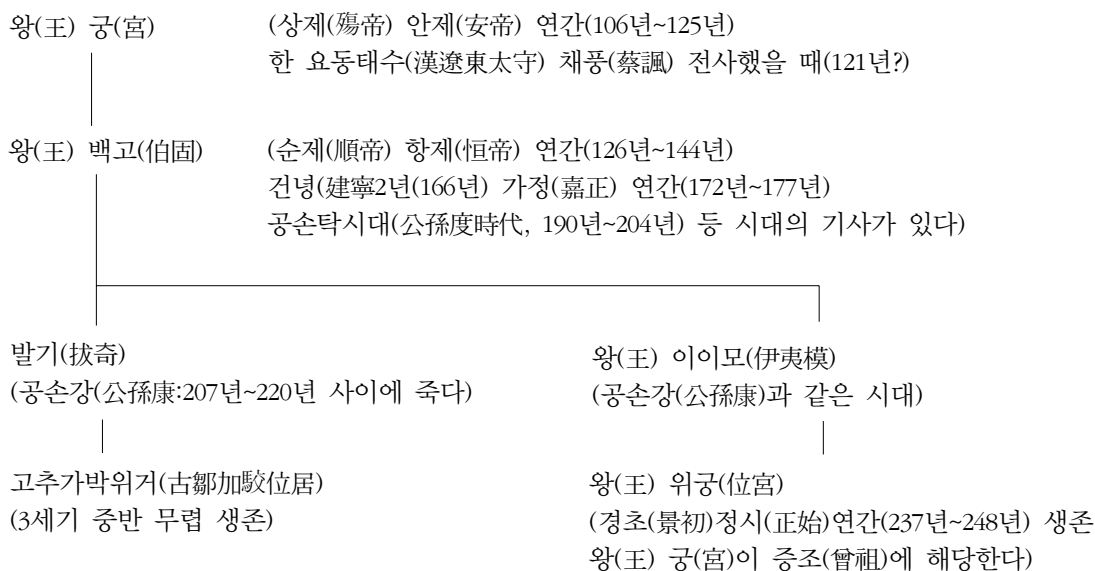
제3절 고구려의 강성(强盛) 및 남진(南進)

고구려가 태조대왕(太祖大王) 궁(宮)이 즉위하고 나서 한(漢)나라의 군현(郡縣)을 침입하였다는 사실은 중국 측 사료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태조대왕에서 시작되어 위궁(位宮)이라는 왕에 이르기까지의 연대(年代) 및 왕계(王系)에 대해서는 고구려 고전(古傳)의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과 중국 측 사료에 실린 기사 사이에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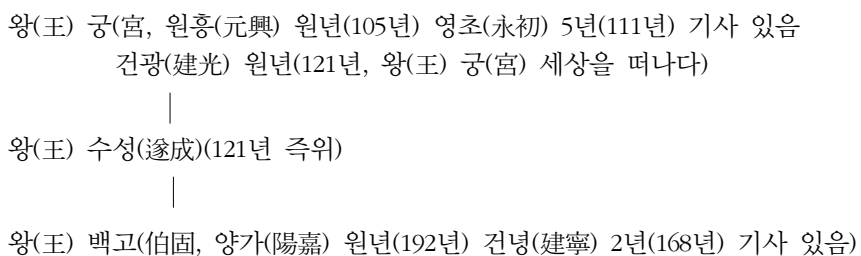
『삼국사기』



『위지(魏志)』



『후한서(後漢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사료에 실린 기사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삼국사기』는 태조대왕(太祖大王) 궁의 연대가 『해동고기(海東古記)』와 『후한서(後漢書)』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주(注)를 달아 기록하기를,

『한서』의 기록과 『고기』의 기록이 틀려 서로 맞지 않으니, 어찌 『한서』의 기록이 잘못 이 아니겠는가?²²⁾

22) 則漢書 所記 與古記 牴牾不相符合 豈漢書所記誤耶.

라고 논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史記)』는 주로 『고기(古記)』에 근거하여 당시 중국의 사서에 실린 기사를 채용하거나 참고하여 발기(拔奇, 중국전(支那傳))와 발기(發岐, 본국전(本國傳))를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거나 남무(男武)를 이이모(伊夷模)로 추정하고 연우(延優)를 위궁(位宮)으로 설정하여 이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보고 주를 달았으며, 그 밖에 중국 측 사서의 기사를 해당 연대에 전재(轉載)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단,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영양왕대(嬰陽王代)에 대학박사(大學博士) 이문진(李文眞)이 고사(古史)를 추려 편찬한 『신집(新集)』 5권의 계열을 잇는 기록일 것이다. 이 사료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겠다). 『삼국사기』의 전거(典據)라고 할 수 있는 『고기』가 어떤 사료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점이 없다. 태조왕(太祖王)·차대왕(次大王)·신대왕(新大王) 등의 세 왕을 형제로 상정한 것과 재위 연수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 세계(世系) 혹은 연대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오류가 있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중국 측 사서의 기사에도 전문(傳聞)에 근거하여 당연히 오류가 있으며, 『위지(魏志)』에는 왕 백고(伯固)와 왕 이이모(伊夷模) 사이에 왕 수성(遂成)을 명백히 빼놓고 있다. 중국 측 사서가 왕 위궁(位宮)을 왕 궁의 증손(曾孫)으로 기록한 점 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본국(本國) 및 중국 기록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았을 때, 왕 위궁은 산상왕(山上王) 연우(延優)가 아니라, 동천왕(東川王) 우위거(優位居)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사실은 2세기 초부터 3세기 중반에 이르는 150년간 궁·수성·백고·이이모·위궁 등 제왕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만약 감히 억측을 한다면, 궁과 수성을 형제로 보고, 백고를 궁의 아들로 보아, 남무와 연우를 형제로 볼 수 있으며, 연우는 중국 측 사서에 등장하는 이이모로 보아 그 아들 우위거를 위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150여 년간은 고구려가 강성한 힘을 갖고 한(漢)나라 문화를 섭취하면서, 한나라의 정치가 점차 쇠퇴하여 변방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고 흥기(興起)한 시대였다. 그러나 북쪽으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문헌이 없는 민족과의 관계이므로 그 행적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요동 방면을 향해 진출을 시도한 사실만 전해진다. 게다가 가장 많이 침입을 시도한 것은 물자가 풍부한 요동 방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2세기 초의 용감한 태조대왕 궁의 통솔을 받은 고구려는 여러 차례 요동을 침입하여, 원흥(元興) 원년(105년) 한나라의 태수(太守)는 이를 격퇴하여 그 거수(渠帥)를 참수하였으나, 영시(永始) 5년(111년)에 태조대왕은 한나라에 사자(使者)를 보내 조공(朝貢)을 하고 현토(玄菟)에 복속되기를 청하였다. 조공은 무역의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 원초(元初) 5년(118년)에는 예맥(濊貊)과 현토(玄菟)를 침입하였다. 이에 한나라는 건광(建光) 원년(121년)에 고구려 대정벌을 감행하였는데, 고구려는 제(諸) 민족을 이끌고 이에 응전하면서 현토로 들어가 성곽에 불을 지르고 요대(遼隊, 일

설에 수대(隧隊) 음수(音遂). 지금의 해성현(海城縣) 서쪽)를 공격하여 관리(官吏)를 살해하였다. 한나라 요동 태수인 채풍(蔡諷) 등이 이를 신창(新昌, 지금의 요양주(遼陽州) 부근)으로 추격하다가 전사하였고, 고구려는 다시 현토를 포위하였다. 한나라는 부여왕(夫餘王)이 자신의 아들 위구태(尉仇台)를 파견하여 대군을 이끌고 한나라를 구원하러 오자 주군(州郡)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격퇴할 수 있었다. 이 해에 고구려의 태조대왕 궁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수성(遂成)이 즉위하였고, 한나라에서는 고구려가 국상(國喪)을 당한 틈을 타 고구려를 토벌하자는 의견을 낸 자가 있었으나, 회유주의(懷柔主義)가 채택되었으며, 고구려의 수성(遂成)도 한나라의 생구(生口, 포로로 잡혀온 사람)를 돌려보내고 현토에 가서 항복하자, 한나라는 생구를 돌려보낸 데 대한 보상으로 비단을 보냈다. 이 후 잠시 동안 고구려도 침입을 하지 않았다. 2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구려왕 백고는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서안평(西安平, 지금의 의주(義州) 건너편 지역)을 공격하였고 도중에 대방(당시 낙랑군의 현(縣) 가운데 하나)의 현령(縣令)을 죽이고 낙랑 태수(樂浪太守)의 가족을 약취하여 낙랑군과 한나라의 육로 교통을 위협하자, 건녕(建寧) 2년(169년)에 현토 태수인 경임(耿臨)이 이를 격퇴하여 수백 명의 머리를 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백고는 항복하여 요동(遼東)에 복속하였다가 나중에 백고의 요청으로 현토(玄菟)에 속하게 되었다.

2~3세기 때부터 공손씨(公孫氏)가 요동에서 할거하여 해동(海東)에서 세를 장악하자 고구려도 이 지역을 침략하지 못하고 공손씨에게 복종하였다. 고구려에 왕위 계승의 내란이 이어지면서 이이모왕을 배반하는 자가 있어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왕은 국도(國都)를 압록강 변, 지금의 만주 집안현(輯安縣) 동구(洞溝) 지방으로 천도하였다. 바로 환도(丸都) 국내성(國內城)이었다. 이렇게 공손씨로 인해 요동·낙랑(樂浪) 쪽을 제압당해 고구려는 동쪽으로 나아가 일본해를 따라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갔으며, 제 민족을 이끌고 함경도에 있던 옥저(沃沮), 강원도에 있던 예(濊)를 복속하여, 이쪽으로는 영토는 낙랑군 동쪽을 남하하여 진한(辰韓)과 접경을 이루게 되었다. 옥저나 예는 고구려와 같은 종족으로 언어·법·풍속 등도 유사하여 이들을 복속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왕 위궁 시대에 이르러 고구려는 다시 강대해져 마침내 압록강 교통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만주 산중에 있던 나라는 중국해를 통로로 남중국 오(吳)나라의 손권(孫權)과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 교통은 우연하게도 고구려가 위(魏)나라를 꺼려해 이 교통로를 거절함으로써 무의미하게 끝나기는 하지만 훗날 남중국과 통하는 교통의 서막이 되었다.

경초(景初) 2년(238년), 위나라가 요동의 공손씨를 쳤을 때, 왕 위궁은 위나라에 원군(援軍)을 파견했으나 공손씨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강대한 위나라와 국경을 접한 형세에

놓이게 되자 정시(正始) 3년(242년)에 서안평을 침입하였다. 서안평은 압록강 어구의 요지로, 이 지역이 고구려의 손에서 떨어지면 요동과 조선 반도 사이의 육로 교통은 완전히 두절될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중국해로 진출해 그 해상 교통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위나라에게 더욱 위협적이었던 것은 전년(前年)에 이미 그랬던 것처럼 고구려와 남중국의 오나라 사이에 교통이 열리고 나아가 정치상의 연합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위나라는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정벌하려는 계획을 결정하였던 것이며, 정시(正始) 5년에 위나라의 명장(名將)으로 당시 유주자사(幽州刺史)였던 관구검(毌丘儉)이 보기(步騎) 만 명을 이끌고 현토(玄菟, 지금의 흥경(興京) 지방)를 출발해 제도(諸道)에서 고구려를 토벌하였다. 고구려왕 위궁(동천왕(東川王))은 보기 2만 명을 이끌고 군을 비류수(沸流水, 지금의 동가강(修佳江) 지류 부이강(富爾江))로 진격하여 두나라의 군대는 이 지역에서 충돌하였다. 고구려왕은 연패 끝에 도주하였고 관구검은 진격하여 고구려의 도성(都城)인 환도(丸都)를 함락하였다. 무자비한 참획(斬獲)이 자행되었으며 고구려왕이 처지를 데리고 도주하자 관구검은 군대를 이끌고 철수하였으나, 이듬해 정시 6년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이 전투를 치르면서 고구려왕은 지금의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 지역으로 도망하여 함흥평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랑·대방(帶方)의 두 태수는 관구검과 싸고 병사를 일으켜 지금의 함경남도(咸鏡南道) 남변(南邊)의 고구려에 속한 불내(不耐) 등 예국(濊國)을 정벌하여 항복시키자 고구려왕은 함경북도(咸鏡北道)로 도주하였다. 관구검은 현토(玄菟) 태수 왕기(王頎)를 보내 이를 추격하게 하였으며 왕기는 두만강(豆滿江) 지역까지 추격하여 돌에 자신의 공적을 새겨 놓고 귀환하였다. 관구검은 환도에 있는 산에 올라 불내성(不耐城, 조선 반도의 불내(不耐)와 다른 지명이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을 말한다)의 돌에 새긴 다음 귀환하였다.

위나라는 고구려에 위와 같은 대대적인 타격을 주어 위나라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나, 정시 7년 무렵에 낙랑·대방 두 군(郡)이 남쪽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격심한 분노를 초래하여 그들의 공격을 받아 한 때 대혼란에 빠졌다. 고구려도 낙랑을 침입하였는데 전년(前年) 고구려를 추격하던 용장(勇將) 왕기(王頎)는 대방 태수로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켰다는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대로이다.

고구려가 모구검(母丘儉)의 군대에게 받은 대타격은 중국 세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고구려 흥기의 기세가 불타오름으로써 의외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동천왕(東川王, 즉 위궁) 21년에 병란(兵亂)을 겪은(247년, 정시 8년) 환도성(丸都城)으로 환도(還都)할 수가 없어, 평양성(平壤城)을 축조하여 백성 및 종묘사직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음을 앞에 기술하였다. 이 당시 낙랑·대방의 혼란을 틈타 고구려가 군내(郡內)에 침입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의 평양을 점령하

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이 평양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역사서의 실수일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이듬해 동천왕 22년에 신라 사자(新羅使者)를 파견하여 화평을 맺고자 하였다. 이를 고구려와 신라의 교섭이 나타나는 서막이라고 해도, 신라의 사서에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2년에 사자(使者)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화평을 맺었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고구려기(高句麗紀)」에 전재(轉載)된 것에 불과하다. 사실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은 고구려의 소수림왕(小獸林王) 무렵의 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48년에 동천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중천왕(中川王) 연불(然弗)이 즉위하였다. 재위 23년, 270년에 중천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서천왕(西川王) 약로(藥廬)가 즉위하였다. 재위 23년, 292년에 서천왕이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봉상왕(烽上王) 상부(相夫)가 즉위하였다. 재위 9년 만에 폐위되면서 서천왕의 손자 미천왕(美川王) 을불(乙弗)이 즉위하였다. 재위 32년을 거친 다음 세상을 떠났다. 미천왕 14년(313년)은 낙랑·대방이 완전히 조선 반도에서 사라진 해이다.

이제 그 간의 상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중국 방면에서 위(魏)나라는 정시(正始) 연간의 고구려 사건이 있는 지 10여 년이 흐른 뒤 멸망하여, 진(晉)나라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제실(帝室)만 바뀌었을 뿐이었고, 남쪽에서는 오(吳)나라의 흔적이 남아 있어 해외제국(塞外諸國)을 충분히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요동·조선 방면에서는 함녕(咸寧) 2년(276년,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즉 고구려 서천왕 5년에 유주(幽州)의 창여(昌黎)·요동·낙랑·현도·대방 등의 5군(五郡)을 나누어 평주(平州)라고 하고 자사(刺史)를 두었으나, 이곳을 경영하는 데 역부족이자 태강(太康) 원년에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남북 중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성취하자 서쪽 외민족(外民族)의 실력을 깨닫지 못한 채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 주군(州郡)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이 무렵부터 유주(幽州)·평주(平州) 두 주가 있는 지역에는 선비족(鮮卑族)인 모용씨(慕容氏)가 발흥하였고, 태강(太康) 6년에는 모용의(慕容廆)가 부여를 정벌하였고 부여의 도성을 평정하기에 이르렀다. 부여는 진(晉)나라의 동이교위(東夷校尉)의 보호 아래 근근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모용씨는 진나라 제실(帝室)에 충성을 표함으로써 진동(晉東夷校尉)으로서 요동(遼東)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구려도 쉽게 모용씨를 침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남쪽의 낙랑·대방 지역으로는 끊임없이 침입하여 그 땅을 빼앗으며 남진해 갔다. 이 무렵, 마한(馬韓) 지역에는 백제국이 새로이 발흥하여 태강(太康) 7년에 대방을 도와 고구려를 정벌하기도 하였으나 마한 역시 기회만 있으면 대방의 땅을 빼앗아 북진을 해 갔다. 중국 지역에서는 안으로 팔왕(八王)의 난이 일어났고 밖으로 5호(五胡)가 발흥하여 대혼란에 빠졌으나, 고구려와 접한 모용씨는 더욱 강대해져 고구려를 침입하기에 이르렀다. 봉상왕(烽上王)

2년(293년), 모용외가 쳐들어왔으나 점차 이를 막아낼 수 있었으며, 봉상왕 5년에 다시 쳐들어온 모용씨는 서천왕(西川王)의 묘까지 범하였으나 이 역시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모용씨는 더 이상의 침입을 중단하였고, 고구려는 낙랑 방면으로 더욱 기세를 올리며 침입하였다. 나아가 미천왕(美川王)은 현토를 침입하였고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취하였으며, 낙랑·대방도 미천왕 14년에 조선 반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의 경기(京畿)·황해(黃海) 지역을 경계로 직접 접하게 되었다.

제4절 백제의 유래(由來)

3세기 중반 무렵(중국은 삼국·위(魏)나라 시대)에, 마한(馬韓) 50여 국 중에 아직 이렇다 할 위치를 점하지 못한 백제국(伯濟國)이 있었다. 이는 곧 백제국을 말한다. 백제국의 왕실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중국 측 사서에 갖가지 설(說)이 있지만, 백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기록한 설을 채택할 수는 없다. 오직 부여 종족인 자가 나라를 열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개국(開國)하게 되었는지 밝혀진 내용이 없다. 백제국은 예전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주몽(朱蒙)을 시조 왕(始祖王)으로 여겨왔으나, 『삼국사(三國史)』의 찬자(撰者)는 이를 고쳐 주몽의 아들인 온조(溫祚)를 시조 왕으로 기록하였다. 이 온조의 신분에 대해서도 백제국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주몽의 아들이라는 설로, 주몽(朱蒙=추모(鄒牟))이 북부여(北扶余)에서 난(難)을 피해 졸본부여(卒本扶余)로 도망하여 졸본부여왕의 둘째 딸과 결혼해 왕위를 잇고 아들 두 명을 얻었는데, 첫째가 비류(沸流), 둘째가 온조(溫祚)였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부여의 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 중에 우태(優台)라는 자가 있어, 졸본 사람인 연타물(延拖物)의 딸 소서노(召西奴)와 결혼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았으나 우태가 죽고 소서노는 과부로 지냈다. 그러던 중, 주몽이 부여에서 졸본으로 도망을 오게 되면서 과부였던 소서노와 결혼하였고 소서노의 많은 내조를 받은 주몽은 비류와 온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다고 한다. 한 설은 비류와 온조를 주몽의 아들로 보고, 다른 설은 비류와 온조를 의붓아들로 보았지만, 주몽이 부여에 갔을 때 아들 유류(孺留)가 찾아오자 이를 태자로 삼게 되면서, 비류와 온조 형제는 자신들이 내쳐질까 두려워하여 남쪽으로 도망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은 두 설이 모두 같다. 비류와 온조는 십신(十臣)을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이를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고 한다. 마침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 만한 땅을 둘러보다가, 비류는 바닷가를 선택해 십신의 간언을 뿌리치고 미추홀(彌鄒忽, 인천(仁川)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거처를 마

련하여 십신의 보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는 전한(前漢)의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이었다. 비류의 미추홀(彌鄒忽)은 토지가 습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 살기 좋은 위례성(慰禮城) 땅을 보고 크게 후회하다가 죽음을 맞았고 그의 백성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으며, 온조는 국호를 백제라고 하였고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여 부여를 씨(氏)로 삼았다고 한다.

이 개국전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백제가 대륙에 있던 부여 민족의 한 부족(部族)으로 마한(馬韓)의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생각하건대, 이 부족이란 『위지(魏志)』에 나오는 소수맥(小水貊)과 같은 부류일 것이다. 이 소수맥이 마한으로 들어온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이를 홍가(鴻嘉) 3년이라고 보는 것은 『삼국사(三國史)』의 편자(編者)가 「고구려전(高句麗傳)」에 주몽 사망 이듬해를 온조 원년으로 본 것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연대를 추정해 보면 2세기를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 있던 땅은 지금의 직산(稷山)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이 설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직산은 마한 백제(馬韓伯濟)의 땅이고, 하남위례는 그 후 백제인(百濟人)이 대방이 쇠퇴함에 따라 북진하여 국성(國城)을 조성한 땅, 즉 지금의 광주(廣州) 지방일 것이다. 처음부터 위례에 거처를 마련하였다고 보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백제(伯濟)의 국명(國名)이 부여 종족의 건국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인지, 이전부터 있었던 국명으로 부여 종족이 이 땅에 들어와 그 이름을 그대로 국명으로 삼았던 것인지 의문이 남지만,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백제가 부여 종족에서 갈라져 나온 자를 주장(主張)으로 한 마한의 한 소국(小國)이었다고 하면 『위지』에 이를 마한의 일국(一國)으로 열거하는 것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이로써 당시 부여 종족이 아직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이미 부여 종족이 들어와 세운 백제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더 근거가 없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백제를 부여 종족으로 볼 때, 왕실 및 일부 귀인(貴人)이 유래한 종족을 모든 백제인의 종족으로 보는 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백제가 고구려와 크게 다른 점인데, 고구려는 부여 종족인 자가 동일 종족 중 별족(別族) 안에 건국한 동종(同種) 및 다른 북방민족을 점차 포용하여 대국을 이룬 것이므로 국가를 형성한 민족으로 본다면 백제는 마한 민족의 나라이고, 고구려는 부여 및 이와 유사한 북방민족의 나라로 한민족(韓民族)의 나라가 아니다. 부여 종족의 한 부족이 낙랑·대방을 통과하여 마한으로 들어온 상황에 대해 중국 측 사서의 기사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한 부족의 움직임이 낙랑에 이렇다 할 영향을 남기지 않았거나, 그 동변(東邊)을 통과했거나 하는 점에서일 것이다. 백제는 마한의 변경(邊境)에서 단련되어 강해진 민족을 중심으로 대방의 문화를 섭취하였으며 나아가 낙랑·대방이 점차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지역의 영토와 백성을 획득해 가, 지금의 광

주(廣州) 지방에 도읍을 정하면서 갑자기 강대해졌다. 그리고 마한 제국을 통합하면서 더욱 강대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가 가진 부여 종족 부분은 처음 그대로 남아 더 늘지도 않았으며 훗날 낙랑의 백성들을 통합하게 되지만 대체로 마한 종족의 나라로서 대백제(大百濟)로 성장했을 때 마한 종족의 요소가 더욱 증가하여 마한 종족의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백제의 역사는 근초고왕(近肖古王)에 이르러 비로소 명확해진다. 그 이전의 역사는 명확하지가 않다. 근초고왕 대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왕계로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인물은 별표(別表)와 같다.

그러나 이 표에서 고이왕(古爾王)·개루왕(蓋婁王)를 부자(父子)로 보면, 부왕(父王)이 사망하던 해에 태어났다고 해도, 고이왕(古爾王)은 121살까지 왕위에 있었던 것이 된다. 구수왕(仇首王)·비유왕(比流王) 부자의 경우도 비유왕이 적어도 111살 때까지 왕위에 있었던 것이 되어서, 분명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시대는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백제가 낙랑·대방 남부의 영토와 백성을 획득하여 마한 제국을 통일한 시대라는 점만이 분명할 뿐이다. 그러나 낙랑·대방 두 군(郡)의 땅으로 남진해 오던 고구려와 북진해 가던 백제가 3세기 무렵부터 국경을 접하게 된 것(316년)도 낙랑·대방 두 군의 흔적이 조선 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후, 그 사이에 달리 개입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제5절 신라의 유래(由來)와 그 흥기(興起)

신라는 진한(辰韓)의 한 나라에서 발흥하였다. 『위지(魏志)』에 열거된 진한 12국 중 사로국(斯盧國)이 그곳이다. 이 지역은 지금의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에 해당하는데, 3세기 중반 무렵에는 아직 대국(大國)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었으며 진한 12국 중 하나에 머물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시조(始祖)의 성(姓)은 박씨(朴氏)이고 휘(諱)는 혁거세(赫居世)로, 전한(前漢)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甲子) 4월 병진(丙辰)에 즉위하여 거서간(居西干)이라고 불렀다. 시년(時年) 13년, 나라를 서나벌(徐那伐)이라고 칭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遺民)이 산과 계곡에 흩어져 살면서 6촌(六村)을 이루었다. 6촌 중 하나는 알천양산촌(闕川楊山村)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이라고 불렀으며, 하나는 자산진지촌(鰲山珍支村)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이라고 불렀으며, 하나는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이라고 불렀고, 하나는 명활산고야촌(明活山高耶村)이라고 불렀고, 이를 진한 6부(辰韓六部)라고 한다. 고허촌장(高墟村長) 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의 녹라정(麓蘿井) 옆 숲을 보니 말이 절을 하며 울고 있어 달려가 보니 갑자기 말

은 사라지고 그곳에 커다란 알이 있었는데 알이 깨지면서 갓난아이가 나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나이가 10여 살 무렵이 되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6부 사람들은 그의 탄생이 신이(神異)하다고 하여 그를 추대하여 군(君)으로 삼았다. 진인(辰人)들은 호(瓠)를 박(朴)이라고 하였는데, 처음 그가 태어난 커다란 알이 호(瓠)를 닮았다 하여 박(朴)을 성(姓)으로 삼았다. 거서간(居西干)은 진한어(辰韓語)로 왕(王)을 의미한다(혹은 귀인(貴人)을 부르는 호칭이라고도 한다).

이 설(說)은 신라가 개국 초기부터 진한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섯 개 촌(六村)은 모두 지금의 형강(兄江) 유역을 따라 경주군내(慶州郡內)에 있었으며 훗날 신라의 내읍육혜평(內邑六喙評)을 구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한6부(辰韓六部)로 보는 것은 오류이다. 6촌(六村)을 산과 계곡 사이에 흩어져 살던 조선의 유민(遺民)이라고 기록하였지만, 이는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진한이 진인(秦人)의 나라였다는 설을 후세 사관(史官)이 고쳐 넣은 설로, 예전에 각 촌(村)의 선조(先祖)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진다.

박혁거세 거서간(居西干)의 아들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남해(南解)의 아들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으로 왕위가 이어졌으며 다음으로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이 즉위하였다.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은 석씨왕(昔氏王)의 시조(始祖)로, 『삼국사기』에,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의 성(姓)은 석씨(昔氏)이고, 왕비는 아로부인(阿老夫人)이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태어났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은 왜국(倭國)의 동북 천리에 있으며, 그 나라 국왕의 딸과 결혼하여 7년 만에 그의 부인이 커다란 알을 낳았다. 왕은 사람이 알을 낳은 일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알을 버리라고 하였다. 부인은 더 견디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함에 넣어 바다로 띄워 보냈는데 처음에 금관국(金官國)의 해변에 닿았다. 금관국 사람들은 이를 수상히 여겨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진한 아진포(阿珍浦)에 닿았는데 이때가 시조(始祖) 혁거세의 재위 39년 되던 해이다. 마침 해변에 있던 노모가 밧줄로 이 함을 해안으로 끌어내 열어보니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었다. 그 노모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아이는 성장하자 키가 9척이나 되었고 풍모 또한 뛰어났으며 지식 또한 사람들보다 앞섰다. 혹자(或者)는 이 아이의 성씨(姓氏)를 몰라, 처음 함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개 짓을 하며 이 함을 따랐다고 하여 작(鵲) 자에서 조(鳥)를 생략하여 석(昔) 자를 취해 성씨로 삼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온독(韃犢)을 헤치고(脫) 나왔다고 하여 탈해(脫解)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한다. 탈해는 처음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았으며 그 노모를 공양하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노모가 말하기를 너는 보통 사람들과 골상(骨相)이 특히 다르니 배워서 공명(功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학문에 정진하고 지리(地理)를 익혔는데

양산(楊山) 아래 호공(瓠公)의 저택이 보이는 곳이 길지(吉地)였으므로 계약으로 얻어 이곳에 거처하였다. 이 땅은 훗날 월성(月城)이 되었다. 남해왕(南解王) 5년에 그가 뛰어나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딸을 그의 아내로 시집보내었으며, 남해왕 7년에 그를 등용하여 대보(大輔)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 한편 유리(儒理)가 죽음에 직면하여 말하기를 선왕이 고명(顧命)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과 사위를 구분하지 말고 연장자이고 현명한 자에게 왕위를 잇게 하라” 고 하셨다. 이에 과인이 먼저 즉위하였다. 지금 왕위를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탈해왕(脫解王) 때에 김씨왕(金氏王)의 선조인 알지(闕智) 강탄(降誕) 기사가 나온다. 그 기사 내용은,

9년 봄 3월 밤에 왕(王)이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나무 사이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호공(瓠公)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여 그곳에 가보니 금색(金色)을 띤 작은 함이 있었다. 그 함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고 호공이 돌아와 고하였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 함을 가져와 열어 보게 하였는데 그 작은 함에 작은 남자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자태와 용모는 기위(奇偉)하였다. 왕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어찌 하늘이 내게 후계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시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는데 성장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 알지(闕智)라는 이름을 붙였고 금색 함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씨(金氏)라는 성(姓)을 붙였다. 그리고 함이 발견된 시림(始林)을 고쳐 계림(鷄林)이라고 불렀다. 또한 이를 국호(國號)로 삼았다.

고 한다. 알지 이후 6대손인 미추왕(味鄒王)에 이르러 왕위에 오르니 이것이 김씨왕의 시작이었다.

이상의 전설은 문식(文飾)이 많아 그 원시적 형태를 상실하였지만, 신라 왕가에 박(朴)·석(昔)·김(金) 등의 세 가문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 나라 개국 초의 상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6부(六部)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6부는 유리아사금(儒理尼師今) 9년에 6부라는 이름을 고쳐 성(姓)을 하사하였는데, 알천양산촌(闕川楊山村)을 양부(梁部)라 하고 성(姓)을 이(李)라고 하였으며,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을 사랑부(沙梁部)라 하고 성(姓)을 최(崔)로 하였으며, 자산진지촌(鵝山珍支村, 혹은 간진촌(干珍村))을 본피부(本彼部)라 하고 성(姓)을 정(鄭)으로 하였으며,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을 한지부(漢祗部)라 하고 성(姓)을 배(裴)로 하였으며, 명활산고나촌(明活山高那村)을 습비부(習比部)라 하고 성(姓)을 설(薛)로 하였으며,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을 점량부(漸梁部, 일설에는 모량(牟梁)이라고 한다)라 하고 성(姓)을 손(孫)으

로 하였다고 한다. 양(梁)은 예전에 휘(喙) 또는 탁(湫) 자를 사용하였다. 단 신라의 방언에 녹휘(喙)도 양(梁)도 도(道)라고 발음하였다. 달(達) 글자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 휘(喙)·사휘(沙喙)·본피(本彼) 등의 부명(部名)은 알천양산촌(闕川楊山村)·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 등의 호칭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사는 후대에 휘부(喙部)를 알천양산촌(闕川楊山村)으로 고친 것(이하 이에 준한다)을 그대로 잘못 전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왕실의 성(姓)이 진흥왕(眞興王) 때에 시작되어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 추기(追記)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성씨(姓氏)를 갖게 되는 것은 왕씨고려(王氏高麗)에 들어가서이다. 신라인들은 이 부명(部名)을 붙여 구별을 나타냈으므로 각 부(部)에 성(姓)을 붙이는 일은 신라시대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 6부(六部)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형강(兄江) 유역 사록부(沙喙部)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신라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녹(喙)이라는 말은 화벌불(火伐弗)이라는 글자의 훈(訓) 또는 음(音)을 빌려 표기한 말과 같다. 사록(沙喙)은 사벌(沙伐)·소벌(蘇伐)·서벌(徐伐)과 같다. 신라의 국호(國號)는 사록(沙喙)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조 왕 혁거세(赫居世), 거서간(居西干)은 6부(六部) 사람들이 사록부장(沙喙部長, 이 칭호는 후에 소벌간(蘇伐干), 즉 각간(角干)의 위호(位號)가 된다)의 아들을 추대하여 군장(君長)으로 받들었던 것으로, 혁거세란 불구내(弗矩內) 즉 광명리세(光明理世, 빛나는 치세를 말한다)라는 말을 한자(漢字)로 옮겨 적은 것이다. 거서간은 고구려의 고추가(古鄒加)와 같은 말로, 대간(大千) 즉 대주장(大主長)의 뜻이다. 여기에 박씨 성을 붙인 전설이 호공(瓠公)·탈해(脫解)와 마찬가지로 도해전설(渡海傳說)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왕(王) 때에 일본인이지만 표주박(瓠)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 왔다고 하여 호공(瓠公)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다. 마한(馬韓)에 사자(使者)로 가서 마한왕(馬韓王)을 좌절시키고 월성(月城)에 거주했으며, 탈해이사금 때에 대보(大輔)에 올랐다고 한다. 탈해이사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왜국 동북 천리 밖 다파나국 사람으로 전해지며, 왜국이란 우리나라 규슈(九州)이므로 다파나국은 그 동북 일본 기준으로 100리(里)에 있는 땅이거나 단바(丹波)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가 일본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혁거세의 뒤를 이은 남해왕(南解王)의 장녀와 결혼하여 훗날 왕위에 오른 것이다. 혁거세·호공·탈해와 관련해 이동(異同)이 매우 심하여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씨의 시조 알지는 탈해의 양자(養子)였다고 전하는 『삼국사기』에 새로이 김대문(金大問)의 설(說)을 기록한 것 가운데,

석남해(昔南解, 제2대 왕)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유리(儒利)와 사위 탈해(脫解)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 박(朴)과 석(昔), 두 성(姓) 가운데 연장가에게 왕위를 잇게 하라”고 하였다. 그 후 여기에 김씨성(金氏姓)을 더하여 세 성씨에서 후계자가 나와 왕위를 이었다.

는 기사가 있다. 이 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세 성씨의 장자(長者)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연구를 더 해 가다 보면, 왕실이 세 성씨로 나뉘었다는 것은 중국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진흥왕(眞興王) 때에 시작되었다. 진흥왕대에 남통(男統)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 추칭(追稱)한 것으로 신라 왕실은 진골(眞骨)이라는 한 혈속국(血屬國)으로 이루어진 데 불과하다. 이 혈속국은 만약 남통의 가문이라고 생각해서 구별한다면 세 가문이 되겠지만, 성(姓)은 신라인의 왕위 사상과 관계없는 것이며, 진골(眞骨) 혼인을 진골 간에만 행하여 다른 가문의 피가 섞이지 않게 하였다. 만약 다른 가문의 피를 섞는 자가 생기면 진골 신분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골 중 더 높은 혈통을 가진 자를 성골(聖骨)이라고 하였다. 왕위는 성골 출신으로, 세력을 가진 자들의 화백(和百, 혹은 함(諫))이라는 진골 회의에서 추대되어 즉위할 수 있었다. 부자(父子) 계승인 경우가 많았으나, 부자 계승은 추대의 결과이지 왕위 계승의 원칙은 아니었다. 성골인 왕은 진성여왕(眞聖女王)을 마지막으로 끊겨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이후는 진골인 왕이 즉위하였다. 태종무열왕 이후에는 중국 사상의 영향으로 부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왕자는 가계(家系)에 따르지 않고 진골인지 여부에 따른다는 근본 사상은 흔들림 없이 신라 전 시대를 관통하며 엄격히 지켜졌다.

신라의 왕은 거서간(居西干)이라고 칭한 제1대 왕, 차차웅(次次雄)이라고 칭한 제2대 왕, 이사금(尼師今)이라고 칭한 제3대 왕부터 제18대 왕까지 16명의 왕(王), 마립간(麻立干)이라고 칭한 제19대 왕부터 제22대 왕까지 4명의 왕이 있었으며, 제23대 왕 이하의 왕(王)이라고 칭하였다. 거서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차차웅은 제2대 왕의 칭호로, 자충(慈充)이라고도 쓰며, 신라의 김대문(金大問)의 설(說)에 따르면,

방언(方言)으로 무(巫)를 말하지만 세인(世人)들은 무를 귀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본 까닭에 이를 외경(畏敬)시하여 결국 존장자(尊長者)를 칭하여 자충(慈充)이라 하였다.

고 설명한다.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이사금은 마찬가지로 김대문의 설에 따르면, 성지(聖智)한 사람이 다치(多齒)였기에 생겨난 치리(齒理)의 뜻이라는 것이다. 이사금은 매금(寐錦)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 변하면서 글자를 빌려 쓴 차이에 중국이지 않는다. 아마 주군(主君)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마립간(麻立干)에 대해서도 김대문의 설이 있지만, 부회(附會)에 가까우며 고구려의 막리지(莫離支)와 같은 말로 두간(頭干)의 뜻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연대(年代)에 대해서는 왕계표(王系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세대(世代)와 연대(年代)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혁거세(赫居世)의 즉위를 오봉원년(五鳳

元年) 갑자(甲子)로 본 것은 후세 신라의 사가(史家)가 개국 연대를 삼국 가운데 가장 먼 저인 것으로 정해, 고구려가 개국한 해와 동일동갑(同一同甲)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교적 신용할 만한 것은 세대(世代)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대가 명확한 법흥왕(法興王) 대부터, 한 세대가 30년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시기는 신라 역대의 연대별표(年代別表)와 같다.

이 추정에 따르면, 시조 왕 혁거세는 3세기 초의 왕이고, 파사(婆娑)는 3~4세기 무렵의 왕이었던 것이다. 이 추정 연대는 주변 상황에도 매우 잘 적용된다.

즉, 신라는 3세기 초에 서벌부(徐伐部) 출신의 혁거세에 이르러 6부(六部)의 추대를 받아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인 및 그 밖의 준웅(俊雄)한 자를 받아들여 왕자(王者)의 뼈대를 이루어 일종이양(一種異樣)의 국체(國體)를 만들었으며, 점차 국력을 신장하여 부근의 여러 소국(小國)을 병합하여 3~4세기 사이 파사왕 대에 이르러 강국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제6절 백제·신라의 흥기(興起)에 대한 한(韓) 제국(諸國)의 상황.

가라제국(加羅諸國)의 기원(起源)

3세기에 백제는 마한(馬韓) 제국을 병합하였고, 신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진한(辰韓) 제국을 병합하여 변한(弁韓)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두 나라, 백제와 신라의 강력한 압박에 대해 잔여 제(諸) 한국(韓國)은 연합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어서 결국 외부에 원조를 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晉)의 무제(武帝) 함녕(咸寧) 무렵부터 효무제(孝武帝) 대원(大元) 7년(276년~382년)에 이르는 사이, 특히 대강원간(大康元間 : 280년~289년)은 이들 제국이 빈번하게 진(晉)에 사자(使者)를 보내며 조공(朝貢)을 하였다. 이 당시 중국 주변의 제(諸) 민족들 사이에 흥기하고자 하는 기운이 치솟기 시작하여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풍조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대국(大國)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보호를 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진은 이들의 보호에 힘을 쓸 수 없었으므로 제국은 점차 백제·신라에 병합되어 3~4세기 무렵에는 전라 남쪽에 있던 마한의 일부와 변한의 제국만이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변한 제국은 비교적 결속력이 강하여 제국 가운데 강대한 자는 제국의 주장(主長)으로서 외적(外敵)에 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국을 가야(加耶) 또는 가라(加羅)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다. 가라(加羅) 또는 가야(加耶)는 간(干)의 나라라는 뜻으로, 한인(韓人)들이 자칭(自稱)한 데서 나왔으며 삼한 종족의 나라는 바로 가라국(加羅國)이었는데 이들 제국은 동쪽에서 신라에 병합되는 나라가 많았고, 서쪽에서는 백제에 병합되는 나라가 많았다. 그렇게 병합된 나라는 백제가 되기도 하고 신라가 되기도 하여 가라(加羅)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는 점점 감소되다가 낙동강(洛東江) 유역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 또는 전라의 동남쪽에 몇몇 나라만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남은 가라국의 제국은 4세기 초에 일본의 보호 아래 들어감으로써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였으며, 이 연합국은 신라·백제와 대립하여 가라국이라는 일국(一國)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가라의 제국 가운데 세력이 큰 나라는 다른 제국의 맹주로 받아들여져 대가라국(大加羅國)으로 불렸으나, 김해(金海)에 있던 임나국(任那國)은 일찍부터 한국(韓國) 안의 한(韓, 구야한(狗耶韓))으로도 자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성해지면서 오랫동안 맹주로 있었으며 일본과 교통하는 출입구였으므로, 일본인은 범위가 막연한 가라의 칭호 대신에 가라 지방까지도 임나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다. 가라국의 중심은 오랫동안 김해의 임나에 있었으며 훗날 고령(高靈)으로 이주함과 동시에 대가라 혹은 단순히 가라라고 칭하게 되면서 이를 기록하는 고사(古史)는 더욱 복잡해졌다. 다만 신라에서는 김해의 땅을 후세에 금관(金官)이라고 칭하였는데, 혼란을 피하고자 이를 금관국(金官國)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들 제국의 왕가(王家)에 대해서는 그 행적이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금관 왕가(金官王家)만이 훗날 신라에 병합되어 김무력(金武力)·김유신(金庾信) 등을 배출하면서 그 행적이 전해졌을 뿐이다. 다만 조선에서 이러한 왕가(王家)의 역대(歷代)를 허구로 기록하는 일이 근대에 누차 일어나고 있어 고인(古人)의 기록까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이들의 개국전설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수로왕(首露王)은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의 저술에는 뇌실청예(惱室靑齋)라고 기록되었다. 고령가야(高靈加耶)의 시조왕(始祖王)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이진아고일(伊珍阿鼓一)」에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 기록되었으며, 최치원(崔致遠)의 저술에는 뇌실주일(惱室朱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진주지와 뇌실주일은 글자를 빌려다가 쓴 것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제7절 일본과 신라 및 가라제국(加羅諸國) 간의 교통

일본과 한(韓)은 유구한 고대(古代)에 반도와 섬으로 나뉘었으나, 이들 사이에 교통 왕래는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을 이미 기술하였다. 이들 사이의 교통에 대해 문헌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일본 조정(朝廷)과 신라국(新羅國)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전해지는 그들의 행적이 있다.

신라 측 소전(所傳)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사람인 호공(瓠公)이 등장한다. 신라의 시조 왕 대에 이미 중요한 위치에 올라 훗날 군국(軍國)의 정사(政事)를 맡아보는 대보(大輔)에까지 중용되었다.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은 분명 일본 사람이었다. 시조왕 혁거세(赫居世)·호공·탈해(脫解)의 이동(異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다. 김씨(金氏)의 시조인 알지(閼智)도 호공에게 발견되어 탈해왕의

양자(養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신라 진골(眞骨)의 피에는 일본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골도 이러하므로 일반 백성 사이에도 일본인의 피가 많이 섞였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때부터 왜인과의 교섭 사건이 나타난다. 일본 섬의 주민은 대개 왜인으로 불렸으므로 일본 조정(朝廷)과 관련 없는 자도 많았다. 이러한 신라와 비슷한 관계는 다른 제국(諸國)과의 사이에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일본 측 소전(所傳)을 살펴보면,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가 한국(韓國, 신라로 보는 것은 후대의 설(說)이다)을 왕래하였다는 일설(一說)이 있다. 스진 천황(崇神天皇) 치세에 임나국은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를 파견하여 조공하였다(소나(蘇那)는 말이 수로능(首露陵)에 가깝고 질지(叱知)는 신지(臣智)이다). 스진 천황 치세에 의부가라(意富加羅, 즉 임나) 왕의 아들 도노아아나사등(都怒我阿羅斯等, 또 다른 이름은 우사기아리질지간기(于斯岐阿利叱智干岐)이다)이 나가토(長門)에서 에치젠(越前)을 향해 배를 타고 가서 야마토(大和)에 있던 조정(朝廷)에 내알(來謁)하였다고 전한다. 스이닌 천황(垂仁天皇) 치세에는 신라의 왕자 천일창(天日槍)이 귀화(歸化)하여 그 자손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번성하였다. 또한 스진 천황 치세에는 임나가 상주(上奏)하여 “신(臣)의 나라의 동북쪽 삼파문(三巴汶) 땅은 지방 300리 토지·백성 또한 풍요롭습니다. 신라와 분쟁이 있어 그들이 정벌하려고 하여 민생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신(臣)이 장군(將軍)을 청하니 이 땅을 다스려 귀국의 부(部)로 삼아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천황은 시오노리츠히코노 미코토(鹽乘津彦命)에게 명하여 이를 진압하라 하였다고 고전(古傳)에 있다. 일본 측에도 지방의 호족과 한(韓) 사이의 교통 왕래 행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소나갈질지·도노아아나사등의 전설은 당시 상황과 전설의 내용을 추정해 보면, 멀리 일본 조정의 위명(威名)을 듣고 일본으로 그 보호를 요청한 자들과 유사하다.

제8절 진구 황후(神功皇后)의 가라제국(加羅諸國) 보호

백제·신라가 강대해져 한(韓)의 제국(諸國)을 병합하여, 병합되지 않고 남은 제국 역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신라는 파사이사왕(婆娑尼師王, 이사금(尼師今)은 매금(寐錦)이라고도 쓸 수 있다) 때 가라와의 전투가 더욱 빈번해졌으며, 신라는 속국(屬國)이었던 북방의 음즙벌국(音汁伐國, 훗날의 경주(慶州)와 가까운 안강(安康)과 실직(悉直, 강원도 삼척(三陟)으로 보면 두 나라가 국경을 다투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훗날 이름을 북방으로 옮겼던 것일까?)을 병합하였다. 압독(押督, 지금의 경산(慶山))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비지(比只, 비사벌(比斯伐), 창녕(昌寧)·다벌(多伐, 다라(多羅), 합천(陝川))·초팔(草八, 초벌(草伐), 초계(草溪))을 습격하여 이를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가라제국의 멸

망은 코앞으로 닥쳐왔다.

이때 일본에서는 구슈(九州) 구마소(熊襲)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조정을 따르지 않아, 추아이 천황(仲哀天皇)은 진구 황후와 함께 친정(親征)에 나서 천황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서, 황후는 에치젠(越前)에서 일본해를 건너 나가토(長門)에서 합류하여 군사를 진격시켰으나 구마소(熊襲)의 세력이 매우 강하였다. 황후는 신라를 정벌하면 구마소는 자연히 평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천황을 설득하였으나 천황은 이를 믿지 않던 중, 군막에서 세상을 떠났다. 황후는 즉각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를 쳐서 신라의 국도(國都)까지 들어가자, 파사이사금은 항복을 하며 천지(天地)와 함께 영원히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황후는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였다. 이어서 별도로 장(將)을 파견하여 가라 지방을 평정하여 보호 아래에 두었으므로 한종(韓種)의 잔국(殘國)은 자신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출전 : 『朝鮮半島史』 1편, 연도미상, 미국 하와이대학 헤밀튼도서관 소장〉

2) 『조선반도사』 2편 원고(삼국 부분)

삼국 및 가라시대

개설

4세기 초에 이르러 고구려는 만주에 있는 광대한 영토를 근거지로 조선 반도의 북방과 동방을 영유하여 매우 강대해졌으며, 마한은 백제국으로 변모하여 대체로 통일을 이루면서 대방(帶方) 지역을 얻어 서남 지역에서 웅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신라는 진한을 통일하여 흥기(興起)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변한 제국(諸國)은 일본 조정(朝廷)의 보호 아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부여(夫餘) 종족을 중심으로 강인한 북방 제(諸) 민족과 피를 섞어 강건한 체격에, 중국 문화를 섭취하면서, 진(晉)나라의 쇠퇴를 계기로 서쪽 지역을 향해 눈을 돌려 점차 요동(遼東)으로 진출해 발전하고자 하였으나 이 지역에는 강대한 민족이 자리하고 있어, 다시 남쪽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여 신라를 제압하고 백제에 침범하였다. 이에 마한민족이 고구려를 대적할 수 없었다. 마한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근초고왕(近肖古王)·근구수왕(近仇首王) 부자(父子)는 일본에 복속하여 보호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즉시 백제를 보호하여 고구려의 남진(南進)에 제동을 걸었다. 신라 역시 고구려·일본, 두 나라에 속하였으나 일본의 위세를 빌려 고구려에 병합되는 것을 막으면서 한편으로, 백제를 항상 침입하였다. 고구려왕 담덕(談德)은 요동을 경영함과 동시에 당시 조금씩 쇠퇴하던 모용연(慕容燕)과 화친(和親)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평양(平壤)을 남방 경영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일본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 장수왕(長壽王)에 이르러 북중국에서 발흥한 대국(大國) 탁발위(拓拔魏)를 섬겨, 요동을 영유하여 427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면서 더욱 강대해졌으나, 433년에 신라가 고구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구려를 이반(離反)하고 백제와 연합한 이후 120년 동안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를 공동의 적으로 상대하면서, 삼국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이 후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직접 병사 3만을 이끌고 백제를 급습하여 백제의 국도(國都)인 한성(漢城, 광주(廣州))을 함락시켜, 백제 개로왕(蓋鹵王)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아 귀국하였다. 백제왕의 세자(世子)인 문주(文周)는 남쪽으로 난(難)을 피해 도망하여 일본·신라의 지원을 받아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기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신라는 일본이 보호하는 가라 지방에 야심을 품고 침범을 기도하다가 그때마다 일본의 토벌을 받았으나, 481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변(北邊)을 침범하자 일본 및 백제의 원조를 받고 고구려를 물

리칠 수 있었다. 이 후 백제와 고구려는 해마다 서로 공격을 가하여 모두가 피폐해져 갔다. 신라는 그 위치가 이들에게서 조금 비켜 있는 양상이어서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였고 고구려에 복속한 예종(濊種)을 회유하여 영토를 강원(江原) 지역으로 넓혀 날로 강대해졌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장수왕 때 이르러 극(전성기)을 맞이하였고, 백제는 무령왕(武寧王) 말년에 다소 국력을 회복하고 또 신라와 오랜 세월 화친한 결과 일본의 도움이 그리 필요하지 않게 되어 523년 성명왕(聖明王)이 즉위하자 가라 땅이 탐이나 일본을 속이는 술책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초고왕(肖古王)·구수왕(仇首王) 두 왕 이래, 매우 순종적이었던 백제를 과신한 것은 당시에 예전의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국 사태를 잘못 파악하여 일을 그르친 것이다. 일본은 성명왕의 요청에 따라 남한(南韓) 주요 지역을 백제에 주었고 가라제국은 일본을 이반하였으며, 일본을 이반한 가라제국은 눈에 띄게 신라에 병합되어 갔다. 532년에는 금관가라(金官加羅, 임나(任那) 본국)도 신라에 귀속되어, 일본은 일본에 충성하는 가라제국과의 교통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백제왕에게 가라제국을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백제는 신라와 대립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그리 뜻이 없었다. 오히려 기회를 봐서 나머지 나라들을 자국의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였고, 일본 조정을 기만하는 데만 힘을 쏟아, 가라제국 및 그 나라에 있는 일본의 주재관(駐在官)은 불만이 쌓여 오히려 신라와 친해지려는 태도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신라는 법흥왕, 진흥왕 대에 이르러 국력이 매우 강대해져 547년 백제·신라 및 일본의 가라제국은 연합하여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며, 신라는 한강 상류와 중류 지역을 얻었고 백제는 한성 지방을 회복하였으나 지키지를 못하여 이 지역은 신라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신라는 이곳을 통해 중국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 120여 년간의 우호 관계를 끊고 백제를 고립시켜 버렸다. 백제는 일본에 구원을 간청하여 성명왕(聖明王)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침범하였으나 대패하면서 성명왕이 전사하자 위덕왕(威德王) 창(昌)이 겨우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신라는 가라제국을 병합하였고, 562년에는 고령(高靈)에 있던 가야(加耶)의 마지막 국가까지 멸망시켜, 조선 반도에서 일본의 관부(官府)는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이 시대는 문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본편에서 기술하겠다.

제1장 고구려·백제의 분쟁과 일본의 백제 보호

제1절 4세기 전기의 삼국의 형세

313년, 즉 고구려 미천왕(美川王) 14년, 조선 반도 북방에서 대방군(帶方郡)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고구려·백제는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되었고, 남방에서는 일본의 신라 정벌이 있어 삼국 정립이라는 형세가 대체로 완성되었다. 다만 신라가 삼국 가운데 하나로써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당시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 지금의 집안현(輯安縣) 지방에 도읍을 정하였다. 압록강 전 유역을 본거지로 조선의 북방을 영유하여 자비령(慈悲嶺) 부근까지 미쳤으며, 함경도에서 강원도에 미쳐, 옥저(沃沮)·예맥(濊貊) 등 같은 종족의 민족 외에 수많은 한인(漢人)까지도 포용하였다. 이 무렵에 고구려는 부여 종족(扶余種族)을 근본으로 하여 한민족(漢民族) 및 북방의 강인한 민족과 혼혈을 이루어 강건한 체질을 갖추고 한민족의 문화를 섭취하여 매우 강력해졌다. 고구려 서쪽과 접해 있던 진(晉)나라의 요동군(遼東郡)은 영가(永嘉) 5년(미천왕(美川王) 12년, 311년) 모용외(慕容廆)의 보호 아래 존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진(晉)나라의 명문 출신인 최비(崔毖)라는 자가 동이교위(東夷校尉)로서 부임하였는데, 이때 고구려는 압록강 어구의 요충지 서안평(西安平)을 취하고 이어서 현토(玄菟) 지역을 침략하였다. 동진(東晉)의 원제(元帝) 대흥(大興) 2년(미천왕 20년, 319년)에 최비는 요동 지역의 사민(士民)들 대부분이 모용외를 추종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질투하여 고구려·단씨(段氏)·우문씨(宇文氏)의 세 나라에 모용외가 머무르고 있는 극성(棘城, 지금의 직예성(直隸省) 승덕부(承德府) 내여(內歟)) 을 포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 나라 사이에 의심을 낳아 오히려 대패하고 최비는 고구려로 도망해버려, 요동은 모용외의 아들 모용인(慕容仁)이 장악하면서 완전히 모용씨(慕容氏)의 영유해버린 땅이 되었다. 고구려왕은 수차례 요동을 침략하였으나 번번이 모용인에게 격퇴당하다가 결국 그 국경을 침범하지 못했다. 모용씨는 더욱 강대해져 함강(咸康) 3년(337년)(고국원왕(故國原王) 7년)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慕容皝)은 연왕(燕王)을 칭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는 모용씨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진(晉)나라와 협력하고자 함강(咸康) 2년(336년)에 강남에 있던 진(晉)나라에 사자를 파견하여 특산물을 바쳤으나, 고국원왕(故國原王) 9년에 연왕(燕王) 모용황이 침입해 왔다. 고구려왕은 연(燕)나라에 맹약을 구걸한 결과 연(燕)나라의 군대가 철수하였으며, 그리고 이듬해 세자(世子)를 보내 연(燕)나라에 입조(入朝)하였다. 그러면서도 연(燕)나라의 칠인반장(七人叛將)을 받아들여 길항 관계를 취하였다. 당시 연(燕)나라는 우문 씨(宇文氏)를 멸망시키고자 하였는데, 고구려가 후방을 습격할 것은 필연이었으므로, 먼저 고구려를 치고 나서 우문 씨를 치려고 하였다. 함강(咸康) 8년, 즉 고국원왕(故國原王) 12년에 모용황이 직접 병사 4만을 거느리고 남도(南道)로 출병하였고 이와 별도로 장(將)에게 만 5천의 병사를 이끌고 남북(南北) 양도(兩道)로 와 침입하도록 명하였다. 고국원왕(故國原王)은 동생 무(武)에게 병사 5만을 거느리고 북도(北道)를 막게 하고 직접 병사를 이끌고 남도(南道)에서 대비하였으나, 연

(燕)나라 군대가 크게 이겨 당시 고구려의 왕도(王都)였던 환도(丸都)에까지 진입하자, 왕은 말 한 마리에 의존해 탈주하였다. 연나라의 장(將)은 왕의 어머니와 왕비를 끌고 갔다. 한편 연의 북도군은 모두 패하였는데, 모용황은 다시 이를 추격하지 못하고 미천왕(美川王)의 묘를 파헤쳐 그 시신을 꺼냈으며 부고누대(府庫累代)의 보물을 거두고 남녀 5만여 명을 포로로 데려가면서 고구려의 궁실(宮室)을 불태워 환도성(丸都城)을 파괴한 뒤 돌아갔다. 이듬해 고국원왕은 동생을 사자로 보내 자신을 신(臣)이라 칭하며 연(燕)나라에 입조하면서 조공을 바쳤다. 연왕(燕王) 모용황은 고국원왕 부왕(父王)의 시신을 돌려 주는 한편, 그의 모후(母后)를 인질로 삼았다. 영화(永和) 3년(고국원왕 16년, 346년)에 연나라가 부여를 멸망시키자 부여의 백성은 그 포로가 되거나 도망을 하는 형국이었었는데, 연나라의 막강한 세력 앞에 왕은 굴종하여 왕 25년(355년)에 사자를 보내 연나라에 조예(朝詣)하고 인질을 제공하며 조공을 바쳐 모후의 석방을 청하였는데, 연왕 모용준(慕容雋)은 이를 허락하여 왕의 모후 주(周) 씨를 돌려보냈으며 왕에게 정동대장군 영주사사(征東大將軍 營州刺史)의 관호(官號)를 주어 낙랑공(樂浪公)에 봉하였다.

이때 남쪽에서는 백제 역시 강대해졌는데, 백제는 앞에서 이미 기술하였듯이 부여 종족(扶餘種族)의 왕실(王室)을 바탕으로 한 마한 종족(馬韓種族)의 나라로, 대방(帶方) 한인(漢人)이 어느 정도 섞여서 형성된 나라이다. 그렇지만 왕실 및 귀족의 일부와 국민이 다른 종족이었다는 점은 흥기(興起)한 연대가 비교적 늦은 경우에는 국가의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3년, 낙랑(樂浪)·대방(帶方)이 조선 반도에서 사라진 것은 비류왕(比流王) 시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왕 모용황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백제도 고구려·우문(宇文) 씨·단(段) 씨 등과 마찬가지로 이에 복종하여 군대를 출병시켰다. 그리고 비류왕(比流王) 이후 계왕(契王)을 거쳐 346년에 비류왕의 둘째 아들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즉위하였는데, 왕은 속고(速古)라고도 쓴다. 근초고왕(近肖古王)의 근(近)이라는 글자는 이보다 앞서 초고왕(肖古王)이라는 왕이 있어서 붙인 것이다(다만, 고구려·백제·신라 등에서 왕명(王名)은 미칭(美稱)이어서 이름이 같은 왕이 많다. 특히 백제의 경우가 그렇다). 비류왕·초고왕의 시대는 고구려가 모용씨(慕容氏)에게 제압되어 남하할 수 없게 되자 백제가 북방으로 대방(帶方)의 옛 땅을 경영하고 남쪽으로 마한 제국(諸國)을 병합하던 시대이다.

신라의 경우, 고구려의 미천왕·고국원왕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의 왕은 파사왕(婆娑王)·기마(祇摩)·일성(逸聖)·아달라(阿達羅)·내해(奈解) 등의 제왕(諸王)이다. 이들의 왕위(王位)는 부자(父子) 계승에 따르지 않고 진골(眞骨)의 장자(長者)를 옹립하였기 때문에, 재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일본의 제어를 받는 가라제국, 임나 제국을 침략할 수 없자 북방으로 눈을 돌려 개척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제와

국경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어(또는 없어)서, 양국 사이에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구려의 세력은 강원도 지역에서 신라와 접경(接境)을 이루게 되지만, 고구려는 조선 반도의 후방에 있어 약했던 이 지방보다 비옥한 표조선(表朝鮮)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두 나라 사이에 고구려에 복속(服屬)한 예종(濊種)의 나라(이른바 말갈(靺鞨))가 있어서 신라는 고구려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고구려와 큰 사건 충돌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전쟁은 일본이 한(韓) 제국(諸國)을 보호하기 이전에 양국이 제(諸) 소국(小國)을 두고 빈번하게 쟁탈을 벌였으나, 일본이 양국 사이에 있어 이들 제(諸) 소국(小國)을 보호하게 되자 양국 사이의 전쟁이 그쳤으며, 오히려 서로 사절(使節)을 교환하기도 하여 화평을 유지하였다.

제2절 백제 · 고구려의 교전(交戰) 및 일본의 백제 보호

고구려는 모용연(慕容燕)에게 복종하였으나, 그 후 지난 근심을 끊고 남쪽 지방 경영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남방 경영의 중심은 고조선의 왕검성(王儉城)으로 낙랑군(樂浪郡)의 군치(郡治)가 있었던 지금의 평양이었다(평양은 동천왕(東川王) 때 관구검(官丘儉)에게 환도(丸都)를 파괴당한 이듬해에 축조되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평양은 이름이 같은 다른 성(城)일 것이다. 미천왕(美川王) 초에는 이 지역이 이미 고구려의 땅이었던 것 같으므로 동왕 3년에 요동 동북에 있던 현도군(玄菟郡)을 침략하여 포로로 잡은 8천 명을 이주시켰다는 평양은 지금의 평양일 것이다. 고국원왕(故國原王)은 모용씨(慕容氏)에게 환도(丸都)가 파괴당한 이듬해에 평양 동황성(平壤東黃城)으로 이주해 살았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은 고구려의 강력한 압박이 나라의 기초가 약한 백제에 다가오자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근초고왕은 신라에 화평을 청하는 한편, 일본이 신라를 제어하여 가라제국을 보호하고 있다는 일본의 위명(威名)을 전해 듣고 일본의 지원과 보호를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근초고왕 19년 갑자(甲子)에 사자 3명을 파견하였다. 사절(使節)은 탁순국(卓淳國)(경상도 남단의 창원 지방)에 도착하였으나, 선박이 준비되지 않아 탁순국왕에게 일본의 사인(使人)이 오면 이러한 사유를 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일본에서 시마노스쿠네(斯摩宿禰)가 탁순에 사인으로 와서 이를 전해 듣고 사람을 백제에 보내 이를 알렸는데, 초고왕이 크게 기뻐하며 융숭하게 예우하였으며 사자(使者)를 보내 공헌(貢獻)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백제왕의 사절(使節)은 신라의 조사(調使)와 함께 일본에 왔으며, 진구(神功) 황후 · 오진(應神) 천황은 장군 치쿠마노 나가히코(千熊長彦) · 아라타와케

(荒田別) 등을 백제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아라타 와케(荒田別)는 백제의 장수 목라근자(木羅斤資)와 탁순을 거쳐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古奚津, 전라도 남안(南岸))에 도착하여 남만(南蠻)·침미다례(沈彌多禮)를 평정하였다. 초고왕과 왕자 귀수(貴須) 역시 군(軍)을 이끌고 와서 만났다.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 등, 네 지역(『위지』의 마한 54국 중, 비리국(卑離國)·불미지국(不彌支國)·반구국(半狗國) 등이다)도 자연스럽게 귀복하였다. 일본 조정(朝廷)은 이들 해서(海西)의 제국(諸國)을 모두 백제에게 사여(賜與)하였다. 백제왕 부자(父子)는 아라타와케(荒田別)·목라근자(木羅斤資) 등과 함께 의류촌(意流村, 훗날 주류수기(州流須祇)라는 백제 말기의 주류성(周留城)일 것이다. 임천(林川) 북쪽)에서 서로 만나 기뻐하며 예를 다하여 송견(送遣)하였다. 치쿠마 나가히코(千熊長彦)와 백제왕은 벽지산(辟支山, 김제(金堤)에 있는 읍북(邑北)의 성산(城山)을 말하는 것일까?)에 올라 맹세를 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 고부(古阜)에 있는 두승산(斗升山)을 말하는 것일까?)에 올라 반석(磐石) 위에 앉아 백제왕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약 풀을 깔아 돛자리를 삼는다면, 불에 타는 것이 두렵고, 나무를 잘라 돛자리를 삼는다면 물에 떠내려 갈 것이 두렵다. 그래서 반석(磐石)에 앉아 맹세를 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천추만세(千秋萬歲)에 무궁(無窮)토록 끊임없이 서번(西蕃)으로 칭하여 봄과 가을에 조공(朝貢)을 할 것이다.

고 말하고 치쿠마 나가히코(千熊長彦)와 함께 산을 내려와 예우를 다하여 사자(使者)를 동행시켜 귀국을 도왔다. 훗날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임나의 한기(旱岐, 왕)에게 선언하길,

예전에 우리 선조 속고왕(速古王, 초고왕)·귀수왕(貴首王, 구수왕)은 본래 한기(旱岐) 등과 처음으로 화친을 맺으면서 형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그대를 자제(子弟)로 삼는다. 그대는 우리를 부형(父兄)으로 여겨 함께 천황을 섬기며, 강적을 멀리하여 나라를 편안히 하고 가문을 다스리며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 선조(先祖)와 한기의 화친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하다.

고 하였는데, 이 말을 설명하자면, 이 당시 백제의 초고왕·구수왕 부자(父子)는 별도로 임나의 제(諸) 한기와 서맹(誓盟)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아마도 초고왕 24년의 일이었을 것이다.

이 초고왕 24년은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 사유(斯由), 또는 쇠(釧)라고 한다) 39년

으로, 오랫동안 교차하는 양국의 공전(攻戰)이 시작되던 해였다. 고구려왕은 가을 9월에 2만의 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치양(雉壤, 지금의 백천(白川)일 것이다)에 군영을 꾸려 병사를 나누어 민가를 침탈하였다. 백제왕은 태자(太子) 구수(仇首)를 보내어 군을 이끌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급습하여 고구려 군을 격파하고 5천여 수급(首級)을 획득해 노획물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듬해 진(晉) 태화(太和) 5년(370년)에 진왕(秦王) 부견(苻堅)은 유명한 왕맹(王猛)을 장수로 하여 모용연(慕容燕)을 정벌하였는데, 연(燕)나라 장수 중에 부여·고구려 및 상당(上黨)의 질자(質子) 500명을 이끌고 밤에 성을 열어 진나라 군대를 들인 자가 있어, 연나라는 결국 멸망하였으며, 고구려는 더 강력한 진나라와 접경을 하게 되자 진나라를 위해 연나라에서 도망 온 연태전(燕太傅) 모용평(慕容評)을 잡아 진나라로 압송하였다. 이리하여 북중국의 형세가 크게 변하자, 고구려는 백제를 침입하고자 이듬해(고국원왕 40년, 근초고왕 26년, 371년) 병사를 이끌고 남하하였는데, 근초고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패하(溟河, 임진강) 상류에 매복시키고 고구려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공격하자 고구려군은 패배하였다. 겨울,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近仇首)와 정예 병사 3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공략하였는데,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이에 맞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근초고왕은 군을 퇴각시키고 수도를 한산(漢山, 지금의 광주(廣州))으로 옮겼다.

이 전쟁 이후 고구려와 백제는 철천지원수가 되었는데, 그 이듬해(함안(咸安) 2년) 백제왕은 강남(江南)을 장악한 진(晉)나라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조공(朝貢)하였다. 진제(晉帝)는 백제왕을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임명하였다. 백제 사절이 중국에 입조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보이며 이 후 남중국의 문물은 백제에 유입되어 백제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고 소수림왕 구부(丘夫)가 즉위하였다. 소수림왕은 진나라에 조공을 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한편 진나라의 문물을 도입하였으며, 백제와 황해도 지역에서 빈번하게 교전을 전개하였는데, 백제는 일본의 보호 아래 있어서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남한에 광대한 땅을 획득하였으며 신라가 뒤를 노릴 우려가 없었으므로 항전을 굽히지 않았다. 근구수왕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을 침략하였다. 참전한 군중에 일본의 장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이 시대에 일본의 보호가 없었다면 마한 민족은 고구려에 유린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제3절 일본과 고구려의 대치(對峙)

백제는 일본의 보호 아래 있어 한때 고구려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지만, 고구려는 소

수림왕 이래 더욱 강대해져, 백제는 더 이상 그 위치를 보존하기 어려워졌다. 이 무렵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전쟁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였지만, 고국원왕 때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한편으로 일본에 복속하여 조공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고구려에 복속하여 고구려의 사절을 따라 진(秦)나라 조정에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가라제국과의 관계상 일본의 끊임없는 토벌을 받게 되자, 한층 고구려에 종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일본은 이를 더욱 빈번하게 토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수림왕 때(백제 근구수왕, 신라 고해미추제왕(訖解味鄒諸王) 때) 북중국에서는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촉나라를 취하였으며 양대(凉代)를 평정하고, 동이·서역 62개국의 조공을 받아 북중국을 통일하여 매우 강대해졌다. 고구려도 이러한 진(秦)나라를 두려워하여 신종(臣從)하였는데, 부견(苻堅)은 강남에 있는 진(晉)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383년, 비수(肥水)에서 진(晉)나라의 군대와 일전을 펼치다 패배하면서 형세는 크게 변하였다. 요동 지역에 모용씨의 유족이 일어나 연(후연이라고 부른다)을 부흥시켰다. 비수 전투 이듬해에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인 고국양왕 이연(伊連)이 즉위하였다. 고국양왕은 이 기회를 잡아 요동을 손에 넣고자 4만의 군을 출병시켜 요동을 공략해 요동 현토(玄菟)를 함락시키고 남녀 만 명을 포로로 잡아 귀국하였으나, 연나라가 모용농(慕容農)을 통해 군을 보내서 요동 현토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고구려의 영토는 요동에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백제는 교전을 계속하였으나, 신라는 계속해서 일본의 토벌을 받다가 결국 왕자 미해(美海, 미질사지해간(微叱巳知海干)의 약자)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왕족 실성(實聖)을 고구려 고국양왕 9년에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 고구려에 복종하였다. 그렇다면 당시의 형세는 남쪽의 일본은 가라를 근거지로 하여 백제를 보호하였고, 북쪽의 고구려는 신라를 복종시켜 양웅(兩雄)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던 것이다.

백제의 침류왕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385년), 왕자(王子) 아신(阿莘, 하나는 아방(阿芳)으로 쓰거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아화(阿花)라고 적혀 있다. 신(莘)은 화(華)의 오류일 것이다)이 즉위하였으나 너무 어려서 숙부인 진사(辰斯)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였다. 그는 일본에 무례하여서 오진(應神) 천황이 이를 질책하자 백제인이 진사왕(辰斯王)을 죽이고 일본에 사죄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자는 즉시 아화왕을 왕위에 복위시켰으며, 아화왕은 자신의 아들 진지(眞支)를 일본에 인질로 보냈다. 이때(392년 임진(壬辰) 고구려의 고국양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광개왕 담덕(談德)이 즉위하였다. 광개왕은 정확히는 국강상광개토경안평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安平好太王)이라고 불렸으며(호태왕(好太王)을 호태왕(好台王)이라고 쓰기도 한다), 생존 시에는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고 불렸다. 다만 영락(永樂)은 고구려가 건국된 연호(年號)와 유사하다. 그 원

년은 신묘년(辛卯年)으로, 『삼국사기』 기년(紀年)의 고국양왕 8년에 해당하며, 광개토왕이 왕위를 계승하기 1년 전이어서 『삼국사기』의 기년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금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가정해 보기로 하겠다. 광개토왕의 능은 당시 국강(國岡), 지금의 만주 집안현(輯安縣) 통구(通溝) 동쪽인 동강(東岡)에 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황성평(皇城坪)이라 불렀는데, 능 앞에 거대한 비석(碑石)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 비석은 고구려 시조 왕의 신이(神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 광개토왕의 위업을 기록하였고 이어서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에 관한 광개토왕의 교명유훈(敎命遺訓)을 기록하였다. 이 비석의 기사는 고대사 연구의 중심 자료이지만, 문자의 마모가 심하여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밝혀내기 어려운 지명이 있어 학자들이 아직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비석의 내용이 가진 성격을 보면 공적을 칭송하는 내용이므로 과장된 표현들이 많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비석의 기사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면,

영락 5년 을미(乙未), 왕이 직접 비려(碑麗)를 토벌하고 염수(鹽水)에 이르러 그 부락을 무너뜨리고 우마군양(牛馬群羊)을 획득하는 등 다 말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백잔(百殘, 백제)·신라는 본래 속민(屬民)이었다. 유래(由來) 조공(朝貢)하여 왜(倭) 신묘년(辛卯年)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百殘)·신라를 패배시키고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과잔(科殘, 백제²³)을 토벌하여 수많은 성을 공략하여 취하였으며, 그 나라의 국성(國城)으로 쳐들어가자 적이 포기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싸웠다. 왕은 크게 노하여 아리수(阿利水, 한강을 말하는 것일까?)를 건넜다. 급박해진 백잔왕이 남녀 생구(生口) 천 명, 세포(細布) 백 필을 헌상하고 왕에게 귀복하여 지금부터 이후 영원히 노객(奴客)이 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이에 왕은 은사(恩赦)를 내렸으며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大臣) 10명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수도로 돌아갔다. 영락 8년 무술(戊戌), 운운.

영락 9년 기해(己亥),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순행하여 남하하자 신라가 사자를 보내 왕에게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국경에 넘쳐 성지(城池)를 파괴시키고 노객(奴客)으로 백성을 삼으니 왕에게 귀복하여 구명을 청한다.”고 하자, 왕은 그 충순(忠順)을 칭찬하였다. 신라 사자가 돌아가기를 고하였다.

영락 10년 경자(庚子), 교(敎)를 내려 보기(步騎)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하였다. 남거성(男居城)에서 신라에 도착하였다. 왜가 그 성안에 가득하였다. 관병으로서 왜를 쫓아내고 서둘러 그들을 추적해 임나 가라에 이르러 성을 빼앗았다. 성은 즉시 귀복하였다. 안라인(安羅人) 군을 경계하여 신라성을 공략하였다(이하 글자가 보이지 않아 기사 내용을 알 수 없다²⁴).

23) 원문에 ‘?’로 되어 있음.

예전 신라의 매금(寐錦, 왕을 말한다. 이사금과 같은 말이다)이 아직 내조(來朝)하지 않았다(이하 글자가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다). 조공하였다.

영락 14년 갑진(甲辰), 왜가 법도에 어긋나게 대방 경계에 들어와 성을 공략하다가, 배를 타고 평양으로 다가와 왕당(王幢)에서 만났다. 왜구는 패하여 궤멸하였으며 무수히 많은 자가 참살되었다.

영락 17년 정미, 교를 내려, 보기 5만을 파견해(이하 글자가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다) 교전을 하였고 이때 많은 자가 참살되었다. 기갑(鎧鉀) 만여 벌·군자(軍資)·기계(器械) 등 획득물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귀환 도중에 모모성(某某城)을 공략하였다.

영락 20년 경술, 동부여(東扶餘)는 예전에 추모왕(鄒牟王)의 속민(屬民)이었다. 도중에 배신을 하고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은 직접 군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군여성(軍餘城)에 이르러(이하 글자가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다) 여기에서 돌아왔다.

라고 할 수 있다. 비려(碑麗)는 『진서(晉書)』에 비리(裨離)라고 적혀 있는 나라로, 숙신(肅愼) 서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나라일 것이다. 영락 6년 병신(丙申)의 전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신라를 속민으로 삼아 유래(由來) 조공하였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내용이지만, 백제까지 그렇게 조공하였다는 것은 허구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진사왕(辰斯王)은 북경(北境, 개성 북청(北靑) 석관(石關) 주변을 말하는 것일까?)에 장성풍(長城風)의 관방(關防)을 설치하였고, 5년 사축(巳丑, 고구려 고국양왕 6년)에는 고구려의 남비(南鄙)를 침략하였으며, 7년에는 고구려의 도곤성(都坤城)을 빼앗고 200명을 포로로 잡았다. 진사왕 8년(신묘년(辛卯年)의 이듬해) 7월, 광개토왕은 4만의 군을 이끌고 북비(北鄙)를 공격하여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진사왕은 광개토왕이 군을 잘 다룬다는 말을 듣고도 방어에 나서지 않아 한수(漢水) 이북의 많은 부락이 함락되었으며, 10월에 고구려는 백제 북비(北鄙)의 요충지인 관미성(關彌城)을 공략하여 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나서 진사왕은 구원(狗原)에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다가 11월에 구원의 행궁(行宮)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어 아화(阿華)가 즉위하여 이듬해 8월에 왕의 장인인 진무(眞武)를 장군에 임명하고 관미성 탈환을 위해 1만의 군을 보내 고구려의 남비를 공격하고 관미성을 포위하였으나 식량이 부족하여 결국 철수하였다(관미성은 진사왕 3년 조(條)에 말갈과 관미령(關彌嶺)에서 싸워 이기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관미령과 같은 곳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기(高句麗紀)」에 보면 이 성은 사면이 절벽으로 해수(海水)로 둘러싸여 있다고 나와 있다. 강화·풍덕(豐德)·백천(白川) 연안(延安) 지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적산위원(荻山委員)은 영안성(永安城)으로 상정하

24) 원문에(이하 글자가 보이지 않아 기사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대로 번역하였다. 다음의 경우에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였다.

지만, 내가 조사해 본 결과 그 근거가 약한 감이 있다. 이 주변에 고성지(古城址)가 많으며 저지(低地)의 형태로 크게 변화하였다. 연안 지역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릉비의 기사에는 광개토왕 6년 병신(丙申)에 공략한 성 중에 관미성이 포함되어 있다. 어쩌면 이 성은 단순히 획득한 성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열거는 이해에 오랫동안 획득한 성을 열거한 것일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에 아화왕 4년(영락 6년 병신(丙申)의 2년 전) 7월, 왕은 좌장(左將) 진무(眞武)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쳤으며, 광개토왕은 직접 군 7천을 이끌고 패수(溟水) 상류에 진을 구축하고 교전하였는데, 이때 백제군이 크게 패하여 사망자가 8천이나 되었다. 11월 백제왕은 패수 전투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7천 명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한수를 지나 청목령(靑木嶺, 청석관(靑石關)을 말하는 것일까?)으로 들어섰으나, 큰 눈이 내려 많은 사졸(士卒)이 동사하자 회군하여 한산성(漢山城)에 도착하였고, 군사들은 지쳤다. 그리고 아화왕 6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일본에 인질로 보냈다. 진사왕이 일본에 무례하게 굴자 백제인들이 왕을 살해하여 일본에 사죄하였던 사건을, 진사왕이 구원(狗原)의 행궁(行宮)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한 것은 역사의 일면을 감추려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백제사에 이 사건을 오래 전부터 임진년(壬辰年)으로 기록한 것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임진으로 기록하고 있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사 사건이 일본의 사료에 실릴 때 예전부터 정유(丁酉)라고 기록한 것은 같은 『일본서기』가 이에 관해 「백제기(百濟記)」의 기사를 정유조(條)에 주기(注記)하였으므로 분명하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사 중에는 종종 1년의 착오가 있다. 진사왕의 죽음과 아화의 계승은 임진년 조에 있으나, 광개토왕의 즉위는 신묘년(辛卯年)으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양국의 임진(壬辰) 전투는 실제로 신묘년(辛卯年)에 있었던 것이다. 아화 4년 을미(乙未)로 기록된 전투는 이듬해 즉 영락 6년에 일어난 병인(丙申) 전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본군은 신묘년에 백제를 구원하고자 고구려에 예속한 신라에게 타격을 가하였을 것이다. 이때 진사왕의 거동이 무례하다고 하여 백제인은 진사왕을 죽이고 일본에 사죄한 뒤 아화를 옹립하였을 것이다. 병신(丙申) 전투에 광개토왕은 직접 수군을 이끌고 압록강 어구에서 강화 풍덕(豊德) 지역에 상륙하여 육로로 온 군대와 합류해 임진강에서 교전을 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한강을 건너 백제의 국토인 한성으로 압박해 가자, 백제왕은 고구려에 즉각 화의를 청하고 백제는 곧 고구려에 복속의 태도를 보였다. 「백제기」에, 아화(阿花, 화(華)와 같다)가 즉위하고 귀국(貴國, 일본)에 예(禮)가 없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일본은 각나(各那, 백제의 북변(北邊))·지침(支侵, 충청북도(忠淸北道) 당진(唐津)의 백제 중부, 일본과의 교통의 요지인 항구) 및 남한의 땅을 백제에게서 빼앗아 고구려 남하에 아울러 대비하였다. 백제도 고구려와 양립할 수 없으니 일본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

어, 6년 정유(丁酉)에 세자 직지(直支, 전지(腆支))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고 이듬해 고구려를 치려고 계획하였으므로 광개토대왕 능비의 기사에, 백잔(百殘)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는 것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이듬해 기해(己亥), 고구려왕은 백제를 토벌하고자 평양으로 순행하여 남하하였으며, 이때 일본군은 신라가 고구려에 복속하여 일본에 대항하였기에 이를 토벌하자, 다급해진 신라는 고구려에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하여, 이듬해 영락 10년 경자(庚子), 고구려왕은 보기(步騎) 5만을 보내 신라로 들어가자 이에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적병을 김해·창원 지역으로 유인해 안라(安羅, 함안(咸安)을 말한다. 진해보다 내지에 있는 교통상의 요지이다) 사람들과 함께 기습공격하여 고구려군을 패퇴시키고 일본은 다시 신라로 들어갔다. 신라 국왕은 직접 고구려에 입조하여 고구려에 신중하였다. 당시 매금(寐錦) 이사금(尼師今, 신라 국왕의 호칭)은 유례(儒禮)·기림(基臨)·홀해내물(訖解奈勿)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수차례 신라에 침입하여 신라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신라기에도 명백하다.

영락 14년 갑진(甲辰, 아화왕 13년) 전투는 영락 10년의 경자(庚子) 전투와 관련이 있다. 일본은 고구려군이 신라를 거쳐 조선 반도의 남해안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마침내 고구려를 토벌하기로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백제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그 전년(前年) 계묘(癸卯), 일본의 사자(使者)가 백제에 오자 왕은 예를 다하여 맞이하였다. 갑진년에 일본군은 황해도 북쪽으로 가서 성을 빼앗고 배를 타고 평양을 압박하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왔다.

그 이듬해 을사(乙巳), 백제 아화왕이 세상을 떠났다. 세자 직지(直支)는 인질로 일본에 있어서 아화왕의 둘째 동생인 훈해(訓解)가 섭정을 하면서 세자의 귀국을 기다렸으나 아화왕의 막내 동생인 설례(磔禮)가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 아화왕의 사망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천황은 직지를 불러 나라로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라 하고 포림성(葡林城, 지금의 전라남도 능주(綾州)) 등 겸집(兼轄)의 땅을 하사하여 호위 군사와 함께 귀국시켰으며, 백제인은 설례를 죽이고 직지의 즉위를 맞았다.

광개토왕은 일본 때문에 남쪽을 병합하지 못하고, 결국 서쪽과 동쪽의 토지와 백성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진(秦)나라가 망하여 북중국이 다시 대혼란에 빠지자 고구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동에 진출하려 하였으나 부흥한 연나라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광개토왕 9년에 연나라에 사자를 보내 입공하였으나, 연왕 모용성(慕容盛)은 왕의 예가 오만하다 하여 직접 3만의 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해 신성(新城, 요동의 동변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흥경변(興京邊)을 말하는 것일까?)·남소(南蘇) 등 두 개 성을 빼앗았으며 5천 여 호를 이주시키고 귀환하였다. 이듬해 광개토왕은 숙군(宿軍)을 공격해, 연나라의 평주자사(平州刺史) 모용기(慕容弃)를 쫓아버리고, 광개토왕 13년에 연나

라를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남소(南蘇)·신성을 되찾아 왔으며 그 밖에 많은 땅을 획득하여 마침내 요동성, 요양(遼陽)을 말하는 것일까?) 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 14년에는 연왕 모용희(慕容熙)가 요동성을 공격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였으나 성 안을 견고히 하여 성을 지켜냈다. 그리고 광개토왕 15년에는 연군(燕軍)이 목저성(木底城)을 침입해 오자 이를 물리쳤다. 비에 기록된 영락 17년 정미(丁未) 전투는 전해오는 기록이 적지만 요동에서 연(燕)나라와 벌인 전투였을 것이다. 연왕 모용희는 잔혹하여 풍발(馮跋)이라는 자가 모용희를 시해하고 연 왕실의 양자(養子)였던 모용운을 옹립해 즉위시켰다. 모용운은 고구려의 왕족 화의 손자로, 화는 연왕 모용황(慕容皝) 때부터 연나라에 거주하던 자이다. 이에 고구려와 연은 같은 성씨의 나라가 되어 광개토왕은 재위 17년에 사자를 연나라에 보내어 같은 종족(宗族)임을 말하자 양국 사이가 비로소 조금이나마 원만해졌다. 광개토왕은 동쪽으로 북옥저 지역을 정벌하였다. 북옥저는 함경북도에 있던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종족으로 함경남도에 있던 남옥저와 구별하여 북옥저로 불렸다. 광개토왕릉비 기사에는 동부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왕 재위 22년 계축(영락 원년 신묘를 즉위년으로 보면, 임자년이 된다)에 세상을 떠났다. 이어 그의 장자 장수왕 거련(巨連, 연(璉)이라고도 한다)이 즉위하였다.

광개토왕 대부터 장수왕 대에 걸쳐 강대한 고구려가 남쪽에서 뜻을 얻지 못한 것은 실로 일본이 백제를 보호한 덕분이다.

신라가 고구려에 복속하여 일본에 반항적 태도를 취하고 가락(駕洛) 지방 및 백제를 침략하려고 하여 끊임없이 일본의 토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구려가 신라의 존립을 도운 것은 강대한 일본에 대한 변병(藩屏)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한 나라의 변병이 되면 다른 나라의 토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만약 이 시대에 일본의 보호가 없었고 강대한 일본이 없었다면 마한·변한 종족뿐만 아니라 진한을 포함한 모든 한종족(韓種族)은 북방 민족의 혼종(混種)인 막강한 고구려 민족에게 유린당해 지금의 조선 민족을 만나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진구 황후·오진 천황은 성무지인(聖武至仁)으로 남한의 풍요롭고 비옥한 광대한 토지와 백성을 아낌없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하사하여 마한을 통일하고 북방의 강적에 대응토록 하였다. 일본의 안녕과 한종족의 행복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음이 이리하였다. 성무(聖武)를 침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말을 하는 자는 신성한 지인지의(至仁至義)를 모르는 무리뿐. 일본과 한종족은 그 본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하므로, 서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거주한 뒤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본과 한으로 나누어진 데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 시대에 신라인에게 종족의 관념이 있었다면 일본과 한이 지금을 기다리지 않고 이 시대에 규슈 지방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 조정하에 통일되었을 것이다(태고 때 함께하다가 나뉜 같은

민족은 다시 혼일융합(混一融合)된다. 이미 1600년 전에 조선 반도와 섬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한 대륙국가로서 대륙에 문화국을 출현시켜 끊임없이 행복과 영예를 향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섬나라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다른 하나는 조선 반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 국가의 일본에 대한 번병이 되어 형제를 배척하는 직(職)을 받들어 그 존립을 구하고, 임금은 신하가 되고 백성은 배신(陪臣)이 되어 항상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흥망이 있을 때마다 병화를 겪었으며, 백성은 우마와 함께 살육·약탈을 당하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는 함께해야 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화(禍)이다.

제4절 고구려의 전성기 백제와 신라의 동맹

고구려의 장수왕은 재위 기간이 79년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인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그 말년에는 다소 국력이 감퇴되기도 하였다. 백제의 직지왕은 재위 16년(420년, 장수왕 8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아들 구이신왕(久爾辛王)이 즉위하였다. 직지왕 때에는 일본의 목만치(木滿致)가 백제의 정사를 돌보았으나, 구이신왕이 즉위하자 천황은 목만치를 소환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보호 아래에 나라를 보전하였다는 점은 전대(前代)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구이신왕은 재위 8년 만에 세상을 떠나 비유왕(毘有王)이 즉위하였다. 비유왕은 전왕의 장자였다고 전해 지지만, 전지(腆支)의 서자(庶子)였다는 이설도 있다. 이를 연대를 통해 검토하면 후자가 맞는 설이다.

이 무렵 신라 왕자의 연대는 정확하게 고증하기가 어렵다. 기림(基臨)·홀해내물(訖解奈勿)·실성(實聖)·눌지(訥祗) 등의 제왕(諸王)이 백제의 직지·구이신·비유 등의 제왕(고구려 장수왕의 전반기)과 같은 시대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이다.

백제의 직지왕(전지)은 즉위 이듬해 동진(東晉)에 사자를 파견하여 조공하였는데, 직지왕 12년에 동진의 안제는 직지왕을 사지절도독 백제제군사진동장군 백제왕(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에 책봉하였다(중국 측 사료에는 왕명을 영(映)이라 하고 전지(腆支)를 고쳐 전(腆)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와전일 것이다). 비유왕 역시 즉위 3년에 송(宋)에 사자를 파견하여 조공하였고, 이듬해 선왕(先王)의 작호(爵號)를 받은 이후 매년 사자를 파견하고 특산물을 헌상하였다. 신라는 중국해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 지역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었다. 고구려의 장수왕도 즉위한 해에 장사(長史) 고익(高翼)을 진(晉)나라에 파견하여 표(表)를 올리고 자백마(赭白馬)를 헌상하였다. 이에 진나라의 안제(安帝)는 즉각 고구려왕 낙랑군공(高句麗王樂浪郡公)²⁵⁾에 책봉하였다. 고구

25) 원문에 낙안군공(樂安郡公)이라 표기되었으나, 낙랑군공(樂浪郡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려는 이미 오래 전에 오(吳)나라와 교통을 한 적이 있는데, 남중국에 있던 진나라와 교통하면서 진나라의 책봉을 받았다는 것이 글로 남겨진 것은 이 기사가 처음이다. 조선 반도 제국(諸國)과 남중국 간의 교통은 정치상의 의미는 가벼우며, 주로 무역통상의 이익 획득에 주안점이 있었다. 장수왕 당시 고구려가 지배했던 영역은 요동을 전부 차지하였고, 북쪽으로 송화강까지, 동쪽으로 두만강 유역, 남쪽으로 강원도 강릉 부근까지 미쳐 이 지역에서 신라와 접경을 이루었으며, 황해도를 영유하여 임진강·예성강 유역에서 남쪽의 백제와 접경을 이루어, 장수왕 15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통은 일본해 연안 항로를 주요 통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는 완전히 고구려에 복속하여 왕자·왕족을 인질로 보내었고 왕위 계승에도 고구려의 손길이 미쳤다(실성왕·눌지왕 때 그러하였다). 왕자의 호도 고구려의 관호(官號)와 같았는데, 결국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백제 비유왕 7년(장수왕 21년, 433년)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연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20여 년간 백제와 신라의 화친 연합은 지속되었다. 다만 이들이 연합을 한 연대(年代)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연합이 과연 비유왕 7년에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보다 20년 뒤인 백제 개로왕(蓋鹵王)·신라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시대에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로써 남한의 형세는 크게 변화를 맞이하였다. 장수왕은 중국 남조(南朝)와 교통하여 무역에서 이익을 얻었으며 동시에 정치상 의미가 있는 중국 북조(北朝)와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 강대한 위왕(魏王, 탁발씨(拓跋氏)) 23년(435년)에 사자를 파견하여 조공을 하였다. 위나라의 세조가 이를 기뻐하며 이오(李敖)라는 자를 사자로 보내 장수왕을 고구려왕에 책봉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해마다 위나라에 조공을 하였다. 당시 연나라가 수차례 위나라의 침입을 받자 날마다 위협을 느낀 연왕 풍홍(馮弘)은 동쪽의 고구려에게 의지하여 후사를 도모하고자 이 해 비밀리에 사자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자신을 고구려에서 받아줄 것을 청한 일이 있었는데, 위나라는 이듬해 연나라를 정벌하려 나섰으며, 장수왕은 장(將)을 파견해 수만의 군을 이끌고 연나라의 수도 화룡(和龍, 지금의 조양(朝陽))으로 들어가 연왕을 맞이하였다. 연왕 풍홍은 용성(龍城, 즉 화룡(和龍))의 견호(見戶)를 이끌고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이에 위나라는 사자를 파견해 풍홍을 송환할 것을 명하였는데, 장수왕은 위나라에 표(表)를 올려 풍홍과 더불어 임금의 덕을 받을 수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 이어서 풍홍은 장수왕의 대우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원망하며 송(宋, 남조)에 사자를 보내 망명을 요청하였다. 송 태조(太祖)는 왕백구(王白駒)를 사자(使者)로 풍홍을 데려오라 보냈으나 장수왕은 풍홍을 송에 보내려 하지 않고 장을 통해 풍홍을 죽이려고 하였다. 왕백구는 자신의 병사를 시켜 장을 죽였다. 이에 크게 노한 장수왕은 왕백구를 송으로 압송해 버리는데 송 태조는 고구려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한때 왕백구를 하옥시켰다. 당시

송나라는 위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장수왕 28년, 송 원가(元嘉) 16년) 장수왕은 말 800필을 송나라에 보냈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남중국 송과 교통하면서도 북중국 위나라에 신하의 예를 취하면서 그 환심을 잃지 않고 강한 결탁을 이루었다.

강대한 북방의 고구려와 북중국의 위나라의 결탁에 대해 백제·가라·신라를 이끌고 남중국의 송까지 이 연맹에 가담시키려던 일본은 사자를 송나라에 파견하였는데, 그 때 지참한 국서에 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은 천황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이에 등을 돌릴 계획을 꾸미며 빈번하게 사자를 송에 파견하여 송나라의 책봉을 받아 일본과 대등한 나라로 인정받고자 힘썼다. 당시 백제 백성 중에는 신라 및 가라제국으로 유입되는 자가 많아 백제의 국력은 피폐해졌는데 반해, 신라는 서서히 강대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백제의 비유왕은 재위 29년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 개로왕이 그 뒤를 이었다(왕명은 가수리(加須利)이다. 미자(美字)를 골라 경사(慶司)라고도 쓰며 다시 고쳐 경(慶)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신라는 고구려에 복속하여 자주 우리나라²⁶⁾의 토벌을 받았는데, 고구려와 손을 끊고 고구려의 수병(守兵)을 죽였으며, 이에 고구려는 군대를 출병시켜 토벌하여 축족류성(筑足流城)까지 차지해 신라가 위태로워졌다. 신라왕은 임나왕을 통해 임나에 있던 일본부 장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장군 가시와데노 오미이카루가(膳臣斑鳩)는 즉각 구원에 나서 고구려군²⁷⁾을 크게 물리쳤다(『일본서기』 웅략조(雄略條)). 그러나 신라는 항상 일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수차례 토벌을 받았다. 백제 개로왕은 왕제(王弟) 곤지(琨支)를 일본에 인질로 보냈으나 당시 백제는 일본에 등을 돌렸듯이 중국과의 외교도 졸렬하여 속임수가 있었다. 개로왕 18년, 갑자기 사자를 전혀 왕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국으로 여겼던 고구려의 종주국이던 위나라에 파견하여, 고구려의 핍박에 견딜 수 없다고 진정을 하면서 구원을 요청한다며 거짓된 일을 꾸미며 사자를 보낸 이유를 고하였다. 위나라의 헌문제(獻文帝)는 이에 답하기를 “경(卿)이 고구려와 화목하지 않아 핍박을 당한 것이다. 진실로 의를 좇아 지킴에 인으로서 한다면, 어찌 침입을 걱정하리.”라고 깨우쳐 주었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필연의 과오를 낳아서 안 된다”고 꾸짖었으며, 또한 별지의 조(詔)를 내려, “고구려는 선조(위) 때부터 번(藩)으로서 공직(供職)한 지 오래되었다. 고구려는 예전부터 흠이 좀 있었지만, 나라에 크게 해를 끼친 허물은 없었다. 경은 처음으로 사자를 보내 비로소 교통하였는데 바로 고구려의 토벌을 요청하니 사리를 따져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깨우쳐 주었다. 이처럼 추

26) 일본.

27) 원문에는 ‘신라군’으로 기록되었으나, ‘고구려군’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태를 보인 꼴이 된 백제는 고구려에 대적도 하지 못하고 국세를 펼쳐보지 못한 채 백성들은 피폐해져 갔으나, 개로왕은 고구려의 간첩으로 백제의 궁정에 잠입한 승려 도림(道琳)의 계략에 빠져 국도 한성에 화려한 궁전을 조영하는 데 비용을 써 창고는 비어져 갔으며 백성의 곤궁함은 더욱 심해졌다. 이 기회를 보고 있던 장수왕은 개로왕 21년 기묘(己卯, 475년, 장수왕 63년)에 군 3만을 이끌고 백제의 왕도 한성을 포위하였으며, 백제 왕은 성문을 닫고 출전하지 않았다. 장수왕은 군을 나누어 사방에서 협공을 개시하였고, 한편으로 바람이 불어 성 안이 불타자 민심이 두려워하여 항복하려는 자가 생겼다. 개로왕은 수십 기(騎)와 함께 성문을 나와 서쪽으로 도주하다가 잡혀 참수를 당하였으며 한성은 함락되었다. 이때 고구려의 모든 장수들은 장수왕을 설득하여 백제를 완전히 평정하도록 권하였으나 장수왕은 일본을 의식하여 결국 여기서 멈추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이때부터 한성 지역은 고구려의 소령(所領)이 되었으며 고구려의 지배 영역은 멀리 충주 지역에까지 미쳐 충주·청주 사이에서 신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즉시 북한산을 별도(別都)로 정하여 한성이라고 또는 남평양(南平壤)이라고도 불렀으며, 평양·국내성과 함께 삼경(三京)이라고 칭하였다. 개로왕 때의 이 전투로, 개로왕의 세자(혹자는 개로왕의 동생이라고도 한다)는 난을 피해 남쪽으로 가서 신라의 지원병 1만을 얻어 돌아왔으나 결국 소용이 없었다. 이 소식은 일본 조정에 전해졌으며 천황은 용진(熊津, 지금의 공주)을 백제의 수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2장 신라의 점흥(漸興)

제1절 5세기(475년)·6세기(523년) 50년 동안 삼국의 형세

백제 문주왕(文周王)은 패잔 후에 즉위하여 재위 4년 만에 권신 해수(解仇)에게 시해되어, 문주왕의 아들 삼근왕(三斤王, 혹은 임걸(壬乞)이라고도 부른다. 국사(國史)에 문근(文斤)으로 되어 있다. 삼(三)은 임(壬)이 와전된 것이 아닐까?)이 즉위하였으나 해구(解仇)가 전횡(專橫)을 휘두르다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고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앞서 개로왕 대에 왕제(王弟, 『삼국사기』에는 곤지가 문주왕(文周王)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따른다) 곤지(琨支, 혹은 곤지라고도 쓴다)를 일본에 파견하여 천황을 모시게 하였으나, 훗날 귀국하여 문주왕 대에 내신좌평(內臣佐平)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여러 아들들이 일본에 있었는데, 삼근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사를 남기지 않아 일본 천황은 곤지의 다섯 아들 중 둘째 아들인 말대(末大, 즉 모다(牟多))가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므로 칙(勅)을 내려 그를 공으로 불러 위로하고 환국하여 즉위하도록 하였다. 말다(末多)는 즉위하여 동성왕(東城